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 분석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 방안 연구

강택구 · 이상윤 · 심창섭 · 장훈 · 이정석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 분석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 방안 연구

강택구 · 이상윤 · 심창섭 · 장훈 · 이정석

세계지역전략연구 20-03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 분석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 방안 연구

인 쇄 2020년 12월 24일
발 행 2020년 12월 30일
발행인 김흥종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거목정보산업(주) (044-863-6566)

©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9018-8 94320
978-89-322-9000-3(세트)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아세안 협력 특히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협력 사업을 제안한다. 둘째,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기초 하에 아세안과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협력 전략을 도출한다.

국가 주권을 우선으로 강조하는 안보관과 함께 최근 들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사람의 일상생활과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안보관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이 사람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아젠다가 신남방정책에서 위상을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 우리의 아세안 정책은 경제적 이윤 창출과 시장 확보라는 관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과의 관계는 사람 중심의 접근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성과는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인 신남방정책 이행뿐 아니라 향후 우리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축이 되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목차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과 제3장은 2010년 이후 중·아세안 환경협력 현황과 성과, 한·아세안 환경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에 대한 전략을 분석한 후 아세안과의 협력 현황, 주요 협력 기제, 지원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중·아세안 환경협력의 추진 과정에서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중·아세안 환경협력의 성과는 중·아세안

환경협력센터 개소 및 운영, 녹색화 관련 합의와 정책, 중·아세안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란창-메콩강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 및 녹색금융, 아세안과의 활발한 기술협력과 인적교류이다. 상술한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중·아세안 협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우선 중국의 일대일로에 기반을 둔 해외사업의 경우 낮은 사회환경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거나 강제성을 띠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고려로 수원국들의 환경오염 및 파괴를 초래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이 중국의 자본과 중국 노동력 및 중국 기업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정부와 일반 국민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아 반발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크며, 중국의 환경원조 역량도 부족하다. 그리고 중국 내 아세안에 대한 협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

제3장에서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전략으로 제시된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우리와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협력 현황, 주요 협력 기제, ODA 지원 현황을 기술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와 아세안 간의 환경협력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성과와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우리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환경협력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2017-2020)’와 한·아세안 환경협력 프로젝트 등을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아세안 환경협력은 다음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아세안 환경협력의 중장기적 계획을 담아내고

있는 전략이 부재하고 한·아세안 환경협력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 개별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도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우리의 대외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전면에 내세워 주류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제4장에서는 한·중 협력과 우리의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아세안 환경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한·중 협력과 우리의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SWOT 분석을 통해 우리의 강점은 중국에 비해 우호적인 여론, 우리의 2위 교역 파트너, 3위 투자지역(2018년 기준), 새로운 아세안 이니셔티브 구축, 환경부분에서 활발한 아세안과의 협력,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인 ODA 경험이다. 우리의 약점으로는 한·아세안 환경협력 조직과 중장기 전략 부재,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원, 아세안 개별 국가와의 채널의 상대적 빈약과 편중된 협력, 환경 주류화를 위한 사고 부재이다. 기회의 요인으로는 중국 시장 대체 생산 및 소비거점 부상,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 아세안 경제/사회공동체 역내통합 노력 지속, 경제 성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부의 높은 의지, 한류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제고이다.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으로는 중국의 아세안 진출 확대로 경쟁 심화, 일부 국가의 높은 정치적 불안정성, 아세안 국가들의 거버넌스 역량 부족이다. 상기 분석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한·중 협력 분야로는 ICT에 기반을 둔 환경과 인프라를 결합한 스마트그린시티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신남방정책하에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은 경제적 고려와 더불어 사람 중심의 인간안보론적 접근,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주요 협력 아젠다

발굴, 신남방정책에 지속가능한 환경의 주류화, 한·아세안 환경협력 전담 기제 구축과 전략 마련, 환경협력을 통한 우리의 소프트파워 강화,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한 인식공동체 확산, 다자적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주요 결론과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 주류화의 개념을 신남방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향후 신남방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상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신남방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의 주류화를 도모한다. 예를 들면, 신남방정책의 기존 비전을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통한 평화공동체 건설'로 수정 보완하는 동시에 신남방정책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연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면서 K-녹색 주류화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브랜드를 추진한다.

본 연구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해외 현지조사 등이 여의치 않아 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 회의를 중심으로 진행한 아쉬움이 있다. 더불어 추후 연구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위한 구성원 개별국가별 세부 사업을 개발하고 아세안-일본 환경협력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14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17

 3. 연구 방법 및 구성 18

 가. 연구 방법 18

 나. 연구 구성 21

제2장 중·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23

 1. 중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4

 가.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아세안 협력강화 24

 나.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점에서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전략 26

 2.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4

 가. 정상회의 34

 나. 정부 간 회의 35

 3. 중·아세안 환경협력 지원 현황 44

 가. 중국의 아세안 대외원조 현황 44

 나. 중국의 메콩강 국가 원조 현황 52

 4.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3

 가. 중·아세안 환경협력센터 개소 및 운영 53

 나. 녹색화 관련 합의와 정책 53

 다. 중·아세안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56

 라. 아세안과의 활발한 기술협력과 인적교류 57

5. 중·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58
가. 사회환경 가이드라인의 부재 또는 낮은 기준 적용	58
나. 일대일로 개발에 따른 아세안국가들의 환경 피해	60
다. 수원국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불만	62
라. 국제기구보다 협소한 환경 개념	63
마. 중국 환경원조 역량 및 경험 부재	64
바. 낮은 재정적 지원과 채무 리스크	64

제3장 한·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67

1. 한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68
가.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국의 아세안 진출 모색	68
나. 신남방정책의 주요 전략	70
2.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72
가. 정상회의	72
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83
다.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	87
라.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	91
마. 기타	93
3. 한·아세안 환경 ODA 지원 현황	94
4.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99
5. 한·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102

제4장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105

1. 중·아세안 환경협력 SWOT 분석	106
-----------------------------	-----

2. 한·중 공동 협력 추진 전략	111
가. 아세안에 대한 한·중 공동 진출의 기회	111
나. 아세안에 한·중 협력 가능성	116
다. 아세안에 한·중 공동 협력 분야: 스마트그린시티 구축	128
3.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123
가. 사람 중심의 인간안보론적 접근	124
나.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주요 협력 아젠다	128
다. 환경협력을 통한 소프트파워 강화	139
라.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한 인식공동체 확산	140
마. 신남방정책에 지속가능한 환경의 주류화	142
바. 한·아세안 환경협력 전담 기제 구축과 전략 마련	143
사. 다자적 환경협력체계 구축	144
제5장 주요 결론과 향후 연구	149
1. 주요 결론	150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152
참고문헌	153
부 록	177
Executive Summary	179



표 차례

표 1-1. 기존연구 현황	17
표 2-1. 2020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대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분야별 현황	33
표 2-2. LMC 관련 주요 회의의 진행 추이	43
표 2-3. 중국의 아세안 원조 분야와 총액(2000~2016년)	47
표 2-4. 아세안 주요 국가에 대한 중국의 대외원조 현황(2000~2014년)	48
표 2-5.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대외원조	51
표 3-1.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의 주요 내용	69
표 3-2. 신남방정책 주요 정책	72
표 3-3.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합의 분야와 방식	81
표 3-4. 한국의 신남방 ODA 규모	94
표 3-5. 한국의 분야별 ODA 지원 현황(2020년)	95
표 3-6. 아세안 중점협력국에 대한 우리의 ODA 중점 협력분야	95
표 3-7. 2019년 아세안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ODA 지원 예산 금액	97
표 3-8. 신남방정책과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ODA의 관계	98
표 4-1. 중·아세안 환경협력에 대한 한국의 SWOT 분석	107
표 4-2. AIIB의 아세안 주요 국가 승인 사업 현황	115
표 4-3. 동북아시아 주요 환경협력 체제	145



그림 차례

그림 1-1. 동남아에서 정치적, 전략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국가	19
그림 2-1.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지원 추이(2000~2016년)	46
그림 3-1.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프레임워크(2017~2020년)	101
그림 4-1. 아세안 국민들의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에 대한 의견	113
그림 4-2. 중국의 재부상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생각	113
그림 4-3. 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119
그림 4-4.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관계기관 합동TF	120
그림 4-5. 한국과 아세안의 향후 공동 노력할 분야	127
그림 4-6. 동남아가 직면한 안보 위협 중 상위 3개	131

제1장

K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7년 11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세안과 인도의 협력을 위해 사람(People) 중심의 평화(Peace)와 번영(Prosperity)의 공동체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였다. 2019년 11월에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남방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간 한반도 주변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강과 비교하여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간 북한 핵 위협에 따른 한반도 안정을 위해 주변 강대국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문화적 교류는 주변 4강 국가들 못지않게 빈도와 규모 면에서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동남아 10개국의 아세안 인구는 약 6억 5천만 명이고 국내총생산(GDP)은 약 3조 달러에 육박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2017년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5.3%에 달해 향후 경제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2018년 한국과 아세안 간 교역액은 1,599억 달러에 달하는 등 한국은 아세안의 제2위 교역 대상이다.

아세안지역이 중요해지면서 전통적으로 아세안에 관심과 투자를 해오던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과 기술력으로 오늘날 아세안 특히 메콩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¹⁾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세안과 협력을 과거보다 강화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공산당 대회를 통해 당장(黨章)에 삽입되었고 이로써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전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일대일로 전략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에너지와 교통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에너지 투자의 상당부분은 화석연료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

1) 김태윤 외(2019), pp. 62~72.

부터 2017년까지 해외 에너지 부문에 실크로드기금(Silk Road Fund)과 중국 국영기업에서 투자한 화석연료 프로젝트의 비중은 각각 93%와 95%이다.²⁾ 또한 2013년부터 2016년 기간 중국 금융기관은 해외 석탄 프로젝트에 약 150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하였다.³⁾ 교통 인프라와 경제구 건설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의 착공, 중국-라오스, 중국-태국 등 범아시아를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고, 중국-베트남 간의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건설 중이다. 인프라사업에 집중되어 경제개발 접근방식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아세안에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 아세안과의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고 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전략으로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처럼 한국도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발표하여 아세안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람을 강조하는 신남방정책은 대규모 자금으로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일대일로의 부족한 부분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한·중 공동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도 제공하고 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세안에 대해 막대한 경제력, 가격 경쟁력, 적정 기술을 앞세우고 있는 중국과 아세안 시장을 두고 벌이는 경쟁은 한국에 쉽지 않은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아세안과 효율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한·중 양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3국에 대한 한·중 공동 진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2017년 12월 중국 충칭에서 개최한 한·중 제3국 공동 진출 산업협력포럼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양국의 4대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양국의 공동 진출의 구

2) Zhou(2018), p. 3.

3) "China is massively betting on coal outside its borders-even as investment falls globally" (2018. 4.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5. 6).

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2018년 2월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기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를 연계하는 협력을 현 정부의 대외주요 전략인 신북방 및 신남방정책과 연계하는 협력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제3국 공동 진출 활성화를 위한 ‘중점 사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공동 진출의 성공 사례 발굴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을 합의하였다.⁴⁾

이상의 배경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아세안 협력 특히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을 분석하여 중국의 성과와 한계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기초 하에 아세안과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협력 전략을 도출하려는 시도이다.

본 과제는 전략 도출에 있어 기본적으로 경제적 고려와 더불어 사람에 대한 우선적 고려에 기초한다. 최근 들어 기존의 국가 주권 우선의 안보관과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이후 한국은 인간의 일상적 삶과 존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안보 개념을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사람’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아젠다가 신남방정책에서 위상을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의 아세안 정책은 경제적 이윤 창출과 시장 확보라는 관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과의 관계는 사람 중심의 접근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국정 기조인 신남방정책 이행뿐 아니라 향후 한국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축이 되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4)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온라인 보도자료(2018. 2. 2),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의 주요 결과: 4대 협력 방향에 대한 합의 도출」(검색일: 2020. 5. 6).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기존연구에서도 아세안과의 환경협력을 모색하려는 연구는 일부 있었다. 아세안 지역과의 환경협력 또는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거나 중국의 동아시아 환경협력 현황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성과에 기초하여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새로운 국가정책 기조인 신남방정책을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를 시도한다. 본 연구목적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기존연구 현황

1	과제명	시진핑시대 중국의 역내 환경협력 전망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역내 환경협력 접근 현황을 분석하고 역내 지속가능한 협력체 구축에 있어 중국 활용 방안 모색 - 역내(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의 환경협력 현황 집중 분석 - 역내 협력체 구축에 있어 중국 활용 방안
	연구방법론	문헌분석
2	과제명	한·아세안 환경협력 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연구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아세안 환경협력 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적 연구로서 한·아세안 환경협력의 기본전략과 고려 가능한 협력 분야를 예비적으로 제안 - 한국의 아세안 환경협력, 중·일의 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분석 - 한·아세안 환경협력 전략 제안
	연구방법론	문헌분석, 아세안 전문가 설문조사
3	과제명	對ASEAN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중견국 한국의 역할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아세안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중견국협의체(MIKTA)와 연계한 한국의 역할을 모색 - MIKTA 참여국의 환경협력 현황, 참여국 국가전략 차원에서 환경협력의 비중, 환경협력 강화 추진 방안 제안
	연구방법론	문헌분석

표 1-1. 계속

4	과제명	신홍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홍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홍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 - 중국의 신홍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 동남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 분석
	연구방법론	문헌분석,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
5	과제명	중국의 對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분석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환경협력 현황을 파악 - 중국과 아세안 환경협력 현황과 각 아세안 개별국가들과의 협력 현황
	연구방법론	문헌분석
6	과제명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한국의 동남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도출이 목적 - 중국의 동남아 교역과 투자 현황 -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 현황 분석
	연구방법론	문헌분석,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

자료: 저자 작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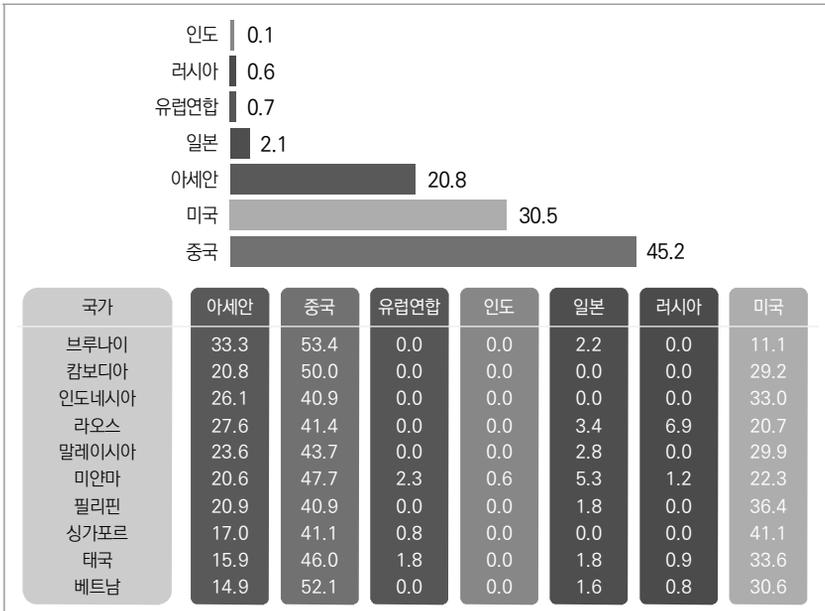
가.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우선 기본적으로 기존 보고서와 논문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련 연구의 성과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세안과의 환경협력에 있어 신남방정책 및 중국의 일대일로와 관련된 논의들이 이미 발표된 연구 문헌 및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검토를 통해 기존 논의의 현황 및 한계점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될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

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아세안과의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한국의 아세안 환경협력에 대한 활로를 제안하였다.

그림 1-1. 동남아에서 정치적, 전략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국가

(단위: %)



자료: Tang et al.(2019), p. 22. 전체 응답 995명. 무응답 13명.

경제적 부상으로 동북아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한국과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상 북핵 문제 관리와 해결에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행위자 중 하나이며, 경제적으로도 우리와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이다. 중국은 여전히 경제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강대국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모색은 한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동남아 내부에서도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

다고 여기고 있다. [그림 1-1]에서 확인하듯이, 동남아에서 정치적, 전략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가/지역에 대해 중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2%에 달한다.⁵⁾ 이처럼 아세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큰 상황에서 최근 신남방정책 등을 통한 우리의 아세안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의 변수를 자연스럽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분야의 소위 매체로 불리는 개별 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의 발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국가차원의 신남방정책 기조 하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사업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전략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둔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협소한 환경 영역을 강조하기보다는 확장된 환경 개념인 지속가능한 환경의 개념에 기초하여 협력을 구상한다.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해 개발도상국 주민들이 겪는 생활환경의 피해가 더욱 심각한 환경문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⁶⁾ 환경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환경정책을 선도할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개념으로 재탄생하였다. 지속가능성은 사회발전을 추구할 때 환경적 영향,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환경은 전통적인 자연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경제적 영향은 생활환경에 대한 오염저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회적 영향은 사회환경에 대한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2015년 유엔에서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발표하였고, 발전 목표를 국가정책에 포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로드맵도 발표하였다.⁷⁾ 따라서 개발도상국과 환경협력에서

5) 이에 반해 미국은 30.5%이고 아세안은 20.8%, 일본과 EU는 각각 2.1%와 0.7%에 불과하다. 아세안 10개국들 중에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국가는 브루나이(53.4%), 베트남(52.1%), 캄보디아(50.0%)이다. 가장 낮게 응답한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으로 각각 40.9%이다.

6) Gardner(1995), pp. 200-244.

7) UNDP, UCLG, UN-HABITAT(2016).

지속가능성 확보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과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협소한 환경 영역을 강조하기 보다는 확장된 환경 개념인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협력을 구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 연구 구성

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등을 기술한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2010년 이후 각각 중국-아세안 환경협력 현황과 성과, 한국-아세안 환경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에 대한 전략을 일대일로의 관점에서 분석한 후 아세안과의 협력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주요 협력 기제를 기술한다. 이에 기초하여 중·아세안 환경협력의 추진 과정의 주요 특징으로서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한다. 제3장의 한·아세안 환경협력 현황도 제2장에서와 비슷한 형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제4장에서는 한·중 협력과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아세안 환경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한·중 협력과 우리의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제안한다.

제2장



중·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1. 중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 중·아세안 환경협력 지원 현황
4.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 중·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1. 중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가.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아세안 협력강화

중국은 일찌감치 아세안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 적극적인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는 등 아세안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고 있다. 1991년 중국과 아세안 간에 대화 관계를 구축한 이래로 양자는 정치와 경제적 관계를 꾸준히 구축해왔으나 환경이슈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2년 11월 중국과 아세안 간에 <중·아세안 전면경제협력 기본협정>에서 환경보호를 중점협력 분야에 처음으로 합의하였다. 2003년 중국과 아세안이 서명한 <평화와 번영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향한 연합선언>을 통해 “과학, 환경, 교육, 문화, 인력 등 분야 교류의 진일보한 활약”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이후 중국과 아세안 간에 본격적인 환경협력이 시작되었다.⁸⁾

중국과 아세안의 환경협력은 중국 생태환경부와 아세안 환경 주관 부문이 공동 작성한 <중·아세안 환경협력 전략 2016~2020(中国—东盟环境合作战略 2016-2020年)>과 <중·아세안 환경협력 행동계획 2016~2020(中国-东盟环境合作行动计划(2016-2020))>에 집약되어 있다.⁹⁾ <중·아세안 환경협력 행동계획(2016~2020)>의 주요 내용은 ① 공동연구 능력 배양, ② 환경 데이터 및 정보 관리를 위한 기술교류, ③ 환경 영향 평가, ④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⑥ 녹색개발을 위한 환경산업 및 기술, ⑦ 환경교육 및 공공 인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중·아세안 환경협력 전략(2016~2020)>에서는 그간의 환경협력을 재평가하며 6개 분야를 구체화하여

8) 中国-东盟环境保护合作中心(2018), p. 635.

9) 中国生态环境部, 东盟成员国环境主管部门(2016), 「中国—东盟环境合作战略(2016-2020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0); 中国生态环境部, 东盟成员国环境主管部门(2016), 「中国-东盟环境合作行动计划(2016-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0).

중국과 아세안의 환경협력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① 중국-아세안 환경보호협력센터 설립, ② 중·아세안 환경협력 포럼 개최, ③ 중·아세안 녹색 사절 계획 추진, ④ 생물다양성과 생태 보호 협력 추진, ⑤ 환경기술과 산업협력 전개, ⑥ 공동정책연구 추진이다.

2015년 8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개최된 아세안 연례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은 아세안과의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정치 분야의 경우 ① 지도자 간 긴밀한 접촉을 통해 중국-아세안 엑스포 및 보아오(博鳌) 아시아포럼 연차회의를 결합한 중국-아세안 비공식 정상회의를 개최, ② <중국-아세안 국가 선린우호 협력조약> 체결 추진, 중국-아세안 관계가 더욱 안정적인 법률적 기반 위에 세워져 양측 관계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 ③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조속 체결, ④ 전략적 기획의 강화를 통해 <중국-아세안의 평화 및 번영을 위한 전략파트너 관계 공동선언 행동계획(2016~2020)> 제정 및 운용이다. 다음으로 지역협력 분야의 경우 ① 중국-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협상하여 추진을 가속화 지역의 전면적 경제 파트너 관계를 비롯한 자유무역 관련 협상 추진, ②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공동 건설해 이와 관련한 새로운 협력 구상안 마련, ③ AIIB를 조속히 설립해 아세안 각국이 초기 회원국으로 가입 도모, ④ 중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 간 대화 및 협력을 강화해 란창(澜沧)-메콩강 6개국 고위급 회의를 소집하고 아세안 발전 격차 축소 노력, ⑤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해 아세안 각국 국방부 장관들이 다음 해 중국에서 열리는 중국-아세안 비공식 국방부 장관 회담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하여 양측은 재해 및 재난 방지와 다국적 범죄 척결을 위한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에도 역점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⁰⁾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연장선상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대부분의 대외원조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사전 조치와 연관된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파괴의 우

10) 「王毅：建设更为紧密的中国 - 东盟命运共同体」(2014. 8.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8. 20).

려를 완화하기 위해 ‘녹색화’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일대일로 생태환경보호 협력 계획(一帶一路生态环境保护合作规划)>, <녹색 일대일로 건설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推进绿色‘一带一路’建设的指导意见)> 등을 마련하여 일대일로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다.¹¹⁾ 2019년 4월 제2회 ‘일대일로’ 포럼에서도 환경을 강조하면서 ‘일대일로’의 연선 국가에 대한 투자가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란 점을 강조한 바 있다.¹²⁾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한 <녹색투자원칙>을 발표하여 30여 개 국가와 기구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녹색발전 연합>을 출범시켜 ‘일대일로’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점에서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전략¹³⁾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기초 하에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환경협력 전략은 자국의 영향력을 동남아시아로 확산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국의 투자와 산업 진출을 도모하고 친환경 이미지를 확산하는 동시에 아세안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11) 环境保护部(2017), 「一带一路生态环境保护合作规划」,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7); 环境保护部, 外交部, 发展改革委, 商务部(2017), 「关于推进绿色‘一带一路’建设的指导意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0).
- 12) 「习近平在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开幕式上的主旨演讲(全文)」(2019. 4.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0).
- 13) 郭楚(2020), 「中国与东盟在“一带一路”倡议框架下的环境合作研究」 전문가원고에 기초하여 저자가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1)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아세안지역에 대한 원조와 투자를 통해 최근 시진핑 이후 강조하고 있는 자국의 지도 이념 중 하나인 ‘운명공동체’를 기조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상업적 목적이 내재한 형태로 진행되는 측면이 강하다. 혹은 중국의 경제와 군사 강국화 과정에서 친중적 세력 형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불투명하고 은밀한 차관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⁴⁾ ‘일대일로’의 추진 과정에서 진행되는 이와 같은 패턴의 행위들이 수원국에 상당한 부채를 가중시켜 중국의 영향력 투자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부채외교’와 ‘신식민지론’이 대표적 사례이다.

대외원조에 기초하여 중국 지도부 사상의 투영을 통한 영향력 확대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19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중국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추진을 견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중국에서 의미하는 인류운명공동체는 자국의 이익 추구에 있어 타국에 관심을 두고 이를 고려하여 자국의 발전과 더불어 각 국가가 함께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 따르면, 일대일로”의 운명공동체 사상은 <유엔헌장>의 취지를 계승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⁵⁾ 2019년 9월 23일, 중국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포럼에 참석하여 기후변화는 각국이 직면한 공동의 과제로서 기후변화대응 협력은 인류의 미래 운명과 직결된다고 의견을 표명하고 “공동이지만 차별화된 책임(共同但有区别的责任)” 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개발도상국이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실천하여 녹색, 저탄소, 지속가능발전의 길을 걷고 녹색 ‘일대일로’의 공동 건설을 견지하고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을 위해 더 많은 역

14) “Tracking China: AidData Sheds Light on Chinese Foreign AID”(2020. 6.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7).

15) 刘虹飞等(2019), pp. 86-90.

량을 끌어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¹⁶⁾ 이처럼 자신들의 담론을 국제사회에 확산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 등 개도국들의 리더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 및 공고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러한 원대한 이상과 바람과는 달리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미흡한 발생 초기 대응과 처리 과정,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이념이 국제사회 특히 아세안 국가들에 투사되어 신뢰와 지지를 얻어내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 새로운 경제적 시장으로서 아세안

중국은 지난 40년의 개혁개방을 거쳐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물질적 발전에 기반하여 자국 내 풍부한 건설, 제조업 등의 프로젝트 추진 경험, 대규모 자금과 기술, 자원개발 등에서의 역량을 지니고 있다. 환경 및 환경보호 분야 협력에서도 중국이 아세안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환경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아세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고려이다.¹⁷⁾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이중 과제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선진국이 가진 높은 환경보호 기준과 고비용의 환경보호 기술설비는 환경 보호 산업이 초보적 수준인 동남아 국가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적정 기술 수준, 낮은 비용,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인해 동남아국가들에 대해 비교적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¹⁸⁾

중국과 아세안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10년 발효로 약 2억 명의 소비자와 4조 달러 이상 규모의 교역 시장 형성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

16) 「习近平主席特别代表王毅出席联合国气候行动峰会」(2019. 9.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7).

17) 아래 내용은 강택구 외(2012), pp. 82~87에서 요약 정리하였음.

18) 「中国环保企业走出去正当时」(2012. 9.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7).

분야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경제발전의 목표와 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해결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동남아에 있어 중국의 적정 기술, 저렴한 비용, 지리적 인접성은 동남아 국가에 비교적 유리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최근 일대일로 인프라 사업을 통한 아세안시장에 대한 대규모 진출로 아세안과의 환경 관련 산업의 확대를 통한 기술협력은 아세안시장에서 중국 기술과 산업의 표준화 촉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를 활용하여 중국의 환경표준을 개도국에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¹⁹⁾ 예를 들어 <녹색 일대일로 촉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에서 환경보호 요구사항을 포함할 것을 약속하거나²⁰⁾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게 보다 많은 친환경라벨 상품을 공공구매에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²¹⁾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적어도 환경이슈에 있어서만은 수원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²⁾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환경협력을 연구한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이 환경문제와 같은 비경제적 분야에 지원을 통한 수원국의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에 기초하여 과거 엄격했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서서히 포기하고 있다고 진단한다.²³⁾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환경표준 수출은 자국의 정책과 기술을 아세안과 동기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자국의 상품을 안정적으로 아세안에 수출할 수 있는 시장 확대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분야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에 집중되어 있다.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MERICs)의 연구에 따르면 추진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경우 전체 2/3 이상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 이상이 에너지 부문에 투자되었고 그중 200억 달러 이상은 재생에너지에 투자되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대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19) Liu(2018), pp. 55-62.

20) Belt and Road Portal(2017a).

21) Belt and Road Portal(2017b).

22) Coenen *et al.*(2020), p. 9.

23) Mol(2011), pp. 785-794.

그 뒤를 화석연료 에너지 프로젝트에 약 150억 달러, 그리드 투자로 약 120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²⁴⁾

최근 들어 중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이미 비교적 높은 실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1/3의 풍력발전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4개 업체가 세계 10대 풍력 발전기 제조업체에, 6개 업체가 세계 10대 태양전지판 제조업체에 들고, 전 세계 1/4의 태양에너지 발전량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의 주요 시장으로서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시아의 43억 소비자들에게 녹색, 저탄소, 순환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중국은 7년째 글로벌 재생에너지 최대 투자국이며, 2018년 중국의 재생에너지 투자는 전 세계 1/3을 차지하여 912억 달러에 이르렀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공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술 또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²⁵⁾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장기적인 전략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여겨진다. 2050년까지 재생산 에너지는 전체 발전량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중국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²⁶⁾ 기술적 투자에 따른 자신감에 기초한 중국은 자국의 상대적으로 뛰어난 재생에너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다.²⁷⁾

3) 친환경 이미지 제고

중국은 2017년부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설이라는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자국의 친환경 이미지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실제 중국의 환경규제는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보다 해외기업의 중국 국내 투자에 엄격한 편이다. 그리고 2014년과 2017년 중국의 해외 대출

24) Coenen *et al.*(2020), pp. 3-4.

25) 「中国贯彻“清洁能源行动”引领全球可再生能源发展」(2019. 8.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7).

26) 「推动清洁能源发展的重大机遇」(2019. 7.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7).

27) Environmental and Energy Study Institute(2018), “Exploring the Environmental Repercussion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0).

과 에너지 및 운송 부문에서의 해외 투자의 상당 부분이 화석연료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외 인프라 투자가 해외 국가들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국제사회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UN의 2030년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실현에도 기여하여 자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2017년 중국은 일대일로의 녹색화와 관련한 일련의 지침과 주요 문서를 발표하고 2017년 제1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에서도 일대일로의 녹색화를 위한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해당 포럼에 참석한 시진핑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국제적 녹색개발연합(BRIGC: Belt and Road Initiative International Green Development Coalition) 결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일대일로’ 녹색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5월 중국 환경보호부, 외교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동으로 <녹색 ‘일대일로’ 건설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²⁸⁾ 이 지도의견은 “평화협력, 개방과 포용, 서로 배우고 서로 본받고, 윈-윈(win-win)관계의 ‘실�크로드’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 협력, 녹색, 개방, 공유 발전의 이념을 공고히 세우고 각국이 함께 상의하고, 함께 건설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견지하며 평등 준수 및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5통(五通)’ 녹색화 과정을 전면 추진하며, 생태환경보호 교류협력과 위험 예방 및 서비스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대화·소통, 정보 기반, 산업기술 협력의 플랫폼을 만들고 정부·기업·민간 주도의 종합적인 협력 방식을 추진하여 녹색 ‘일대일로’ 건설 추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 할 것을 제시했다.

2019년 포럼에 참여한 27개 아시아와 유럽 금융기관들이 <일대일로 녹색투자원칙(GPI: Green Investment Principles for the Belt and Road)>에 서명하였고, 중국은 ‘에버브라이트 일대일로 녹색 투자 기금(Everbright “Belt &

28) 环境保护部, 外交部, 发展改革委, 商务部(2017), 「关于推进绿色‘一带一路’建设的指导意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0).

Road” Green Fund)’을 향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4월 발족한 ‘에버브라이트 일대일로 녹색 투자 기금’은 인민폐 200억 위안 규모로 1단계에서는 100억 위안 규모로 주로 녹색 환경, 녹색에너지, 녹색제조, 녹색 생활 영역에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²⁹⁾ 2020년 6월 22일 EU-중국 정상회담에서도 친환경적인 일대일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³⁰⁾

4)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 유지

중국은 경제적 부상으로 동남아국가들로부터 제기되는 중국 위협론의 불식이라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³¹⁾ 1997년부터 “책임있는 강대국”을 강조하였다.³²⁾ 최근 들어서 중국은 아세안과의 전략적 관계 유지를 위해 대외원조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 채택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지역 안보(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외원조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투사하려고 도모하고 있다.

중국이 아세안과 우선적으로 FTA와 경제회랑을 추진하는 것 역시 무역과 대외지원 확대를 통한 상호 의존성 제고를 통해 지역 안보와 안정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2010년부터 중국은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상품 교역의 90%에 대해 무관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유무역지대(區)를 서남부 지역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 중국의 외교적 의도가 반영된 대외지원의 대부분 수원국은 지정학·지경학적 조건이 고려되거나 정치, 외교 및 안보 전략에서 우선 고려 대상국이다. 2013년 서남아

29) China Everbright Limited(2020), “Everbright “Belt & Road” Green Fund is Officially Established, with Capital Raised in the First Phase Set at RMB 10 Billion ; Fundraising from Everbright Cornerstone LPs Complete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0).

30) “China’s Infrastructure Investment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2020. 6.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7. 10).

31) Deng(2008), pp. 4-31; Wade(2011), “Could ASEAN Drift Apa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 潘一宁(2011), pp. 4~31; Li and He(2011), pp. 30-31.

32) 「十五大政治報告」(1997. 9. 13).

시아국가인 방글라데시와 인도 그리고 미얀마를 연결하는 경제회랑을 실시하여 무역과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2013년 제5세대 지도부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추진된 ‘일대일로’는 아세안을 연선국가로 상정하고 있고, ‘일대일로’의 ‘5통’ 중 선행과제로 평가되는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인프라 구축과 무역확대를 대외원조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2016년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400억 달러를 출연했고, 현재 아세안 회원국은 연선 국가인 동시에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국이다.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정치, 경제, 안보 등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은 2020년 최근까지 총 782.22억 달러가 투자되었다(표 2-1 참조). 가장 많은 대외원조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 순으로 살펴보면 철도로 약 413.85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전체 약 52.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발전소로 약 233.59억 달러로 전체 투자액에서 약 29.9%에 달한다. 그 밖에 항구 약 72.0억 달러, 도로 약 42억 달러, 송유관과 복합운송이 각각 10억 달러이다. 아세안 국가들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로 사업별 현황은 본 보고서 부록으로 수록하였다(부록 표 1 참조).

표 2-1. 2020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대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분야별 현황

	금액(억 달러)	비중(%)
철도	413.85	52.9
발전소	233.59	29.9
항구	72.00	9.2
도로	42.77	5.5
송유관	10.00	1.3
복합운송	10.00	1.3
합계	782.22	100.0

자료: CSIS. "Belt and Road" 자료에서 아세안 국가들만 선별하여 작성,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0).

2.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가. 정상회의

아세안 성립 40주년을 맞이한 2007년 환경보호 협력을 중국과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11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같은 해 11월 당시 중국 총리 윈자바오(温家宝)는 제11차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아세안 환경협력 센터 구축과 협력 전략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2009년 중국과 아세안은 <중국-아세안 환경협력 전략(2009~2015)>을 마련하고 협력 목표와 원칙, 6대 협력 우선 협력 영역으로 △ 공중의식과 환경교육 △ 환경 무해화 기술, 환경라벨 및 청정생산 △ 생물다양성 보호 △ 환경관리 역량 구축 △ 환경제품과 서비스 협력 △ 글로벌 환경문제를 확정하였다. 2010년 중국 환경보호부는 '중국-아세안 환경보호협력센터'를 베이징에 설립하고 연이어 2011년 중국과 아세안은 '중국-아세안 환경협력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채택하였다.³³⁾

한편, 2016년 3월 23일 란창-메콩강 협력 제1차 정상회의에서 중국 총리 리커창은 란창-메콩 수자원 협력센터와 환경협력센터의 공동 건립을 제안하고 기술협력, 인재 및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녹색, 협력,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다.³⁴⁾ 란창-메콩강 환경협력센터는 이듬해 2017년 3월 개소하였다. 2016년 5월 중국-아세안 환경 고위급 회담에서 <중·아세안 환경협력 전략(2016~2020)>을 채택하고 <중·아세안 환경전망: 녹색발전으로 함께>를 발표하였다.³⁵⁾

2017년 5월 14일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포럼'에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

33) 中国生态环境部、东盟成员国环境主管部门(2016), 「中国—东盟环境合作战略(2016-2020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0).

34) 中央政府门户网站(2016), 「李克强主持澜沧江-湄公河合作首次领导人会议时强调, 携手打造澜湄国家命运共同体」(3月23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0).

35) 「中国—东盟环境合作战略(2016-2020) 在南宁发布」(2016. 9.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30).

핑은 녹색·저탄소·순환·지속가능한 생산 및 생활방식을 통한 녹색발전의 실천을 강조하고 생태문명 건설과 함께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강조하면서 '생태환경보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일대일로 녹색발전 국제연합' 설립을 제안했다.³⁶⁾ 2019년 4월 26일, 시진핑 주석은 제2회 '일대일로 포럼'에서 '일대일로 지속가능발전 도시연맹'과 '녹색발전 국제연맹' 건설을 주장하고 '일대일로' 기후변화 대응 남남협력 계획의 실현을 제안하였다.³⁷⁾ 그리고 '일대일로 생태환경보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제2회 포럼에서 정식 출범하였다.³⁸⁾

나. 정부 간 회의

1) 중·아세안 환경협력센터 포럼

중국과 아세안은 양자 간 환경협력을 전담할 수 있는 <중·아세안 환경협력센터>를 베이징에 설립하였다. 2007년 제11차 중국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당시 중국 총리 윈자바오가 제안하였다. 2014년 설립된 상하이협력기구 환경보호센터와 함께 현재 생태환경부 산하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3월, 중국 지도부가 제안한 협력 아젠다 실현을 위해 당시 중국 환경보호부(저자 주: 현재 생태환경부로 명칭을 변경)는 중·아세안 환경보호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2011년 5월 개소하였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하에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환경보호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해당 협력센터의 업무도 강조되었다. 본 센터의 주요 업무는 남남 환경협력 참여 및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내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아세안 환경보호 협력을 중심으로 역내 환경

36) 「习近平在“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开幕式上的演讲」(2017. 5.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30).

37) 「习近平出席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开幕式并发表主旨演讲」(2019. 4.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30).

38) 中国生态环境部(2019), 「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绿色之路分论坛在京举行」(4月 26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0).

보호 국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남남 환경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모색하며, 협력 영역을 확대하고 협력 성과를 제고하고 역내 환경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환경협력을 위한 동반자관계로의 발전이다.³⁹⁾ 아세안과의 환경협력의 상당 부분은 해당 조직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 개최된 중·아세안환경협력포럼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9월 17~18일 중국 환경보호부와 아세안 사무국의 지원으로 중·아세안 환경보호협력센터가 주최하고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가 공동 주최한 ‘생물다양성과 지역 녹색발전’의 주제로 2012 중·아세안 환경협력포럼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⁴⁰⁾ 중국,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lanning, 이하 UNEP),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 사무국,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 등 국제기구, 독일과 네덜란드 협력기구, 세계보전연맹(World Conservation Union), 야생동물보호협회(Wildlife Conservation International), WWF 등 NGO 대표, 관련 연구기관과 협회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중국과 아세안 간 생물다양성 협력 강화가 지역의 녹색개발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생물다양성 협력을 통한 역내 환경협력의 모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2013년 9월 중국 광시 난닝에서 중·아세안 환경보호협력센터와 광시좡족 자치구 환경보호부서 주최로 “지역 녹색개발 혁신 및 건축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 회원국 관련 부서 고위관료, UNEP, ADB 등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⁴¹⁾ 포럼을 통해 중국과 아세안 간 협력 분야로 하수 처리, 대기오염 제어, 청정생산기술, 신에너지 개

39) 中国-东盟环境保护合作中心 홈페이지, 「中国-东盟环境保护合作中心简介」, p.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0).

40) 中国-东盟环境保护合作中心 홈페이지(2012), 「2012中国-东盟环境合作论坛在北京召开」(9月 19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0).

41) 「2013年中国—东盟环境合作论坛举办」(2013. 9.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0).

발 분야라는 점에서 공감하였다. 중국과 아세안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산업의 발전 촉진, 환경보호 기술과 산업 교류를 위한 플랫폼 구축, 중국과 아세안 업계와 지방정부의 참여 독려, 중·아세안 환경보호산업협력 촉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4년 9월 중국 난닝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지역협력을 위한 국가전략: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회”의 제목으로 중·아세안 환경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⁴²⁾ 포럼에는 아세안 각국과 아세안사무국 고위급 관료, UNEP, ADB 등 국제기구 대표, 중국 환경보호부, 광시,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관리, 학계와 산업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조연설을 진행한 중국환경보호부 리간제 부부장은 기후변화, 생태 쇠퇴, 자원 위기 및 주요 자연재해와 같은 세계적인 과제에 직면하여 중국과 아세안은 지역 경제개발의 녹색 변화에 대한 공동의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 양자 협력이 역내의 지역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의 핵심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아세안 환경협력 심화를 위해 3가지 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해상녹색 실크로드와 역내 환경협력공동체의 공동 구축, 둘째, 정책교류와 역량배양,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의 협력 플랫폼과 네트워크 강화, 셋째, 역내 녹색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환경기술과 산업 협력의 적극적 전개이다. 해당 포럼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이미 국제사회의 합의된 인식으로 글로벌과 역내 환경협력의 강화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생태문명과 녹색전환의 추진 과정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하수처리, 대기오염 제어, 중금속 오염 방지, 해양개발, 신에너지 개발 등 영역에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또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발전 촉진과 환경보호 기술 및 산업 교류를 위한 플랫폼 구축,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지방 정부와 업체들 간 교류 장려, 중·아세안 환경보호산업 협력 촉진을 강조하였다.

2015년 9월, 중국 광시 난닝에서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대화와 연수’, ‘중

42) 「2014中国—东盟环境合作论坛在南宁举办」(2014. 09.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0).

국-아세안 환경보호산업 협력과 발전 교류 원탁회의’, ‘중국환경보호산업 기술 전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개최하였다.⁴³⁾ 아세안사무처, 국내 15개 성시 환경보호청, 22개 환경보호 업체, 아세안생물다양성 센터, UNEP, ADB, 스톡홀름 환경연구소 등 국제기관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대화와 연수’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는 해양 녹색 실크로드 건설, 역내 환경협력 공동체 건설을 논의하였다. 한편, ‘중국-아세안 환경보호산업 협력과 발전 교류 원탁회의’에서는 ‘일대일로’ 전략 속에서 생태환경협력 교류를 강화하고 역내 환경협력의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에 집중하였다. 또한 원탁회의에서 환경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PPP 협력 모델에 대한 주제로 중국환경보호 산업 발전 현황, 기술 교환 및 협력 플랫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환경보호산업 기술 전시’를 통해 산업협력 촉진과 ‘일대일로’ 녹색 비즈니스의 기회 모색을 위해 중국-아세안 엑스포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국 업체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중국의 최신 환경보호기술 및 제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2016년 9월 중국 광시 난닝에서 ‘녹색발전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전환’의 주제로 중·아세안 환경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 중국 환경보호부와 광시좡족자치구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아세안사무국, 베트남 자연자원과 환경보호부가 연합으로 주최하였다. 중국 환경보호부, 광시자치구 인민정부, 베트남 천연자원과 환경보호부, 캄보디아 환경부 관계자, 아세안 회원국 환경부서 관계자, UNEP, 스톡홀름 환경연구소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국내외 전문가와 업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본 포럼은 제13차 중국-아세안 박람회 활동 중 하나이다. 포럼은 크게 두 개의 소주제 ‘환경기술 협력과 혁신’과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의 환경목표 달성’으로 진행되었다. ‘환경기술 협력과 혁신’ 주제의 하위 포럼에서는 환경산업 협력 심화와 네트워크 구축, 정보의 상호 연결 강화, 지역 산업 개발 강화를 위한 중국-아세안 환경보호 산업시범기반 공동 구축을 논의하였다. 한편, 포럼 기간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아세안

43) 「2015中国—东盟环境合作论坛在南宁举行」(2015. 9.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1).

환경협력 전략 2016~2020)과 <중국-아세안 환경전망보고서(中国-东盟环境展望报告)>를 발표하고 환경기술 엑스포를 개최하였다.

2017년 9월 13~15일 '중국-아세안 환경협력 포럼 2017: 도시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 교육'의 주제로 중국 광시 난닝에서 개최되었다.⁴⁴⁾ 본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중국-아세안 환경보호 산업과 기술 협력, '일대일로' 환경기술 홍보, 도시 수질 환경관리 4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중국 환경보호부, 중국 광시 및 기타 지방정부 및 환경보호 관련 부서 관리, 아세안 회원국의 환경보호 관리, 아세안 사무국, 스톡홀름 환경연구소 등 국제기구, 중국과 아세안의 환경보호 업체,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중국과 아세안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의 녹색발전개념과 환경보호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고 <중·아세안 환경보호 협력 전략 2016~2020> 추진, 도시의 녹색전환과 발전 촉진, 지방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중·아세안 환경협력 촉진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협력의 잠재력과 새로운 협력의 기회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적 협력 플랫폼 및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자는 내용을 논의하였다. 해당 포럼 기간 동안 중·아세안 환경보호 기술 및 산업 협력 및 교환 시범 기지가 광시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2017년 중·아세안 국제 환경보호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중·아세안 환경보호 협력 프로젝트 서명식도 개최되었다.

2018년 9월 중국은 광시 난닝에서 중·아세안 환경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⁴⁵⁾ 이번 포럼은 7년차로서 중국과 아세안 협력에 있어 환경분야에서 중요한 고위급 협력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회원국의 환경 고위관리, 아세안국가 도시 대표, UNEP, 스웨덴의 스톡홀름 환경연구소 등 국제협력 파트너 대표, 중국의 생태환경부, 광시 좡족(壮族)자치인민정부,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포럼은 크게 2개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44) 中国-东盟环境保护合作中心 홈페이지(2017a), 「中国东盟环境合作论坛(2017)在南宁召开」(9月18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1).

45) 中国-东盟环境保护合作中心 홈페이지(2018), 「2018中国—东盟环境合作论坛在南宁开幕」(9月19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1).

생태도시 건설 등의 경험을 통해 중국과 아세안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국가들의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유용한 정보와 지식의 상호교류, 우수한 환경보호 업체 소개, 도시 건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의 종합적 해결 방안, 국제적 협력 플랫폼과 네트워크 확장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일대일로’ 생태환경보호 기술과 신기술 개발 교류 협력에 관해 논의하였다. 환경보호를 위한 과학혁신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녹색개발을 추진하며, 중국-아세안 환경협력 시범플랫폼을 구축하고, 고체폐기물 처리 기술과 산업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고 중·아세안 국제 환경보호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세안과의 환경협력에 있어 데이터 구축과 환경표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해당 포럼에서 중국의 생태환경부 부부장 쟈오잉민(赵英民)은 ‘빅데이터로 생태환경보호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주제 연설을 진행하였다. 연설에서 그는 중국과 아세안은 환경 빅데이터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정보와 데이터 개발의 격차를 좁히고 환경관리와 환경 규범화의 수준을 제고하여 남남 환경협력의 수준을 높여 녹색과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을 강조하였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포럼으로 2019년 9월 광시 난닝에서 “지역 녹색성장 증진: 친환경도시 건설과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의 모범 사례”의 제목으로 개최되었다.⁴⁶⁾

2) 중·아세안 환경협력 국가연락원 회의

2017년 5월 중국 쓰촨 청두에서 ‘중·아세안 환경협력 국가연락원 회의(中国-东盟环境合作国家联络员会议)’가 개최되었다.⁴⁷⁾ 중·아세안 환경보호협력센터와 쓰촨 환경보호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였다. 중국 환경보호부, 아세안 사

46) CAEISP 홈페이지,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um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1).

47) CAEISP 홈페이지(2017), 「中国-东盟环境合作国家联络员会议在成都召开」(5月 31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1).

미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환경처,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 UNEP 등 40여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역내 환경협력 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과 더불어 <중·아세안 환경협력 전략(2016~2020)>의 이행 현황, 2017년도 중국-아세안 환경협력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중·아세안 환경협력 포럼, 중·아세안 환경정보 공유플랫폼, 중·아세안 친환경 도시 개발 파트너십, 중·아세안 녹색 사절단, 중·아세안 환경기술 및 산업 협력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 일정을 논의하였다.

국장급 회의로 2018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중국 환경보호부 국제협력국 대표 중·아세안 환경보호 협력센터 대표, 지방 환경보호청 대표,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 UNEP,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중국과 아세안 환경협력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2018년 관련 업무에 대한 일정조정과 협력과제를 논의하였다.⁴⁸⁾

3) 란창-메콩강 협력 메커니즘

메콩강은 중국 티베트에서 발원하여 윈난성(雲南省)을 거쳐 동남아국가로 흐르는 총연장 4,800km의 대하천이다. 중국에서는 ‘란창(瀾滄, Lancang)’강이라고 부르고 있다. 메콩강 상류에 지리적으로 위치한 중국은 수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종종 빚어왔다. 중국은 메콩강 상류에 6개의 댐을 이미 건설했고 추가로 11개의 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상류에 댐을 건설하면서 하류의 동남아국가들은 가뭄과 홍수에 따른 물관리가 어려워진 것뿐만 아니라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생태자원 파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동남아에 대한 경제·외교적 영향력 투사와 위상 강화를

48) 「2018年中国—东盟生态环保合作周系列活动在京举行:推动中国与东盟国家环保交流与合作」(2018. 5.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1); CAEISP 홈페이지, 「中国—东盟环境合作国家联络员会议」,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9).

위해 ‘란창-메콩강 협력회의’와 ‘정상회의’를 주도하는 한편, 메콩강 국가들인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에 대규모 차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중국은 지정학·지경학적 우위 및 경제력에 기초하여 ‘란창-메콩강 협력 메커니즘(Lancang-Mekong Cooperation, 이하 LMC)’을 주도하고 있다.

LMC는 중국이 메콩강 유역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11월 제 17차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 총리 리커창의 제의로 시작됐고, 2015년 11월 12일 윈난성 징홍(景洪)에서 정식 출범하였다. 회원국은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6개국이며 2015년 출범 당시 외교부 장관급 회의로 시작하였다. LMC는 정상회의, 외교부 장관 회의, 고위관료 회의, 실무 회의(외교 및 우선 분야의 연합 실무그룹)로 구성된다.

중국은 LMC를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유사한 전략적 방향과 내용을 지향하고 있다.⁴⁹⁾ 2016년 3월 23일 중국 하이난성(海南省) 산야(三亞)에서 제1차 LMC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전면적인 협력 프로세스가 가동되었다. 2018년 1월 10일 캄보디아 프놈펜(Phnom Penh)에서 열린 제2차 LMC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기제를 심화하였다.⁵⁰⁾ 2020년 8월 24일 제3차 LMC 정상회의는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중국 주도의 공중보건 전문 기금을 설립해 메콩강 지역 국가들에 방역물자와 기술제공을 약속했고 ‘운명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수문정보 공유를 통한 기후변화와 홍수 및 가뭄 등 재난 공동 대응을 주문하였다.⁵¹⁾ LMC의 주요 활동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49) ‘일대일로’는 공동상의(共商), 공동건설(共建), 공동향유(共享), 공동승리(共赢)란 목표로 4공과 주요 정책 방향과 내용으로 정책 소통(政策沟通), 인프라 연통(设施联通), 무역 창통(贸易畅通), 자금 융(유)통(资金融通), 민심 상통(民心相通)이란 5통을 설정하고 있다.

50) 「澜湄合作第二次领导人会议发表《金边宣言》」(2018. 1.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9).

51) 中国生态环境部(2020), 「李克强出席澜沧江—湄公河合作第三次领导人会议」(8月 24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9).

표 2-2. LMC 관련 주요 회의의 진행 추이

일시	회의명	주요 내용과 평가
	장소	
2015. 11.12.	제1차 외교장관회의	〈란창-메콩강 협력 개념 문건〉, 〈제1차 외교장관 회의 연합프레스공보〉 통과; 협력 목표와 원칙, 중점영역과 프레임 등 확립; 조기수확프로그램(EHP)과 정상회담 준비 합의를 통한 관련 협력 기제 마련
	중국 윈난성 징흥	
2016. 3.23.	제1차 정상회담	“3+5 협력 프레임” 확인(3대 주요기조: 정치안보, 경제와 지속발전, 인문사회; 5대 주요 협력 분야: 상호소통(互聯互通), 생산능력(產能), 초국경 경제, 수자원, 농업과 빈곤감소 분야 협력); 〈제1차 정상회담 썬아 선언 ⁵²⁾ 〉과 〈LMC 국가 생산능력 협력 연합성명〉 발표를 통한 협력 수준 제고
	중국 하이난성 싼야	
2016. 12.23.	제2차 외교장관회의	〈제2차 외교장관회의 연합프레스공보〉, 〈제1차 정상회담 주요 성과 상황표〉, 〈우선 분야 연합 실무팀 구성 원칙〉 발표; 실무협력과 장기 계획, 각국 외교부에 LMC 사무처 설치; 〈LMC 5년 행동계획(2018-2022)〉 제정과 EHP 실현을 통한 전면적 협력 단계 진입
	캄보디아 씨엔펨	
2017. 12.15.	제3차 외교장관회의	〈제3차 외교장관회의 연합프레스공보〉 발표; 〈2017년 LMC 특별지원 기금 프로젝트 목록〉 선포; LMC 핫라인 정보플랫폼 설치; 〈제1차 정상회의와 제1차 외교장관회의 실천 목록〉 배포를 통해 LMC 협력 1주년 성과 검토, 전방위적 협력을 위한 초보적 기제와 미래 협력 계획 마련
	중국 윈난성 따리(大理)	
2018. 1.10.	제2차 정상회의	〈5년 행동계획(2018-2022)〉 ⁵³⁾ 과 〈제2차 정상회담 프놈펜 선언〉 발표; 〈제2차 정상회의의 협력 프로젝트 목록〉과 “6개 우선 영역 연합 워킹그룹 보고” 배포;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3+5협력 프레임’을 ‘3+5+X협력 프레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중점협력 분야로 수자원, 생산능력, 농업, 인력자원, 의료위생 등 분야의 협력을 통한 6개 회원국 후생 증진 도모를 통해 LMC 협력 분야와 목표를 설정 실질적 성과를 통한 LMC 협력 분야 확대 도모; 중국 주도로 이룬 성과를 회원국에 각인, 중국의 영향력 투사
	캄보디아 프놈펜	
2018. 12.7	제4차 외교장관회의	6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란창-메콩강 유역 경제발전지대’ 건설을 위한 구체화 방안 논의 합의; 생산능력 제고, 교육과 세관, 위생, 청년 등 분야의 협력 전개; 〈제4차 외교장관회의 연합프레스공보〉 발표, 〈5년 행동계획: 2018년도 성과보고〉 배포 진행을 통해 LMC 논의의 주요 포인트가 경제 분야로 확장,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위한 중국의 LMC 기금 통한 회원국 수혜가 가시화
	라오스 루앙프라방	
2020. 2.21	제5차 외교장관회의	5개 회원국은 COVID-19 상황에 직면한 중국 지지 의사 표명; 〈제2차 정상회의〉와 〈제4차 외교장관회의〉 성과 검토; 연내 〈제3차 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광범위한 논의보다는 성과 검토와 〈제3차 정상회담〉 준비 논의
	라오스 비엔티엔	

52) 「澜沧江 - 湄公河合作首次领导人会议三亚宣言(全文)」(2016. 3.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5).

53) 「澜沧江 - 湄公河合作五年行动计划(2018-2022)」(2018. 1.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5).

표 2-2. 계속

일시	회의명	주요 내용과 평가
	장소	
2020.8. 24.	제3차 정상회의	중국 주도 공중 보건 기금 설립, 메콩강 지역 국가들에 방역 물자와 기술 우선 제공; 수문 정보 공유를 통해 기후변화와 가뭄·홍수 대응; 중국 리커창 총리는 5개 회원국은 메콩강을 공유해 사실상 ‘운명공동체’라 강조, 수자원 협력 장관급회의와 수자원 협력포럼 개최 제안(홍수 조기 경보 프로젝트 추진 역설, 기관협력 제고 필요성 강조), LMC 유역경제발전지대와 중국의 ‘국제 육해무역 신통로(国际陆海贸易通道)’와의 연계 필요성 피력. 이를 통해 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위생 분야의 우위를 바탕으로 역내국가에 대한 소프트파워 투자; 방역상황에서도 역내국가에 대한 지원 지속 확대; 일대일로의 확장과 연계하려는 움직임(‘LMC유역경제발전지대’와 ‘국제 육해 무역신통도’ 연계)
	화상회의로 진행	

자료: 中国外交部 홈페이지 자료에 근거하여 저자 정리.

3. 중·아세안 환경협력 지원 현황⁵⁴⁾

가. 중국의 아세안 대외원조 현황

중국의 대외원조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실시하거나 발표하는 일반적인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는 다른 성격과 유형을 갖는다. 중국은 공여국과 수원국 간 수직적 관계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개발원조 혹은 ODA라기보다는 ‘대외원조’를 사용한다. 중국은 대외원조 수원국과 무역·투자를 하나로 묶는 형태(package)를 통해 대외원조를 제공하기에 중국의 대외원조에서 수출금융과 투자지출 등을 변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⁵⁵⁾ 중국의 대외원조는

54) 전가림(2020), 「중국의 대ASEAN 대외원조와 환경협력 지원 현황 분석」, 전문가원고에 기초하여 저자가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프로젝트, 상품, 기술 협력, 인적자원 개발협력 및 해외의료팀 파견, 긴급재난 구조, 물적 자본(장비와 설비 등), 부채경감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금융 분야에서도 ‘무상원조(Grand Aid 혹은 Grant)’와 ‘무이자차관(no-interest loan 혹은 interest-free loan)’ 그리고 ‘우대차관(concessional loan)’, ‘장기 저리차관(long-term low-interest loan)’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눠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다양한 형식과 유형의 대외원조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대외원조 방식을 탄력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타공적자금(OOF: Other Official Flows)’이고 이 역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중국은 ODA와 OOF 이외에도 모호한 공적 자금(vogue OF: 명확하게는 공식 재무의 형식이나 ODA 또는 OOF에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지원 형식)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⁵⁶⁾

중국의 대외원조는 초기 대부분 아프리카에 집중되었다.⁵⁷⁾ 그러나 2007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아세안에 대한 대외원조가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으로 다소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6년 들어 다시 가파른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약 6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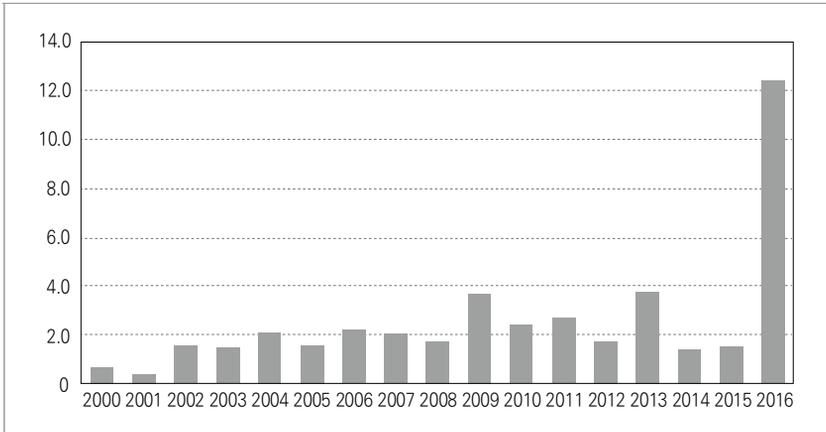
55) 日本國際問題研究所(2012).

56) AIDDATA(2017), “China’s Global Development Footprint: The clearest look yet at Chinese official finance worldwide, 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0). 중국의 대외원조 관련 자료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AIDDATA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기초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만, AIDDATA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국의 대외원조 내용만 정리하고 있어 최근 자료에 기초한 분석은 진행하지 못했다.

57) Liu and Tang(2017).

그림 2-1.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지원 추이(2000~2016년)

(단위: 10억 달러(2014년 기준))



자료: AIDDATA 홈페이지, "China's Public Diplomacy Dashboar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0).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대외원조 상당 부분은 인프라 건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재난구호, 보건위생 및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등도 일부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프트파워'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세안에 대한 대외원조를 중국은 '일대일로'의 연장선으로 여기고 주로 도로와 철도 건설 등에 집중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규모 대외지원은 무상보다는 차관원조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차관원조는 중국의 장비와 기술 서비스 수출을 동반하는 형식으로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생산된 상품이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패턴이다. 중국의 대부분 대외원조가 그렇듯, 대외원조를 받은 수원국이 재차 중국에 조달하는 형식으로 중국은 시장가보다 낮은 구매가로 원자재와 중간재를 도입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향유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아세안 원조는 인프라 구축과 무역확대를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과 위안화 결제 등의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일대일로' 전략의 발전 경로와 유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국의 아세안 원조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활동과 연계되어 있으나 대부분 국유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의 민간부문이 따라가는 형태를 띠며, 대

규모 프로젝트는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인프라 건설로 인한 경제적 성과와 대외적 이미지 제고도 도모하고 있다.

표 2-3. 중국의 아세안 원조 분야와 총액(2000~2016년)

(단위: 백만 달러)

	인프라 투자	부채탕감	인도주의 지원	예산 지원
캄보디아	8,063	800	115	101
인도네시아	8,922	-	34	13
라오스	4,631	83	1	0.28
말레이시아	13,400	-	2	-
미얀마	1,608	218	49	-
필리핀	1,135	-	5	-
태국	1	-	14	-
베트남	3,746	-	0.02	-
싱가포르	-	-	-	-
브루나이	208	-	-	-

자료: AIDDATA 홈페이지, "China's Public Diplomacy Dashboar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0).

[표 2-3]의 2000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아세안 국가별 대외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134억 달러로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다. 다음으로 캄보디아 90.8억 달러, 인도네시아 88.7억 달러 순이다. 이어 라오스(47.2억 달러), 베트남(37.5억 달러), 미얀마(18.8억 달러), 필리핀(11.4억 달러), 브루나이(2.07억 달러), 태국(1,484만 달러) 순이다.⁵⁸⁾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아세안 국가에 대해 중국의 원조가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운송/보관, 산업/광업/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⁵⁹⁾ 한편, 필리핀과 태국을 제외

58) AIDDATA 홈페이지, "China's Public Diplomacy Dashboar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0).

59) 중국의 대외 원조에 대한 국가별, 분야별 현황은 중국 정부 공식 자료 조사와 접근이 여의치 않아 윌리엄 & 메리 글로벌 조사연구소(William & Mary's Global Research Institute)에서 운영하고 있는 "AidData"로 대체하여 조사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2014년까지만 정리하고 있다.

하고는 지속가능한 환경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 긴급대응, 물 공급/위생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원조 금액 중 긴급대응, 물 공급/위생에 대한 중국의 원조 비율을 보면, 필리핀(46.3%)을 제외하면 베트남 0%, 라오스 0.1%, 캄보디아 0.2%, 인도네시아 0.4%, 미얀마 3.6%로 저조한 수준이다. 에너지 생산과 공급에 대한 중국의 원조는 대체로 각 국가별로 높다(표 2-4 참조).

표 2-4. 아세안 주요 국가에 대한 중국의 대외원조 현황(2000~2014년)

국가	분야	금액(천USD)	비중(%)
캄보디아	긴급대응	10,343	0.1
	물공급/위생	11,711	0.1
	부채 관련 조치	400,000	2.4
	농업/임업/어업	1,350,220	8.0
	통신	691,165	4.1
	식량 원조/식량안보 지원	500	0.0
	교육	97	0.0
	에너지 생산 및 공급	5,607,094	33.4
	일반 예산 지원	43,919	0.3
	정부/시민사회	80,669	0.5
	산업/광업/건설	10,565	0.1
	기타 다영역	893	0.0
캄보디아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8,058	0.0
	비정부기구 (NGO) 및 정부 기관 지원	20	0.0
	운송/보관	8,543,025	50.9
	미분류	24,000	0.1
총액		16,782,279	
인도네시아	긴급대응	25,995	0.4
	물공급/위생	0	0.0
	농업/임업/어업	1,463	0.0
	비즈니스와 기타 서비스	5,314	0.1
	에너지 생산 및 공급	4,817,283	69.1
	정부/시민사회	15	0.0
	건강	5,663	0.1

표 2-4. 계속

국가	분야	금액(천USD)	비중(%)
인도네시아	건강	5,663	0.1
	기타 다영역	152,098	2.2
	운송/보관	1,960,000	28.1
	미분류	7,319	0.1
총액		6,975,150	
라오스	긴급대응	2,191	0.0
	물공급/위생	79,423	0.1
	부채 관련 조치	45,000	0.1
	농업/임업/어업	160,095	0.2
	식량 원조/식량안보 지원	500	0.0
	교육	123	0.0
	에너지 생산 및 공급	4,763,106	6.7
	정부/시민사회	68,326	0.1
	건강	44,136	0.1
	산업/광업/건설	416,543	0.6
	기타 다영역	73	0.0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91,463	0.1
	운송/보관	65,720,330	92.1
미분류	200	0.0	
총액		71,391,509	
미얀마	긴급대응	28,476	3.6
	물공급/위생	0	0.0
	부채 관련 조치	72,000	9.2
	농업/임업/어업	21,222	2.7
	교육	200	0.0
	에너지 생산 및 공급	348,593	44.5
	건강	73	0.0
	산업/광업/건설	281,500	35.9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15,051	1.9
	운송/보관	16,396	2.1
총액		783,511	

표 2-4. 계속

국가	분야	금액(천USD)	비중(%)
필리핀	긴급대응	5,487	0.3
	물공급/위생	799,566	46.0
	농업/임업/어업	162,777	9.4
	정부/시민사회	761,269	43.8
	건강	8,000	0.5
총액		1,737,099	
태국	긴급대응	10,181	97.6
	물공급/위생	0	0.0
	건강	252	2.4
총액		10,433	
베트남	긴급대응	40	0.0
	물공급/위생	0	0.0
	에너지 생산 및 공급	711,000	12.3
	정부/시민사회	8,783	0.2
	건강	357	0.0
	산업/광업/건설	397,499	6.9
	기타 다영역	200,000	3.5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21,959	0.4
운송/보관	4,437,275	76.8	
총액		5,776,913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일반 환경보호	2,500	100.0
총액		2,500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비즈니스와 기타 서비스	1,500	100.0
총액		1,500	
전체 총액		206,920,288	

주: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야를 음영 처리

자료: AIDDATA 홈페이지. "AidData's Geocoded Global Chinese Official Finance, Version 1.1.1,"에서 저자 정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0).

중국의 대외원조 경로는 일반적으로 양자원조(Bilateral Aid)와 다자원조(Multilateral Aid)로 나뉘며 전자는 상무부(주로 무상원조, 무이자차관 담당)와 중국수출입은행(주로 우대차관 담당)이 후자는 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다.⁶⁰⁾ 2010년 기점으로 무상원조의 비중은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무이자차관은 대폭 줄었으나 우대차관은 크게 증가하였다(표 2-5 참조).

표 2-5.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대외원조

(단위: 10억 위안)

	2009년까지의 대외원조		2010~2012년의 대외원조	
	원조 규모	총 원조 중 비중(%)	원조 규모	총 원조 중 비중(%)
무상원조	106.2	41.4	32.32	36.2
무이자차관	76.54	29.9	7.26	8.1
우대차관	73.55	28.7	49.76	55.7

자료: State Council of the People Republic of China(2011, 2014) 참조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20. 8. 20).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조 유형과 비교해 보면, 중국은 우대차관 비중이 높다. OECD의 아세안에 대한 중점협력국 지원을 원조 유형별로 나눠볼 때도, 양허성 차관(유상원조)의 규모가 무상원조에 비해 큰 것(6:4)으로 나타난다. 무상원조는 2016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다, 2017년에 다소 감소세를 보이며, 유상원조는 2013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이후 반등을 거듭하고 있다. 무상원조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로는 미얀마가 유일하며 대부분 국가들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국제사회가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비슷하게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탄력적 대응 효과를 가진 우대차관을 선호하며 대략 6:4의 비율로 우대차관과 무상원조를 유지하고 있다.

60) Nowak(2015), p. 6.

나. 중국의 메콩강 국가 원조 현황

란창-메콩강 지역에 중국의 기본적인 목적은 수자원과 산림자원 확보로 상당 부분은 란창의 댐 건설과 발전 설비 확보에 집중되어 있다.⁶¹⁾ 2019년 한국과 아세안 간 특별정상회의 과정에서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한강-메콩강 선언’과 수자원 관리·협력과 관련한 사안들이 중국 정부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다. 한국 정부가 메콩강 유역의 국가들과 수자원의 관리와 협력, 보건위생, 교육, 인적자원 등의 교류·협력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에 중국이 주목하고 있다.⁶²⁾ 해당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이 보호무역과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한 돌파구로 아세안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하며,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를 통한 상업적 목적이 큰 것으로 보도하였다.

중국은 LMC 국가들에 대해 주로 인프라 투자를 해왔는데, 이는 2014년부터 추진된 ‘일대일로’ 전략의 연장인 동시에 이들 국가가 연선국가의 기능이 있기에 주로 인프라 투자에 집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인도차이나 반도를 ‘일대일로’와 ‘국제 육·해상 무역의 새로운 통로’와 연계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⁶³⁾ 2018년 LMC는 ‘3+5’의 협력 프레임을 제시했는데, 최근에는 이에 더해 육상과 해상 그리고 항공 및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초국경적 경제무역협력으로 발전 중이다.⁶⁴⁾

중국의 LMC 지대에 대한 대외원조의 주요 지원 항목은 보건위생, 에너지, 농업에 집중되어 있다.⁶⁵⁾ LMC의 추진 주요 목적과 내용으로 평가되는 수자원과 산림 환경에 대한 지원은 공식자료에서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아직 미

61) Ciorciari(2015), pp. 245-278.

62) 「推动多元贸易 分散外部风险：韩国全面扩大与东盟合作」(2019. 12.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8. 20).

63) 「推动次区域合作拓展深化 打造水资源合作新亮点」(2020. 8.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8. 20).

64) 「报告精读 | 澜湄合作蓝皮书：澜沧江—湄公河合作发展报告(2018)」(2019. 3.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8. 20).

65) 이들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대외원조의 유형과 방식 등이 복잡하여 정확한 항목을 분별하기 힘들며, 지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것도 있어 통계 및 자료 수집과 인용에 많은 어려움 존재한다.

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수자원 개발과 관리와 관련한 중국의 메콩강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대외원조는 공식적으로 7건에 불과하며, 1건(2013)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1년 진행된 프로젝트로서 물 공급과 정수 관련 내용이며 사업체는 모두 중국 국영기업이 시행사로 등록하고 있다.⁶⁶⁾

4.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가. 중·아세안 환경협력센터 개소 및 운영

중국 정부의 승인으로 환경보호부 산하에 2010년 3월 설립 추진된 중·아세안 환경보호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중국과 아세안 간 환경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아세안 환경보호협력센터는 양자 간 환경협력을 위한 정부 간 기관으로 환경협력 전략과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부 간 주요 회의 개최에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기술과 환경산업 교류 확대, 공동 정책 연구를 통한 정책 결정자들에게 정책적 제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 녹색화 관련 합의와 정책

중·아세안 협력에 있어 환경분야는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2004년 제1차 중국-아세안 환경정책대화를 진행한 이후 2007년 제11차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중·아세안 환경보호협력전략> 수립과 <중·아세안 환경보호협력센터>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환경협력의 제도적 기반

66) AIDDATA Research and Evaluation Unit(2018), "Data Package for AidData's Geocoded Global Chinese Official Finance Dataset(Geocoding Methodology Version 2.0.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0).

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중·아세안 환경보호협력전략(2009~2015)>, 2011년 <중·아세안 환경협력 행동계획(2011~2013)>, <중·아세안 환경협력 행동계획(2014~2015)>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중·아세안 환경보호협력전략(2009~2015)>에서는 기존의 우선 협력 영역을 심화하고 주요 7대 협력 분야와 협력 과제 등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였다. 2004년 중국-아세안 정책대화 회의에서 공중의식과 환경교육, 환경 무해화 기술 촉진, 환경라벨과 청정산업 촉진을 기존 우선협력 영역으로 확정하였다. 새로운 협력 영역으로 생물다양성 보호협력, 환경관리역량 구축, 환경상품과 서비스 협력, 글로벌 환경문제를 선정하였다. 2016년에 들어 중국과 아세안은 협력 범위를 확대한 <중·아세안 환경협력 전략(2016-2020)>을 채택하였다.⁶⁷⁾ 본 전략에서 선정한 협력은 정책 대화와 교류, 환경 데이터 및 정보 공유, 환경영향평가, 생물다양성과 생태 보호, 환경산업 기술의 녹색발전 촉진, 지속가능발전 도시, 환경교육 및 공공의식, 조직과 인적 역량 강화, 공동연구 구축이다. 중·아세안 환경협력 전략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과 기타 지원으로는 △ 중·아세안협력기금 △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기타 기금 △ 중국과 아세안 구성국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현금과 현물자원 △ 국제파트너 또는 제3국 기부금 △ 사기업 기부금이 있다.

또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프레임 하에서 중국과 아세안 간 협력에 있어서도 녹색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3월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 공동 발표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추진의 비전과 활동>은 무역투자에서 생태문명이념을 부각하여 생태환경,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녹색 실크로드의 공동 구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및 파괴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의 녹색화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17년 중국 환경보호부는 <일대일로 생태환경보호 협력 계획>과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와

67) 中国生态环境部, 东盟成员国环境主管部门(2016), 「中国—东盟环境合作战略(2016-2020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0).

공동으로 <녹색 ‘일대일로’ 건설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녹색 ‘일대일로’ 건설의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다. 이어 2019년 4월 제2회 일대일로 포럼에서도 녹색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투자에 있어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투자원칙(GIP)>을 마련하여 프랑스, 싱가포르, UAE 등 27개국의 서명을 확보하였다.⁶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원칙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응할 목적으로 <일대일로 국제녹색발전연합(BR International Green Development Coalition)>도 출범하였다.⁶⁹⁾

한편, 란창-메콩강 지역과의 협력에서도 지속가능 인프라를 구축하고 녹색 금융 프로젝트를 출범하는 등 녹색을 강조하고 있다. 2016년 4월 12일, 중·아세안 환경보호협력센터와 세계자연보호기금은 공동으로 “일대일로 건설 추진: 란창-메콩강 지속가능 기초인프라 건설 투융자 심포지엄 및 프로젝트 회의”를 개최하고 란창-메콩강 지속가능 기초인프라 건설 및 녹색 금융 프로젝트를 발족하였다.⁷⁰⁾ 정책대화 전개 측면에서 “란창-메콩강 환경협력 원탁회의” 형식으로,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지역 지속가능 기초인프라 및 녹색투융자”, “란창-메콩강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정책 전망”, “란창-메콩강 담수생태계 건강성 관리”, “란창-메콩강 유역 녹색경제 발전 벨트 공동 건설”, “란창-메콩강 수질 환경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 투자·협력대화”, “란창-메콩강 방직 공업단지 및 녹색 공급망 산업” 등을 의제로 9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68)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홈페이지(2019), “Twenty-seven Global Institutions Sign up to Green Investment Principles for the Belt & Road”(May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0).

69) Nakano(2019), “Greening or Greenwash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May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0).

70) 中国-东盟环境保护合作中心 홈페이지(2017b), 「东盟中心召开“推动一带一路建设: 澜沧江-湄公河可持续基础设施建设投融资研讨会暨项目启动会”」(7月 14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0).

다. 중·아세안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2015년 11월, 중국 총리 리커창은 제18차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환경정보 공유플랫폼’의 구축 계획을 제안하였고, 다음 해 중국과 아세안은 “환경정보와 데이터 관리”의 양자 협력을 위한 9개 우선순위 영역으로 포함한 <중·아세안 환경보호 협력 전략(2016~2020)>을 채택하였다.⁷¹⁾ 중국과 아세안 환경보호 관련 당사자들은 2016년 <중·아세안 환경정보 공유플랫폼> 구축을 시작하였다. 플랫폼의 주요 목표는 중국과 아세안 간 환경정보의 공유와 표준화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과 아세안 간 환경정보의 상호 연결, 상호 교류와 상호 운용을 촉진하고 환경정보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렬, 분석, 처리 및 적용 능력을 향상하고, 환경정보 및 데이터의 개발 격차를 좁혀 환경관리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표준화를 통해 남남 환경협력 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녹색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며 글로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플랫폼은 포털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운영을 위한 공동 작성 및 공유 작업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9월 11일, <중·아세안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이 정식으로 개시되었다. 이로써 중국과 아세안국가는 플랫폼을 통한 환경 빅데이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생태환경보호 분야의 혁신과 상생을 촉진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플랫폼 웹사이트에 생물다양성 정보와 환경 지속가능도시 두 가지 전문 플랫폼도 포함하고 있다. 플랫폼 실무팀은 <중·아세안 환경정보 공유플랫폼 시행 방안>을 제정 및 채택하였다. 현재 이 플랫폼에는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의 환경법규, 환경보호제도,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가 업로드되어 공유되고 있다. 2019년 4월 25일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에서는 <‘일대일로’

71) CAEISP 홈페이지, 「中国—东盟环境保护合作中心, 平台背景」,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0); 중국이 구축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관련 ‘중국-아세안 환경정보 공유플랫폼’, ‘일대일로 생태환경보호 빅데이터 플랫폼’은 아세안과 이미 상당 수준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립생태원 전문가 회의(2020. 9. 2).

생태환경보호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가 정식으로 개시되었다. 현재 해당 플랫폼의 포털 사이트에는 관련 동향 정보, 정책 법규, 국가별 데이터, 시행 사례, 데이터 센터, 정보 공유, 녹색연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아세안과의 활발한 기술협력과 인적교류

기술협력 추진 측면에서, ‘일대일로’ 환경 기술교류 및 기술이전센터를 선전에 설립하고 중국-아세안 환경보호 기술 및 산업협력 교류의 시범기지로서 기업이 제의한 <기업의 환경책임 이행과 녹색 ‘일대일로’ 공동 건설> 아젠다를 추진하였다.⁷²⁾ 중국 정부와 라오스는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 협정서에 서명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과 라오스 과학기술부, 싱가포르 지식재산권국,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권국,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권청 등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49개 국가의 지식 재산권 기구는 공동으로 <‘일대일로’ 국가지식재산권 실무협력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⁷³⁾ 2016년 9월, 중국은 먼저 미얀마와 라오스에 태양전지판 및 친환경 에너지 주방 등 생계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인적교류 강화 측면에서, 중국은 녹색 실�크로드 사절 계획, 환경관리 대외원조 훈련과정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아세안 관련 국가의 대표가 중국에 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72) 「全面深化部省环保合作, 加快推进广东绿色发展 陈吉宁在广东调研并出席共建“一带一路”环境技术交流与转移中心(深圳)框架协议签字仪式」(2016. 4.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20).

73) 「共建“一带一路”倡议: 进展、贡献与展望」(2019. 4. 23).

5. 중·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상기 기술한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중·아세안 협력에 있어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력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중국의 일대일로 등에 기반한 해외사업의 경우 낮은 사회환경가이드라인을 적용하거나 또는 강제성을 띠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고려로 수원국들의 환경오염 및 파괴를 초래하면서 수원국 주민들의 반발과 항의가 지속되고 있다. 개발 사업이 중국의 자본과 중국 노동력 및 중국기업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정부와 일반 국민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아 반발도 크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크며, 중국의 환경 원조 역량도 부족하다.

가. 사회환경 가이드라인의 부재 또는 낮은 기준 적용

중국의 해외사업이 지역사회에서 환경문제에 종종 직면하는 이유는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사회환경 가이드라인을 의무조항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중국의 대부분 은행은 다른 국제적 재정 기구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한 환경사회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도 한다.⁷⁴⁾ 특히 일부의 경우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시 해당 국가의 환경 법률을 준수한다는 규정으로⁷⁵⁾ 금융기관은 강력한 환경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 지방정부와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중국 개발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해당 지역의 환경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⁷⁶⁾

74) Ren, Zhang, Zhu, Zhang(2017), p. 30.

75) 环境保护部(2017), 「一带一路生态环境保护合作规划」(5月16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7).

76) Ewing(2019), "Making the Belt and Roa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Greening 'Greening' the BRI is a two-way street that starts in Beijing"(March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7).

중국 국내적으로는 2013년부터 건설 계획과 동시에 잠재적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⁷⁷⁾ 그리고 중국은 2015년 이후 과거와 달리 강력한 환경보호법을 시행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내용과 집행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⁷⁸⁾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중국이 아닌 해외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최근 들어 중국은 해외의 시선을 의식하여 해외사업에서도 환경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 투자를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환경보호지침을 2013년 상무부와 환경부가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 중국이 발표한 정부 문서에는 제3국 진출에 있어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 국가는 소통, 정보지원, 기술이전, 빅데이터 등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은 일대일로 환경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서 자발적으로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지며, 해당국가 및 국제적 규정, 정책, 표준 등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중국의 부처에서 발행한 ‘녹색기업 행동’ 지침을 준수하고 환경정보 등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⁷⁹⁾

환경관련한 국내 투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는 달리 중국의 해외 투자에 대한 환경이슈를 규제하는 강제성을 갖는 법률적 문서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다.⁸⁰⁾ 이러한 이유로 해외 투자에 있어 환경문제로 처벌을 받았다는 업체는 아직 공개적으로 보고된바 없다.⁸¹⁾ 그리고 해당 지침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완료, 환경 완화 조치, 부정적인 환경사회적 영향을 식별하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권장하고 있을 뿐 요구 사항은 아니다.⁸²⁾ 이러한 이유로 해외 사업 과정에서 중국기업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요도 없다.

77) 中国人大网,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2003. 9. 1).

78) 강택구(2016), pp. 56~65.

79) Belt and Road Portal(2017a); Belt and Road Portal(2017b).

80) Gallagher and Qi(2018), p. 12.

81) Gallagher and Qi(2018), p. 15.

82) Losos, Pfaff, Olander, Mason, Morgan(2019), p. 39.

심지어 중국은 프로젝트에 기초한 환경영향평가만을 진행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과 초국경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위험이슈가 종종 무시되거나 간과된다는 지적도 있다.⁸³⁾ 또한 중국은 프로젝트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민감 지역 회피나 보완적 정책 채택 등과 같은 환경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조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종종 있어왔다.⁸⁴⁾ 이러한 이유로 일대일로 인프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경평가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나. 일대일로 개발에 따른 아세안국가들의 환경 피해

최근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접근은 일대일로의 기초 하에 기본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해당국으로부터 환영을 받지만, 건설 이전과 과정에서 환경 영향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려로 인해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되어 있다.⁸⁵⁾ 중국의 녹색화 강조에도 불구하고 대외 인프라 사업은 환경오염 및 파괴로 인해 종종 현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바탕 토루(Batang Toru) 열대우림의 댐 사업, 캄보디아 삼보(Sambor) 댐, 미얀마의 밋손(Myitsonne) 댐 등은 생태환경적 이유로 현지인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해당 사업이 중단되거나 국제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⁸⁶⁾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건설 예정인 바탕 토루 댐 사업은 해당 지역 생태계 정글과 오랑우탄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격렬한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⁸⁷⁾ 중국 국유업체인

83) Environmental and Energy Study Institute(2018), "Exploring the Environmental Repercussion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0).

84) Losos *et al.*(2019), "Is a Green Belt and Road feasible? How to mitigate the environmental risk of BRI Infrastructure Proje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0).

85) Sun(2014), "China's Aid to Africa: Monster or Messia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3).

86) Narain(2020), "Banks need to take Belt and Road environmental risks seriousl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7); "Burma dam: Why Myitsonne plan is being halted"(2011. 9.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8 27).

Sinohydro사가 터널폭파, 진입로 건설, 광대한 밀림 벌목, 댐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ADB, WB 등과 같은 다자금융기관에서도 생태적으로 유해하다는 판단으로 간주하여 시도하고 있지 않은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경제적 인센티브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 하에 중국 Sinohydro사는 중국 국영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석탄발전소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 우려도 크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관련 65개 국가들 중 25개 국가에서 240건의 석탄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는데, 총 용량은 251,054MW에 달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은 인도(129,540MW), 인도네시아(31,336MW), 몽골(17,525MW), 베트남(16,594MW) 등의 순이다.⁸⁸⁾ 석탄발전소 건설 중심의 해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과⁸⁹⁾ 더불어 2020년 4월 중국 재정부 장관은 세계의 260여 개 환경단체로부터 코로나19(COVID-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60여 개의 해외 프로젝트를 구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접수하는 등⁹⁰⁾ 중국이 야심차게 녹색의 이름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중국의 란창-메콩강 협력 메커니즘에 따른 투자는 주로 임업 자원의 개발과 확보에 집중된 바, 대부분의 연구물은 삼림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집중되었다. AIDDATA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임업자원 확보 프로젝트가 해당 지역의 산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연구결과로 증명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북부의 산림 훼손이 중국의 임업자원 확보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림 훼손은 부가가치가 높은 농작물 재배로

87) Environmental and Energy Study Institute(2018), "Exploring the Environmental Repercussion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0).

88) Ren, Liu and Zhang(2017), pp. 1-8.

89) *ibid.*

90) "China's Belt and Road urged to take green route"(2020. 6.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0).

의 전환과 연관되나 중국적으로 산림 파괴로 귀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⁹¹⁾ 중국의 임업자원 확보 프로젝트는 농장의 집중적인 산림 훼손을 야기하고 목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수원국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불만

원조와 대외개발로 인해 중국은 관련 국가들로부터 다양한 불만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개발 사업이 중국의 자본과 중국 노동력, 중국 기업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에 돌아가는 실질적인 이익은 많지 않다. 수원국 정부와 일반 국민에게 혜택도 기대만큼 크지 않아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언어, 교육수준 및 기술·기능 등의 요인으로 몇몇 아세안국가에 있는 중국 업체들의 고용 인력은 대부분이 중국 국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수혜국의 불만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혜국은 현지인의 취업률을 높이는 동시에 현지 노동자와 기술 인력은 중국 진출 업체에 취업을 통해 보다 나은 복지와 임금의 기회를 누리하고자 하나, 중국 업체들의 중국 국적 노동자에 대한 선호로 현지인의 취업 기회가 박탈되면서 수혜국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추진하는 수원국에서 사업의 경제성 부족은 결국 수원국의 채무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현상에 직면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 정부의 부패와 함께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고속철도와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은 채무 부담 등의 이유로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 등도 채무 부담의 이유로 항만운영권을 이양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선국가들 내부에서는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⁹²⁾

91) Ben *et al.*(2016), pp. 18-20.

92) 김동수(2019), p. 4;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내부의 자정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중국 기업들의 투자국가에 대한 개발이 제한되고 현지에서 중국과 중자기업의 이미지에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一带一路”倡议下中国对老挝投资风险分析」(2020. 2. 25), 온라

라. 국제기구보다 협소한 환경 개념

아세안에 대해 최근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과 사회 관련 분류와 규정과는 협소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⁹³⁾ 세계은행에서는 환경정책에는 환경평가, 자연 서식지, 해충관리, 산림, 댐의 안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 정책은 물리적 문화 자원, 비자발적 정착, 원주민이 포함되고 법 정책에서는 국제수로 및 분쟁지역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새로운 정책프레임에서는 도로안전, 비상대응, 재난 완화를 다루는 광범위한 노동과 근로조건 보호, 공동체 건강, 안전조치 내용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규정한 성능 기준(Performance Standards)에 따르면, 환경적, 사회적 위험과 영향의 평가와 관리는 다음 8가지 측면 노동과 근로조건, 자원 효율화와 오염방지, 공동체 건강, 안전과 보안, 토지 취득과 비자발적 재정주, 생물다양성 보존과 생활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원주민과 문화적 유산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에서는 △ 사람의 건강, 안전, 자연환경 이슈로서 대기, 물, 토양 오염, 물 사용, 생태계, 생물계와 국경과 글로벌 환경 이슈 △ 사회적 이슈로서 인권 보호, 비자발적 정주, 원주민, 문화유산, 경관, 성별, 아동권, 전염병, 지역 사회건강과 안전에 정책적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의 해외 투자 자금을 대고 있는 주요 은행인 중국개발은행(CDB)과 중국수출입은행(China Exim Bank)의 환경 및 사회 정책은 범위가 협소하여 구체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중국수출입은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의 경우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국가 산업 계획 지원), 생물다양성 보존, 지속 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토지 취

인 자료(검색일: 2020. 8. 27).

93) Ren, Zhang, Zhu, Zhang(2017), pp. 29-30, 35-41.

득 및 비자발적 정착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개발은행의 환경 및 사회 정책에서는 주로 오염 방지 및 통제, 건강 및 이주와 같은 문제에 관심이 있다.

마. 중국 환경원조 역량 및 경험 부재

중국의 과거 대외원조는 정치, 외교, 이념과 체제적 배경 하에 이루어졌다. 대외원조의 역사성은 상당하나 순수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정치·이념적 행위 내지는 외교·안보적 상황이 우선 고려된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20세기까지 그 규모도 크지 않았다. 본 장 3절에서 확인하듯이, 중국의 대외원조는 환경부문의 투자도 많지 않고, 차관을 통한 경제개발 중심이며, 환경원조에 대한 경험도 일천하고 역량 역시 낮다고 평가받고 있다.

바. 낮은 재정적 지원과 채무 리스크

중국-아세안 환경협력 과정에서 중요한 환경보호 의제 및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초기 시장이 불분명하고 기술적으로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 공공자금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UN 및 국제금융공사의 추산에 따르면, 글로벌 “녹색 투자” 부족액은 28조 달러에 달하는데 그중 57%를 아태지역이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⁹⁴⁾ ‘일대일로’ 건설 프로젝트는 흔히 계약금액이 비교적 크고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되어 투자 수익주기 또한 비교적 길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쉽지 않은 일부 아세안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경보호 협력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은 제한적이다.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자금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94) 「“一带一路”清洁和可再生能源项目总值已达1049.5亿美元」(2020. 1.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8. 27).

금융자원 지원이 중국 내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대일로’ 녹색금융 지원에는 분명한 지역적 불균형이 존재하며, 중국 국내 은행이 “해외진출(走出去)” 기업에 제공하는 수출금융 지원은 대부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경제적으로 발전된 성·시(省市)에 집중되어 있고, 많은 다른 성(省)에서는 현지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인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하여 좋은 시공 자질과 풍부한 해외 프로젝트 경험을 갖춘 지방의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⁹⁵⁾

채무 리스크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아세안국가의 재생에너지 자원개발 자금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양한 은행의 대출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아세안국가의 외채 비중이 이미 높아 이들 국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외채를 부담하는 데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중국 은행의 대출액은 4천억 달러가 넘어섰다.⁹⁶⁾ 이러한 대출은 중국에 위험이 크다. 아세안국가와의 협상에서 효율적인 투자 보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국기업의 투자 손해를 어떻게 불식할 것인가의 문제에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95) 「“一带一路”可持续发展新风向：绿色投资项目总值已超千亿美元资金需求达12万亿美元」(2020. 1.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8. 27).

96) 「赵洪：“一带一路”建设与中国—亚细安绿色能源合作」(2019. 12.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8. 27).

제3장



한·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1. 한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 한·아세안 환경 ODA 지원 현황
4.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 한·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1. 한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가.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국의 아세안 진출 모색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은 다자협력 추진을 위한 동북아 평화 협력 플랫폼, 아세안·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신남방정책, 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계를 증진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⁹⁷⁾

세 가지 실천 과제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3개국 순방을 통해 제시한 협력구상이다. 즉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 건설’을 비전으로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의 주요 국가는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마련하고 신남방정책 추진 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을 주문하였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2018년 11월 8일 제1차 전체회의 개최를 통해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특별위원회는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가 2017년 대비 7.6% 증가하여 연내 1,600억 달러를 넘고 인적교류의 경우 한국과 신남방 지역 상호방문객이 매년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천만 명을 넘었다.⁹⁸⁾

97) 외교부,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7).

98)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8. 11. 8),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검색일: 2020. 5. 15).

표 3-1.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주요 내용

일시	주요 내용
2018.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신남방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추진전략 확정 - 신남방지역 정상외교 통한 외교안보 지명 확대 - 한·아세안 교역규모 7.6% 증가, 연내 1,600억 달러 상회 예상
2019.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범부처 신남방정책 2019년 중점사업계획 점검 - 한류확산을 위한 거점 확대 및 대규모 산업 융복합 행사 개최 - 신남방정책의 핵심은 민간에 대한 지원, 경제협력 등 실질적 성과 창출 본격 추진
2019.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아세안 국민들의 한국 방문 확대 - 한국어교육 강화를 통한 한류 확산 및 상호 교류 증진 - 금융 및 산업 협력 강화를 통한 시장 다변화 모색
2019.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정상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16개 과제 57개 중점사업을 19개 과제 및 92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 - 신남방정책 가속화를 위해 각 부처가 소관 과제를 책임지고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2020년 가시적 성과 본격 창출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및 신남방국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신남방정책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신규 중점사업 지속 발굴 추진
2020.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움에도 우리의 신남방정책 지속 추진 의지 재확인 - 코로나19 등을 반영하여 신남방정책 사업 수정·보완 등 성과 창출 노력 지속 - 우리 방역 경험을 공유(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등)하는 등 신남방국가와의 동반적 관계 지속 심화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참고하여 저자 작성.⁹⁹⁾

신남방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등의 추진체를 마련하였다. 이들 추진체는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99)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8. 11. 8),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검색일: 2020. 5. 15);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9. 4. 30),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검색일: 2020. 5. 15);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9. 7. 16),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검색일: 2020. 5. 15);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0. 12. 20),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검색일: 2020. 5. 15);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0. 4. 10), 「제5차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검색일: 2020. 11. 1).

먼저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는 신남방 지역 전문상담 및 시장진출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5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사에 설치한 한국 기업 소통 전담 창구로 한국 기업의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진출을 돕고 있다. 그리고 신남방 지역 진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를 수렴하며, 신남방 지역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를 통해 시장정보 제공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¹⁰⁰⁾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는 한국 기업의 신남방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로서 현지진출 기업을 지원하고 애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신남방국가 진출과 관련된 주요 협회, 단체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¹⁰¹⁾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양회, 은행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업종별 핵심 협회·단체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회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운영된다.¹⁰²⁾

나. 신남방정책의 주요 전략

신남방정책 주요 기조는 과거와 달리 중요해진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까지 관계를 격상하여 한반도 평화와 교역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경제적 영역도 확장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¹⁰³⁾ 이처럼, 한국 정부가 아세안을 주목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여전히 경제적 관점이 지배적이다.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성장 동력의 부재뿐 아니라 신남방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성장 잠재력에 기인한다. 아세안은 연평균 약 1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IMF에 의하면

100)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14).

101)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출범...21개 민간단체 참여(2019. 1.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5. 14).

102)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14).

103) 「신남방정책, 한반도 평화시대 대비」(2018. 8.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5. 14);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신남방정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8).

인도 인구 13.7억 명, 아세안 인구 6.4억 명 등으로 신남방 지역의 인구는 20억 명에 달한다. 이들 국가의 평균 연령은 30세로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젊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 GDP 규모도 아세안 2조 9,228억 달러, 인도 2조 7,168억 달러로 아세안, 인도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¹⁰⁴⁾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저임금 생산기지'에서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말부터 아세안과의 공식관계 설정 및 관계 증진을 위해 외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성공적이지 못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첫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 관계 수립을 맺은 후 지금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주요 핵심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다. 1991년 전면적 대화상대국(Full Dialogue Partner) 관계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관계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21세기 들어서는 한국의 주된 투자 및 관심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어 2004년, 포괄적 협력동반자관계(Comprehensive Cooperation Partnership)를 선언하였다. 2009년 FTA가 완결되고 2010년 이후 한·아세안은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되었다. 이후 매년 아세안 정상회의에 맞춰 한·아세안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2009년과 2014년, 한·아세안관계 20주년 및 25주년을 기념하여 제주도 및 부산에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각각 개최하였다. 2012년에는 아세안 사무국이 소재한 자카르타에 주아세안 대표부를 설치하였다. 2018년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방문객은 1,144만 명으로 한·아세안은 경제와 문화, 역사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북방정책과 연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¹⁰⁵⁾ 신남방정책은 한·아세안미래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사람,

104) 「신남방정책, 한반도 평화시대 대비」(2018. 8.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5. 14);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신남방정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8).

10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新)남방정책」,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5. 8).

평화, 번영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이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고 부른다. 신남방정책의 16가지 주요 정책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¹⁰⁶⁾

표 3-2. 신남방정책 주요 정책

사람 공동체	상생번영 공동체	평화 공동체
신남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확대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신남방국가들과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신남방지역과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신남방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신남방 지역 학생, 교원, 공무원 대상 인적자원 역량강화	중소·중견 기업의 시장진출과 상호 교류활동 지원	포괄적인 국방·방산 협력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상호 간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 증진	신남방 각 국가별 맞춤형 협력	긴급사태 예방 역량과 신속 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
신남방국가의 삶의 질 개선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 주요정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13).

2.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가. 정상회의

한·아세안환경협력의 주요 기제를 2010년 이후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¹⁰⁷⁾ 2010년 10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3차 한·아세안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한·아세안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또한

106)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 주요정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13).

107) 2010년 이전 한·아세안환경협력 현황은 강택구 외(2013a) 제2장 참조.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아세안은 정보통신기술(ICT), 농촌기술, 에너지, 금융, 중소기업, 재난관리, 환경·기후 변화, 감염증, 식량안보, 문화예술 등의 우선 분야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하였다. 더불어 아세안은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를 받아들이고,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저탄소 녹색성장 이니셔티브 하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탐사, 개발과 더불어 산림협력강화, 기후변화 대처 능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AFoCO 설립협약 초안을 포함하여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sation, 이하 AfoCO) 설립 관련 후속 조치 마련 등에도 합의하였다.¹⁰⁸⁾

2011년 11월 1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아세안정상회의에서 한국은 마스터 플랜 실지 지원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아세안은 한국의 홍수 예방 및 수자원 관리 방법과 수자원 관리에 대한 한국의 협력 강화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아세안+3 비상 쌀비축 사업(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Agreement)에 규정된 식량 저장, 가공, 보존 및 유통을 포함한 수확 후 관리 기술 등에서 한국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재난관리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재난관리지원센터(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 이하 AHA Centre)에 대한 지원도 요청하였다. 아세안은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를 받아들이고,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포함한 모든 메커니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지하는데 있어 아세안 회원국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했다. 양측은 임업 및 해양 자원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탐색,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지역 내 산림협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한·아세안

108) ASEAN 홈페이지, “Chairman’s Statement of the 13th ASEAN-Republic of Korea (ROK) Summi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6).

산림협력협정」을 체결했다. 한·아세안은 향후 아시아 산림 협력기구(AfoCO) 설립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기로 하였다.¹⁰⁹⁾

2012년 11월 1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제15차 한·아세안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교육, 재난관리, 중소기업, 이주노동자, 수자원 관리, 초국적 범죄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식품저장, 가공, 보존을 포함하는 수확 후 관리 기술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아세안은 기후변화 및 환경과 같은 전 세계의 주요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재확인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정책’과 환경 친화적 기술사용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양측은 산림협력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에 재난관리지원센터(AHA Centre) 지원을 요청했고, 2013년 태국과 ARF 재난구호운동(ARF Disaster Relief Exercise, DiReX)을 공동 주최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더불어 해적, 선박사고, 원유 유출, 테러 및 자연재해와 같은 안보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메커니즘을 통한 해양안보협력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¹¹⁰⁾

2013년 10월 9일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제15차 한·아세안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저탄소녹색성장, 친환경기술, 수자원 관리, 산림협력을 포함한 기후변화, 환경과 같은 전 세계적 주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2013년 3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 아세안지역포럼 재난구호훈련(ARF DiREX 2013)의 성과와 태국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태평양 물정상회의의 성공은 수자원분야에서 아세안 및 한국의 역량을 강화시켰다. 아세안은 브루나이 다르살람에서 2013년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인도지원·재해구호·해양경찰연합훈련(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Plus Humanitarian Assistance

109) ASEAN 홈페이지, “Chairman’s Statement of the 14th ASEAN-Republic of Korea Summi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6).

110) ASEAN 홈페이지, “Chairman’s Statement of the 15th ASEAN-Republic of Korea Summit : Phnom Penh, Cambod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6).

and Disaster Relief and Military Medicine Exercise, ADMM-Plus HADR and MM Ex)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¹¹¹⁾

2014년 12월 12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여 ‘신뢰구축, 행복을 가져오다’라는 주제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를 통해 양측은 2011년 한·아세안 산림 협력협정을 체결·확장시켰다. 또한 아세안+3(ASEAN Plus Three),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Plus), ARF DiREx와 같은 아세안지역포럼을 통해 국제테러, 기후변화 및 환경 등 전 세계적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먼저 정치안보 분야에서 국제해양법 협약(UNCLO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및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sation)의 표준 및 관행에 따라 해상 안보, 비행의 자유, 무력사용,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을 촉진하고자 했다. 그리고 환경, 어업, 해양 수색 및 구조 등 해양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융, 관세, 운송, 농업, 노동, 관광, 에너지, 식량 안보, 중소기업(SME), 임업, 광업, 어업, 물류, 지적재산, 국민 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세안 개발격차 해소, 공동체 건설 지원을 위해 한국의 새마을 운동 등 지역개발경험을 공유하고, 인적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세계녹색성장기구 및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과의 연계방법, 기후변화에 관한 아이디어 공유 및 능력개발 촉진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환경 도시, 친환경적 기술, 청정생산, 생물다양성 보전, 국민의식과 교육(연안·해양

111) ASEAN 홈페이지, “Chairman’s Statement of the 16th ASEAN-Republic of Korea (ROK) Summit : Bandar Seri Begawan, Brunei Darussal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6).

의 지속가능한 이용, 국경을 초월한 환경오염) 등과 같은 통합된 수자원 관리를 포함한 환경관리 분야의 한·아세안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2015년 대한민국 대구, 경북에서 열릴 세계 물 포럼 참가를 장려하였다. 양측은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아세안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재난의 영향과 손실을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AHA Centre와의 협력, 재난관리에 대한 아세안협약(AADMER: 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 이행 등을 지원하여 재난에 대한 공동비상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기후변화, 환경악화,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전염병 등 세계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¹¹²⁾

2015년 11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17차 한·아세안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의 AHA 센터 전면운영 지원, 재난관리에 대한 아세안협약(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 이하 AADMER) 프로그램 두 번째 단계의 지속적인 이행에 감사를 표했다. 아세안국가들은 기후변화가 지역민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완화,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확인했다.¹¹³⁾

2016년 9월 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제18차 한·아세안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아세안 정상들은 산림협정에 의거한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산림재생 및 산림능력 구축에 관한 프로그램에 만족을 표했고,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진전을 확인했다.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네시아 자

112) ASEAN 홈페이지, "Joint Statement of the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on the 25th Anniversary of the ASEAN-ROK Dialogue Relations: Our Future Vision of ASEAN-ROK Strategic Partnership 'Building Trust, Bringing Happiness'," 온라인 자료(2020. 5. 26).

113) ASEAN 홈페이지, "Chairman's Statement of The 17th ASEAN-Republic of Korea Summi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6).

카르타에 있는 아세안 재난관리지원센터(AHA Centre), 재난관리에 대한 아세안협약(AADMER) 및 작업계획 실시를 위한 지원을 희망했다. 그리고 아세안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해 한국이 지역적, 양자 간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지원에 감사를 표명했다.¹¹⁴⁾

2017년 11월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9차 한·아세안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한반도 정세, 극단주의, 테러리즘 비확산,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등과 같은 공동과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정치안보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의 경제통합과 빈곤감소를 목표로 하여 한국의 경험을 배우길 희망했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빈곤감소, 청정에너지, 녹색성장, ICT를 포함한 한국의 기술과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원했다. 또한 아세안 정상들은 2016년 12월 자카르타에 한·아세안 프로그램 관리팀(ASEAN-ROK Programme Management Team, 이하 AKPMT)을 설립하고, 모든 주요 분야에서 한·아세안개발협력 확대수단이 되는 <한·아세안 협력기금 2017~2020>을 위한 새로운 틀을 구축하길 희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AKPMT의 지원을 받아 2017년 베트남, 미얀마에서 각각 한·아세안협력 메커니즘에 관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시작되며 교육, 환경, 문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측은 모두에게 필요한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아세안의 재난관리전문가를 위한 재해 관련 연구증거, 출판물을 보관하는 <아세안 과학기반 재해관리 플랫폼(ASEAN Science-Based Disaster Management Platform, 이하 ASDMP)> 개발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아세안 정상들은 연구로드맵이 완성될 때 까지 한국이 계속 지원해주길 원했다. 아세안은 산림협력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활동이 산림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114) ASEAN 홈페이지, "Chairman's Statement of The 18th ASEAN-Republic of Korea Summi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6).

했다. 특히 산림벌채 및 산림황폐화 방지, 산림자원 평가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강화 등이 산림협력 강화를 도울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양측은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의 초기설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¹¹⁵⁾

2018년 11월 14일 싱가포르에서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지속가능한 개발, 빈곤감소, 청정에너지, 녹색성장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2016~2020년 한·아세안 행동계획을 더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초국가적 범죄, 테러 및 극단주의, 해상안보, 해양보존, 식량·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지역 평화 및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Carbon Capture Utilisation and Storage) 기술 및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과학기술 협력을 이행하기로 했다. 아세안은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활동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지역 산림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의 설립을 환영했다. 그리고 아세안지역의 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주력 프로젝트를 통해 육상 및 산림 황폐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강화되었다.¹¹⁶⁾ 한국은 현재 9단계에 들어간 한·아세안 환경협력 프로젝트(AKECOP: ASEAN-ROK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 하에서 다양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 진행 중인 ‘물 관련 재해로부터의 지속가능한 아세안의 회복력 구축’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환경에 관한 한·아세안협력은 진전되었다. 또한 한국은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ASEAN-ROK Cooperation Fund)의 규모를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아세안은 AKCF 프로젝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한·아세안 프로그램 관리팀

115) ASEAN 홈페이지, “Chairman’s Statement of The 19th ASEAN-Republic of Korea Summit ‘Partnering for Change, Engaging the Worl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7).

116) ASEAN 홈페이지, “Overview of ASEAN-Republic of Korea Dialogue Rela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1).

(AKPMT: ASEAN-ROK Programme Management Team)의 작업을 지지하였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아세안 협력기금 2017~2020(AKCF: ASEAN-ROK Cooperation Fund)의 새로운 프레임 하에서 교육, 환경, 문화 등 우선 협력 분야의 심화된 프로젝트를 장려하였다.¹¹⁷⁾

2019년 11월 2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한·아세안의 평화, 번영,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비전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지속가능한 환경적 협력을 위해 ‘아세안 2025(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유엔 2030 아젠다(UN 2030 Agenda)’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녹색개발,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촉진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하의 파리조약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강화,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 감소 및 재난관리 강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다. 아세안 스마트시티(ASCN: ASEAN Smart Cities Network)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스마트시티의 협력을 추구하였다. 또한 녹색사회기반시설, 교통, 에너지, 수자원관리, ICT인프라 정비, 식량안보 등의 기반 마련에 대한 지속가능한 협력을 강화시켰다. 이는 관련된 프로젝트를 실시, 장기적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경험·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했다.¹¹⁸⁾

2019년 11월 2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는 한·아세안 공동 의장성명이 발표되었다. 먼저 정치안보 협력분야에서 양측은 초국가적 범죄, 사이버 안보, 테러

117) ASEAN 홈페이지, “Chairman’s Statement of the 20th ASEAN-Republic of Korea Summi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7).

118) ASEAN 홈페이지, “ASEAN-Republic of Korea Joint Vision Statement for Peace, Prosperity and Partnersh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7).

및 극단주의, 해상안보, 자연재해, 식량 및 에너지 안보, 핵안전, 기후변화 등 지역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전통적, 비전통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경제적 협력분야에서 아세안은 2019년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가 무역촉진, 전자상거래, 환경 및 신기술 분야에서 6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승인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프로젝트는 아세안 회원국 및 한국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 미래의 환경 에너지, 스마트 라이프와 같은 혁신산업계 분야에서 한·아세안 간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 사회·문화 협력분야에서 양측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고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저감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을 지원하여 환경,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개발 및 인간 건강에 대한 협력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세안지역의 해양쓰레기 퇴치에 관한 방콕 선언과 해양 쓰레기에 대한 아세안 행동지침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퇴치에 관한 지역행동계획 및 지침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고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의 예방, 감소, 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 개발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 정상들은 탄소포집 이용과 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sation and Storage) 기술, 탄소 가격에 대한 협력,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아세안 회원국의 기후변화대응 역량 구축과 기술지원을 목표로 하는 협력 활동을 희망했다.

한국은 재난관리 분야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재난관리전문직 표준화 등 재난관리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측은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위해 재난관리지원센터(AHA Centre: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와 한국 소방청 간 협력한다는 각서를 체결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임업분야에서 아세안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전문지식 공유를 목표로 하는 한·아세안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요청했다.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설립을 환영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한·아세안의 우정과 오랜 관계의 상징으로 한·아세안 가든 설립을 제안하였다. 아세안은 한·아세안 협력기금 2017~2020(AKCF: ASEAN-

ROK Cooperation Fund 2017~2020)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 하에서 교육, 환경, 문화 등 주요 협력분야의 심화된 프로젝트 제안을 장려했다.¹¹⁹⁾

한국과 아세안은 2019년 10월 3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임업 2019 상임회의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산림협력을 선언하였다. 한국은 국경지역의 산림공동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구상을 발표하였고, 아세안은 이 활동이 평화적인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¹²⁰⁾ 같은 해 아세안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별 중점 협력분야도 발굴하였다.¹²¹⁾ 이상 2010년부터 진행된 한·아세안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관련 논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합의 분야와 방식

구분	시기/장소	주요 협력 합의/요청 분야	주요 협력방식
제13차 한·아세안정상 회의 의장성명	2010.10.29 [베트남, 하노이]	10.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설립 요구	9. 저탄소 녹색성장 이니셔티브 하에서 프로젝트 탐사, 개발
제14차 한·아세안정상 회의 의장성명	2011.11.18 [인도네시아, 발리]	10. 수자원관리 방법 공유 요구 12. 재난관리지원센터 지원 요구	13. 임업 및 해양자원 분야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 개발, 탐색 14. 산림협력협정 체결
제15차 한·아세안정상 회의 의장성명	2012.11.19 [캄보디아, 프놈펜]	11. 수확 후 관리기술 협력 강화 13. 재난관리지원센터 지원 요구 16. 해양안보협력 강화	13. 친환경적 기술사용에 대한 경험 공유
제16차 한·아세안정상 회의 의장성명	2013.10.9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 가윈]	9. 전 세계적 문제 대응에 대한 협력 강화	9. 인도지원·재해구호·해양경찰 연합훈련

119) ASEAN-Korea Cooperation Fund(2017), "New Framework for the ASEAN-ROK Cooperation Fund(AKCF) 2017-2020"(Feb. 2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6).

120) ASEAN 홈페이지, "Co-Chair's Statement of the 2019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for Peopl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7).

121) 조대현(2019).

표 3-3. 계속

구분	시기/장소	주요 협력 합의/요청 분야	주요 협력방식
한·아세안대화 관계 25주년 기념정상회의 공동성명	2014.12.12 [대한민국, 부산]	2.7. 해양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 한 협력 3.4.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4.14. AFoCO설립 추진	3.12. 지역개발 경험 공유 및 인 적개발 지원 4.15. AHA센터와 협력, 재난관 리에 대한 아세안 협약 이행 지원
제17차 한·아세안정상 회의 의장성명	2015.11.2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1. AFoCO 설립	10. AADMER작업 프로그램 실시
제18차 한·아세안정상 회의 의장성명	(2016.9.7 [라오스, 비엔티안])	7. AFoCO 설립 진전 11. 아세안 재난관리지원센터, 재난 관리에 대한 아세안 협약 지원	12.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녹색 기후기금을 통한 지원
제19차 한·아세안정상 회의 의장성명	2017.11.13 [필리핀, 마닐라]	16. 아세안의 경제통합, 빈곤감소 를 위한 한국의 경험 공유 16. 한국의 기술 공유,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19. 한·아세안협력기금 2017~2020 을 위한 새로운 틀 구축	5.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 방법 공유 19. 한·아세안협력 메커니즘에 관한 워크숍 개최 20. 아세안 과학기반 플랫폼 개 발 지원 21.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초기설 립을 위한 협력
제20차 한·아세안정상 회의 의장성명	2018.11.14 [싱가포르]	12.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13. 우선협력 분야의 심화된 프로 젝트 장려	12. 한·아세안환경협력 프로젝트 진행, 지원 13. 한·아세안협력기금 증가 계획
한·아세안의 평화, 번영,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비전 성명	2019.11.26 [대한민국, 부산]	5.1. 아세안2025와 유엔2030아젠 다의 상호보완성 강화 5.3.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스마트 시티의 협력 추구	5.4. 관련 경험, 기술 공유
공동의장성명	2019.11.26 [대한민국, 부산]	16. 혁신산업계에서 한·아세안파트 너십 강화 3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세안 회원국의 기후변화대응능력 구 축 및 기술 지원 35. 임업부분에서의 한·아세안역량 강화 프로젝트 35.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33. 재난관리 분야 직원 교육실시, 재난관리전문직 표준화 지원 33. 재난관리지원센터와 한국 소 방청간의 협력 35. 한·아세안가든 설립

자료: 저자 작성.

그 밖에 정상과 장관급 회담 준비를 위한 차관보급 또는 국장급으로 고위급 회의에 해당하는 ‘한·아세안 대화(Dialogue)’가 있다. 본 대화 개최목적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한·아세안 간의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함이다.¹²²⁾ 가장 최근에는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2019년 7월 제23차 한·아세안 대화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같은 해 8월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11월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2011년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메콩국가로는 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5개국이다. 이 회의에서 우선협력분야, 협의체 운영방식 등을 담은 ‘한·메콩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선언(소위 한강선언)’을 채택했다.¹²³⁾ ‘한강선언’의 목표는 한국과 메콩지역 국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및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에 양측은 2010년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구축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하고, 메콩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며, 아세안 내의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아세안 통합을 가속화하고, 아세안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고 동아시아의 지역협력뿐만 아니라 공동체 형성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양측은 메콩지역의 수요, 한국의 강점과 원조 역량을 고려하여 ‘아세안 연계성,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 중심 개발’의 우선협력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세안 연계성은 인프라,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하고 지속가능한

122) 외교부(2019), p. 49.

123) 외교부(2019), p. 50.

개발은 녹색성장, 수자원 개발을 의미한다. 인간 중심 개발을 농업 및 농촌 개발, 인적자원 개발을 포함한다.¹²⁴⁾

2012년 7월 10일 프놈펜에서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한 ‘한강선언’을 바탕으로 한국과 메콩지역 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6개 우선협력분야에 대한 시범사업 등 신규 사업을 논의했다.¹²⁵⁾ 또한 2013년 ‘제1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2014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¹²⁶⁾

2013년 6월 30일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개최된 제3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녹색성장, 수자원 개발, 농업 및 농촌 개발, 인적자원 개발 등 6개 우선협력분야의 시범사업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메콩지역 내 교통연구소 설립 지원 사업’, ‘아세안 통합을 위한 통상정책 및 농업 가치사슬사업’, ‘GMS물류 분야 역량강화 사업’ 등 인적자원개발 사업추진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한-메콩 간 6개의 우선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을 더 확대하기로 하였다. 각국 외교장관들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주도로 한국과 메콩지역의 정부, 민간, NGO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산림생태계복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을 메콩지역과 공유하기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개발모델인 ‘새마을운동사업’을 메콩지역에서 실시할 것을 합의하였다.¹²⁷⁾ 더불어 한-메콩 협력 기금 신설을 환영하고, 한-메콩 협력기금 ToR을 채택했다.¹²⁸⁾

2014년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그동안 메콩 내 교통연구소 설립사업 연구 개시, 통상·물류·농업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사업, 산림 복원 및 녹화

124)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1. 12. 22),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2011)」(검색일: 2020. 12. 27).

125) 외교부(2019), p. 50.

126) 외교통상부 온라인 보도자료(2012. 7. 10),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결과」(검색일: 2020. 6. 9).

127)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3. 12. 19), 「3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검색일: 2020. 12. 27).

128) 외교부(2019), p. 50.

사업 실시 등 한-메콩 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향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한국과 메콩연구소간 한-메콩 협력기금에 대한 MOU가 체결되어 동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 것을 평가하고, 한-메콩 협력기금이 메콩 소지역 협력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¹²⁹⁾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는 한-메콩 행동계획(2014~2017)이 처음으로 채택되었다.¹³⁰⁾

2015년 8월 5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제5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4년간 이루어진 한·메콩 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한·메콩 협력 5주년을 맞아 한·메콩 협력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은 그동안 통상·물류 분야 사업 진전, 산림 복원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 등 한·메콩 협력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메콩강 내륙수로 운송 연구사업 등 한·메콩 협력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양측은 한·메콩 협력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메콩연구소(Mekong Institute)를 동 협력기금의 총괄 조정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¹³¹⁾ 또한 「한·메콩 협력기금 개정 운영방식에 대한 컨셉페이퍼」에 합의하고, 이를 「한·메콩 협력기금 ToR의 부속서」로 채택했다.¹³²⁾

2016년 7월 24일 비엔티안에서 제6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6대 우선협력분야 중 하나인 녹색성장 분야에서, 「아시아 산림협력 기구(AFoCO)」의 설립을 위하여 메콩 국가들의 국내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비전통 안보 이슈 중 메콩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인 재난 관리와 수자원 관리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¹³³⁾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는

129)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4. 7. 29),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검색일: 2020. 6. 9).

130) 외교부(2019), p. 50.

131)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5. 8. 6), 「제5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검색일: 2020. 6. 9).

132) 외교부(2019), p. 50.

133)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6. 7. 25), 「제6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검색일: 2020. 6. 9).

7개의 신규 한-메콩 협력 사업을 최종 승인하였다.¹³⁴⁾

2017년 9월 1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제7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2차 한·메콩 행동계획(ROK-Mekong Plan of Action) 2017~2020'을 채택하였다.¹³⁵⁾ 제2차 한·메콩 행동계획은 한·메콩 협력의 3대 비전(아세안 연계성 증진,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 중심의 개발)과 6대 우선협력 분야(인프라, 정보통신기술, 녹색성장, 수자원 개발, 농업 및 농촌 개발, 인적자원 개발)별 협력 목표와 사업을 구체화하였다.¹³⁶⁾

2018년 8월 3일 싱가포르에서 제8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신남방정책에 대한 메콩 국가의 지지 확보, 한·메콩 협력 격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¹³⁷⁾

2019년 8월 3일 방콕에서 제9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정상급으로 격상되어 개최되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 사항을 논의하였다.¹³⁸⁾ 2019년 하반기에는 그간 2011년 이후 외교장관급에서 개최되어 오던 한·메콩 협의체를 처음으로 정상급으로 격상하여 11월 27일 부산에서 '한·메콩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의 주제로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¹³⁹⁾ 한국과 태국의 공동주재로 개최된 이 회의에서는 한·메콩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회의는 2011년 이래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되어온 한·메콩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되어 최초로 개최된 것으로 아세안 정상들 중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한국은 연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역내 성장을 견인하는 메콩 지역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협력의 핵심 파트너라는

134) 외교부(2019), p. 50.

135) 외교부(2019), p. 50.

136)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7. 9. 1),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부상 중인 메콩 국가들과 함께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 나가다: 제7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검색일: 2020. 6. 9).

137) 외교부(2019), p. 50.

138) 외교부(2019), p. 50.

139)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2019. 6. 14), 「2019 한·메콩 고위관리회의(SOM) 개최」(검색일: 2020. 6. 9).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한국과 메콩 국가들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 하자고 언급하였다. 이어 한국은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지속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 등 ‘한-메콩 비전’에서의 3대 발전 방향별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소개하면서 메콩 국가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양측의 미래 협력방안을 담은 ‘한·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이는 양측이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7개 우선협력분야와 신남방정책의 분야별 협력방안, 정상회의 주요 성과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¹⁴⁰⁾ 신남방정책의 주요 축인 사람, 번영, 평화의 기본 축에 기초하여 7대 우선협력분야 즉 ① 문화·관광, ② 인적자원개발, ③ 농업·농촌개발, ④ 인프라, ⑤ 정보통신기술(ICT), ⑥ 환경, ⑦ 비전통안보협력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은 기존 메커니즘 중 메콩강 5개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있는 메콩강-관창 협력(MLC)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¹⁴¹⁾

다.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아세안국가와의 환경장관회의는 베트남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 베트남과의 환경장관회의 내용을 2011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4월 19일 서울에서 제8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산업 육성분야, 기상협력 등에 관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2009년 3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7차 회의에서 합의된 ‘녹색성장 분야 공동 협력’, ‘베트남 수질개선사업 분야 협력’ 등 4개 사업에 대한 2년간의 성과 평가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

140) 외교부 홈페이지(2019. 11. 27),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공동언론발표」(검색일: 2020. 6. 9).
 141) 「[전문]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2011. 11. 27),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6946>(검색일: 2020. 6. 9).

의하였다.¹⁴²⁾

2012년 5월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9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양국은 베트남 측의 관심분야인 토양, 지하수 정화사업에 대한 협력증진을 위해 ‘베트남 토양, 지하수 정화 및 법률체계개선’ 이행협약서(IA)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은 베트남 토양정화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토양오염정화 시범사업 마스터플랜’ 수립과 세미나 공동개최 등 토양정화사업 협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8차 회담에서 합의된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협력’, ‘환경산업·기술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협력’, ‘환경인력양성 협력확대’ 등 3개 사업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성과평과와 향후협력 지속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¹⁴³⁾

2013년 6월 20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10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에서 환경산업·기술과 환경시설 구축 협력, 환경 인력양성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베트남 측의 관심분야인 베트남 환경법 개정지원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200만 달러 재원으로 2013년부터 2년 간 추진될 예정인 ‘베트남 녹색성장전략 마스터플랜수립 지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되기를 요청하였다. 한국은 베트남 자연자원 환경부에서 세계은행 차관을 활용해 2,200만 달러 예산으로 추진 중인 ‘누에-다이강, 동나이강 수질자동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에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의 우수 환경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밖에도 2012년에 개최된 9차 회의에서 합의된 ‘베트남 토양, 지하수 정화협력’ 등 4개 사업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성과평가와 향후 협력 지속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9차 회담 이후 한-베트남은 ‘베트남 환경법 개정지원’을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지식공유사업(KSP)으로 추진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 ‘베트남 토양, 지하수 정화협력’ 후속 조치로 베

142) 「제8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의 서울서 개최」(2011. 4. 18), <http://cm.asiae.co.kr/article/2011041811380840737>(검색일: 2020. 6. 9).

143) 환경부 온라인 보도자료(2012. 5. 7), 「제9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담 개최 및 베트남 총리예방」(검색일: 2020. 6. 3).

트남 토양오염복원 최적화 기술개발을 2012년과 2013년 양국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베트남 누에-다이강 하천수질개선사업' 타당성 조사사업도 2012년에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환경 인재양성 국제워크숍, 국제환경정책연수, 서울이니셔티브 리더십 등 4개 과정과 환경관리과정 초청연수를 개최했다.¹⁴⁴⁾

2014년 10월 27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제11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양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국립공원과 보호지역관리 분야에서도 협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국립공원공단이 외국 공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직원연수 프로그램'에 베트남 공원청 직원이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협력분야를 점차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기술·산업분야에서도 한국이 지원하는 '국제 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 사업'과 '환경프로젝트 사전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의 결과가 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서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 사업은 베트남 현지에 적합한 수질 자동측정 시스템 개발 등을 포함한 4건, 환경프로젝트 사전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은 베트남 동나이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설 타당성 조사사업이 각각 진행 중이다. 양국은 베트남 다이옥신 오염토양 정화 공동 연구, 베트남 환경공무원 연수·역량 강화, 기상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¹⁴⁵⁾

2015년 10월 22일 제주에서 제12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생물자원 활용 공동연구, 환경인력 양성지원, 녹색기후기금(GCF) 사업개발 협력, 한국 산업계의 효과적인 베트남 투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국은 베트남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 관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회담 직후 국립생물자원관과 베트남 자연자원 환경부 환경총국 간에 생물자원 공동연구 양해각서

144) 「제10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담, 20일 서울 개최」(2013. 6. 3),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96>(검색일: 2020. 6. 9).

145) 「한-베트남, 생물다양성 등 환경협력 확대」(2014. 10. 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210747>(검색일: 2020. 6. 3).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환경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장단기 교육·훈련 지원, 온라인 정보공유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향후 협력 방안으로 온라인상의 교육·훈련과 함께 기후변화, 수자원, 환경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외에도 양국 장관은 기후조사(모니터링)분야에서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개발, 베트남 현지에 적합한 수질 자동측정 시스템 개발 등에 관해 협력할 예정이다.¹⁴⁶⁾

2017년 3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3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하노이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시설 설치 협력, 베트남 산업단지 폐수처리 개선방안, 생물다양성 공동연구 등을 논의하였다. ‘하노이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협력은 하노이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약 12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한국은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 산업단지의 폐수처리 개선’ 협력방안은 양측이 베트남의 폐수처리 규제와 법령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한국 정부가 베트남 중부 지역 폐수처리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¹⁴⁷⁾

2018년 12월 20일 서울에서 제14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하띤성 하수처리 기본 설계 수립 사업 등 지난 1년 동안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2019년도 협력과제를 논의하였다. 협력과제의 경우, 수질관리 분야에서 메콩델타 티엔장성 지역에 수질 점검 체계 설치에 관한 타당성 조사, 산업폐수 점검 전략·정책 개발 역량강화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산업화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티엔장성 지역에 수질 측정망 체계 설치 및 보급을 위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해당 지역 수질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산업폐수 관리정책 역량도 강화하여 수

146) 환경부 온라인 보도자료(2015. 10. 20), 「한-베트남 환경장관 회담...양국 환경협력 증진 논의」(검색일: 2020. 6. 4).

147) 「베트남 환경산업 시장 개방 활짝」(2017. 3. 27), <http://ec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594009903357>(검색일: 2020. 6. 4).

질환경을 개선하고 한국형 관리모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 분야에서는 베트남 탄소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국가적응계획 수립 및 기후변화 관련 법제 개발을 지원한다. 기후변화 관련 국내 전문 기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후변화적응센터, 한국환경공단)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적응대책, 배출량 평가 등과 관련하여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친환경 사회구조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⁴⁸⁾

베트남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국은 2009년부터 베트남 생물자원(식물, 곤충, 버섯류) 공동조사 및 현지 원주민을 활용한 유용 생물자원 발굴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 원주민이 활용하는 유용생물자원 연구를 통해 환경성 질환 알레르기에 효능이 우수한 식물을 발굴한다. 또한 한국은 베트남 환경공무원의 정책수립능력 배양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국립환경 인력개발원의 환경석사교육,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인력양성 교육,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외국공원청 직원연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전문가 교육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¹⁴⁹⁾

라.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

2010년 10월 14~15일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제9차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과 ‘열대림 훼손 방지 및 복원 연구사업’ 등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였다. 또한 2009년 6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아세안 그린 파트

148) 환경부 온라인 보도자료(2018. 12. 19), 「한-베트남 환경장관, 2019년도 환경 협력 과제 확정」(검색일: 2020. 6. 4).

149) 환경부 온라인 보도자료(2018. 12. 19), 「한-베트남 환경장관, 2019년도 환경 협력 과제 확정」(검색일: 2020. 6. 4).

너십' 및 '한·아세안 기후변화 적응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향후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¹⁵⁰⁾

2011년 캄보디아에서 제10차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사업' 등 진행사업 4건을 소개했다. 또한 한·아세안 열대림 복원사업(4단계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했다.¹⁵¹⁾

2012년 태국에서 제11차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동남아의 훼손된 열대림 복원사업 등 4건을 소개했다. 또한 인니 환경장관 면담 및 제1차 한·인니 환경장관회의 의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¹⁵²⁾

2013년 인도네시아에서 제12차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한, 중, 일 3국간의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아시아의 대기오염 대책'에 대한 지역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UNEP와 같은 기존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지역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¹⁵³⁾

2014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제13차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일본은 JCM (Joint Crediting Mechanism)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도약' 개발을 달성하고,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일본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15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제14차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일본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일본은 자국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아젠다 실행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2017년 9월 13일 브루나이 다루살람 바다르스리브가완에서 제15차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가

150) 환경부(2010), 「ASEAN/EAS 환경장관회의 개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4).

15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2014), 「ASEAN/EAS 환경장관회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4).

152) *Ibid.*

153) 이하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여 작성.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ASEAN+3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5).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일본은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과 같은 환경분야에서 아세안과 일본의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로서 새로운 '아세안 환경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또한 일본은 환경 인프라 촉진전략에 기초하여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증진을 제안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일본이 제안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환경협력프로젝트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아세안과 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의 순환경제, 폐기물 재활용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을 환영했다. 2019년 캄보디아에서 제16차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일본은 지금까지의 한·아세안환경협력의 결과 공유와 '오사카 블루 오션비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마. 기타

한국은 미얀마와 환경협력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은 미얀마와 생물다양성의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환경협력단'을 미얀마 현지로 파견한 바 있다. 환경협력단은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메콩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민간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파견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제5차 한-미얀마 환경차관 회담에서 양측은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는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운영방안 및 세부 추진계획, 정상회의 성과사업 후속조치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어 양국은 환경정책, 환경기술,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폐기물 관리 등 환경분야의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¹⁵⁴⁾

154) 환경부(2019), 「한-미얀마, 환경협력 강화...국내기업 진출 지원」(검색일: 2020. 6. 10).

3. 한·아세안 환경 ODA 지원 현황

지속가능한 환경 관련하여 아세안과의 또 다른 협력은 ODA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2020년 ODA 확정액 규모는 약 3조 4,270억원으로, 총 41개 기관에서 1,551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9년 ODA 확정액은 3조 2,003억원으로 2020년에 들어 2,267억원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2020년 신남방국가에 대한 ODA 규모는 총 7,701억원으로 전년 대비 6,145억과 비교하여 25% 증가하였다(표 3-4 참조).¹⁵⁵⁾

표 3-4. 한국의 신남방 ODA 규모

전체	2019년(억원)	2020년(억원)	증가율(%)
유상	4,248	4,957	16.7
무상	1,897	2,744	44.6
합계	6,145	7,701	25.3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a), p. 12.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2019년 대비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38.8%에서 39.4% 증가하였다. 반면에 아프리카는 21.6%에서 17.9%, 중남미는 8.2%에서 6.3% 감소하였다.¹⁵⁶⁾ 2020년 ODA의 분야별 지원 현황을 보면, 교통(13.6%), 교육(10.4%), 보건(10.0%), 농림수산(9.9%), 산업에너지(8.8%), 공공행정(8.4%), 환경(7.9%) 순이다(표 3-5 참조). 2019년에는 교통(15.1%), 보건(13.0%), 환경(10.6%), 교육(10.2%), 농림수산(8.9%) 순이었다. 환경분야만 보면 2019년 대비 2.9% 감소하였다.

155) 관계부처 합동(2020a), p. 12.

156) 관계부처 합동(2020a), p. 26.

표 3-5. 한국의 분야별 ODA 지원 현황(2020년)

구분		교통	교육	보건	농림 수산	산업 에너지	공공 행정	환경	인도적 지원	기타
규모 (억원)	유상	3,427	924	1,171	1,165	1,499	575	1,714	0	1,373
	무상	337	1,962	1,602	1,569	946	1,753	480	1,677	5,577
	총계	3,764	2,886	2,773	2,734	2,445	2,328	2,194	1,677	6,949
비중 (%)	유상	28.9	7.8	9.9	9.8	12.6	4.9	14.5	0.0	11.6
	무상	2.1	12.3	10.1	9.9	5.9	11.0	3.0	10.5	35.1
	총계	13.6	10.4	10.0	9.9	8.8	8.4	7.9	6.0	25.0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a), p. 27.

한편, 한국은 “2019년 국가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발표를 통해 신남방정책과 ODA를 연계한 협력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을 아세안지역에서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도출하였다. 이들 국가에 대한 CPS 중점 협력분야로는 교통, 물관리,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지역개발, 공공행정, 환경보호, 에너지, 재해예방 등 9개 분야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3-6]과 같다.

표 3-6. 아세안 중점협력국에 대한 우리의 ODA 중점 협력분야

국가	주요 사항
라오스	· (수원국 분석) 라오스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NSEDP) 2016-2020」 반영
	· (실행전략) 라오스 지원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원조일치, 원조조화, 유·무상 연계, 민간재원 활용, 사후관리 강화의 전략 활용 → 중점분야: ① 물관리 및 보건위생, ② 에너지, ③ 교육, ④ 지역개발
베트남	· (수원국 분석)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반영
	· (실행전략) 베트남 지원의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효율성, 지속가능성, 원조조화의 3대 가치를 추구 → 중점분야: ① 공공행정, ② 교육, ③ 물관리 및 보건위생, ④ 교통

표 3-6. 계속

국가	주요 사항
미얀마	· (수원국 분석) 신임 원민 대통령의 「미얀마 지속가능 발전계획('18~'22)」 반영
	· (지원계획) '미' 정부 요청에 따라 교육을 신규 중점분야로 추가 → 중점분야: ① 교통, ② 지역개발, ③ 에너지, ④ 공공행정, ⑤ 교육 - 취약지역(농촌 등) 및 취약계층에 대한 분야별 지원계획 보완
캄보디아	· (수원국 분석) 기존 전략(3기 사각전략)을 대체하는 「4기 사각전략('18~'23)」 반영
	· (지원계획) 신규 전략을 분석 후, 기존 중점분야 유지 결정 → 중점분야: ① 교통, ② 물관리·보건, ③ 교육, ④ 지역개발 - '캄보디아' 정부의 전략목표인 산업화 지원을 위해 인프라 구축·정책 자문 등 지원 계획 추가
필리핀	· (수원국 분석) 현 국가비전을 구체화한 「필리핀 국가개발계획('17~'22)」 반영
	· (지원계획) 신규 계획 등을 분석 후, 기존 중점분야 유지 결정 → 중점분야: ① 교통, ② 물관리·보건, ③ 지역개발, ④ 재해예방 - 기후변화대응/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재해예방 분야 사업발굴 및 구체화
인도네시아	· (수원국 분석) 「국가개발계획(RPJPN 2005-2025)」 반영
	· (실행전략) 對인도네시아 지원의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효율성, 지속가능성, 원 조조화의 3대 가치를 추구 → 중점분야: ① 교통, ② 공공행정, ③ 환경보호, ④ 물관리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b)과 관계부처 합동(2020b) 참조하여 저자 작성.

11개 신남방국가 중 중점협력대상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한 중점협력 분야는 주로 지역개발·교육·교통에 집중되어 있다. 2020년에는 베트남 1,500억원, 필리핀 1,246억원, 라오스 1,135억원의 ODA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세안 중점국가들에 지원되는 전체 ODA 사업들 중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로 지원되는 사업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아세안 중점국가들에 지원되는 상기 언급한 9개 분야와 기타 분야에 포함된 사업명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점에서 10개 소분야로 재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점에서 물관리, 폐기물관리, 기후변화, 재해예방, 해양환경, 산림, 환경기술, 환경평가, 녹색성장, 에너지 10개 소분야로 재분류하였다.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로는 교통, 공공행정, 보건, 지역개발 등의 분야로 이들

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상 분류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아세안에 지원되고 있는 전체 금액 5,800.2억 원 중에서 지속가능한 환경분야로 분류한 10개 소분야는 2,209.1억 원으로 38.0%에 해당된다.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중 물관리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에너지와 재해예방 분야이다. 그 밖에 다른 분야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물관리, 재해예방, 에너지는 아세안 중점국가들에 대체로 지원이 되고 있다. 물론 물관리에서는 미얀마가, 재해예방에서는 캄보디아가, 에너지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각각 제외되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지원 현황은 대체로 골고루 지원되고 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국가는 필리핀으로 507.5억 원이고 가장 낮은 금액은 미얀마로 228.8억 원이다. 총 ODA 지원이 가장 많은 베트남(1,707.9억 원)의 경우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지원은 총 지원 금액에 비교하여 383.7억 원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적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표 3-7 참조).

표 3-7. 2019년 아세안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ODA 지원 예산 금액

		(단위: 억 원, %)							
구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합계	비중 (%)
지속 가능한 환경 분야	물관리	208.7	-	311.8	431.9	230.2	344.88	1,527.5	26.0
	폐기물 관리	6.2※	-	-	-	-	-	6.2	0.1
	기후변화	-	3.0	-	2.0	1.8	6.86	13.7	0.2
	재해예방	5.7	15.3	25.9	1.2	-	155.78	203.8	3.5
	해양환경	-	-	19.0	8.0	0.9	-	27.9	0.5
	산림	-	-	-	18.2	4.0	-	22.2	0.4
	환경기술	-	-	5.0	-	-	-	5.0	0.1
	환경평가	-	-	-	-	0.6	-	0.6	0.0
	녹색성장	2.6	-	-	-	-	-	2.6	0.0
	에너지	157.3	210.5	22.1	-	9.9	-	399.7	7.0
합계	380.4	228.8	383.7	461.4	247.3	507.52	2,209.1	38.0	
기타	508.1	609.9	1,324.2	271.3	487.4	390.2	3,591.1	62.0	
총 ODA	888.5	838.7	1,707.9	732.7	734.7	897.68	5,800.2	100.0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a), pp. 158~208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 해당하는 아세안 국가들만 선별하여 자자자 금액을 합산하여 정리.

※ 라오스의 "라오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폐기물 및 하수처리 역량강화사업" 사업예산은 폐기물 관리로 합산하여 처리

표 3-8. 신남방정책과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ODA의 관계

구분	주요 정책	분야	아세안 중점협력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람	신남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확대							
	신남방지역과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신남방 지역 학생, 교원, 공무원 대상 인적자원 역량강화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							
	상호 간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 증진							
	신남방국가의 삶의 질 개선	녹색성장, 환경평가, 산림	○				○	○
번영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신남방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	에너지	○	○	○	○		
	중소·중견 기업의 시장진출과 상호 교류활동 지원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	환경기술			○			
	신남방 각 국가별 맞춤형 협력							
평화	신남방국가들과 정상 및 고위급교류 활성화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포괄적인 국방·방산 협력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물관리, 폐기물, 해양환경	○			○	○	○
	긴급사태 예방 역량과 신속 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	기후변화, 재해예방	○	○	○	○	○	○

자료: 유에라(2019), p. 18의 <표 6>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ODA 현황을 이용하여 저자가 재구성.

아세안 중점국가에 대한 우리의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ODA 사업을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분야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 3-8]과 같다.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ODA 사업은 신남방정책에서 강조하는 사람, 번영, 평화 분야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사람의 범주에 녹색성장, 환경평가, 산림이 있으며, 번영에는 에너지, 환경기술이 있고, 평화에는 물관리, 폐기물, 해양환경, 기후변화, 재해예방 관련 사업들과 매칭된다고 할 수 있다.

4.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이러한 협력 관계에 기초하여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전략 중 하나로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하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였고 2019년에는 한국에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아세안에 대한 우리의 전체 ODA 중 지속가능한 환경부문의 경우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부문 ODA의 경우 물관리, 폐기물관리, 기후변화, 재난관리, 해양환경, 산림, 환경기술, 환경평가, 녹색성장, 에너지 등 분야에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전체 대외원조 중에서 물관리, 재해예방에 지원되는 부분은 전체 대외지원 중에서 29.5%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물관리/위생, 재난관리에 대한 지원과 비교하면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우리의 아세안 대외원조의 대부분은 교통과 에너지 발전 등에 절반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

한·아세안 환경협력만을 다루고 있는 기금과 계획은 아직 합의된 바가 없으나, 환경협력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관련 기금과 계획은 한국과 아세안 간에 합의된 바 있다. 한·아세안 행동계획과 협력기금을 설립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한·아세안 행동계획(2016~2020)에 기초하여 식량, 농업,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재난 관리, 환경부문에서 수자원, 위험 관리, 지속 가능한 광물 개발, 청정 기술, 기후변화

등의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기금과 관련하여 한·아세안은 1990년 인적교류를 위한 <한·아세안 특별협력기금>, 1996년에는 인재육성, 과학기술, 거버넌스, 문화·스포츠 등의 협력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미래지향협력기금>을 추가로 조성하였다. 현재까지 특별협력기금과 미래지향협력기금의 연간 조성 금액은 2010년에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2015년에 700만 달러로 증액되었다. 한편, 지속 가능한 한·아세안 협력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기금활용의 개선이 필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2014년 제1차 한·아세안 공동협력위원회(JCC: Joint Cooperation Committee) 실무그룹을 통해 프로젝트 기반에서 프로그램 기반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라 2015년 8월 한·아세안 외무장관회의에서 ToR(Terms of Reference)이 채택되었다. ToR(Terms of Reference)의 채택은 프로그램 접근법을 제도화의 첫걸음을 의미한다.¹⁵⁷⁾

2016년 3월 제3차 한·아세안 공동협력위원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5년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한·아세안 협력 우선 분야를 결정하였다. 새로운 프레임워크 채택과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으로의 전환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과 아세안은 2017년을 새로운 전환기로 결정하였다.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2017~2020 프레임워크의 전반적인 목표는 한·아세안 행동계획(2016~2020)에 포함되는 우선사항에 따라 아세안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 청사진에 개설된 아세안 비전 2025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상의 배경에 기초하여 이번 새로운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프레임워크 2017~2020>은 2018년 11월 개최한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의장성명에서 합의한 계획 중 하나이다. 정상들은 이번 새로운 <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 2017~2020>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에 교육, 환경,

157) ASEAN-Korea Cooperation Fund(2017), "New Framework for the ASEAN-ROK Cooperation Fund(AKCF) 2017-2020"(Feb. 2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6).

문화를 중점협력분야로 선정하고 6개 목적과 7개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그림 3-1 참조).¹⁵⁸⁾

그림 3-1.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프레임워크(2017~2020년)

목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실현을 위한 기여					
분야	교육		환경		문화
목적	아세안 공동체에 대한 의식 강화	지역 수준 (아세안 전역) 에서의 발전격차 축소	생태계 관리 강화	기후변화 적응 협력 강화	아세안 문화 및 미디어 산업 발전 홍보
세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연구 장려 • 젊은 학자들을 위한 펠로우십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적인 농업 홍보 • 젠더연구의 제도화 • 기술직업교육 (TVET) 홍보 	삼림과 생물 다양한 보존에 대한 지역 협력 강화	아세안 전역의 재생가능 에너지 적용 촉진	공연 감독, 방송사, 콘텐츠 제작자 등과의 기술협력 장려
목적	AEC(아세안 경제공동체)와 APSC(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와 협력하여 새로운 AKCF(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을 위한 환경 조성				
세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관련 기관, 싱크탱크, 유엔 기구, 기타 국제 기구 및 대화 상대국과의 정책 대화 촉진 • 3대 축 APSC, AEC, ASCC(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의 (청사진 2016~2015)의 리뷰 시스템 실행 촉진을 위한 지원 				

자료: ASEAN-Korea Cooperation Fund(2017).

한·아세안 환경협력 프로젝트(AKECOP: ASEAN-ROK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 하에서 다양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 진행 중인 ‘물 관련 재해로부터의 지속가능한 아세안의 회복력 구축’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환경에 관한 한·아세안 협력은 진전되었다. 또한 한·아세안

158) Ibid.

산림협력기구를 설립하여 산림협력 협정도 체결하여 산림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5. 한·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활발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한·아세안 환경협력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첫째, 환경협력 분야, 각 협력의 세부 과제 및 이행방안 등을 담고 있는 한·아세안 환경협력의 중장기적 전략의 부재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아세안은 2010년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2011~2015>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분야의 관계 발전의 관점에서 환경협력을 다루었다는 긍정적인 점은 있으나, 환경협력의 이슈에 중점을 둔 계획을 담은 합의는 이루어내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한·아세안 환경협력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아세안 환경협력은 여러 관련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비정부기관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행되고 또는 정부가 선정한 특정 기관이 주관하여 추진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협력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더불어 협력 프로그램 추진에 드는 자원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아세안 환경협력이 중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¹⁵⁹⁾

셋째, 아세안 개별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도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59) 강택구 외(2013a), pp. 105~106.

넷째, 우리 대외정책 신남방정책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전면에 내세워 주류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신남방정책은 과거 아세안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저탄소 친환경사업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아세안지역에 대한 일부 우리 업체들이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내외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¹⁶⁰⁾

160) 「환경: 한국, '그린뉴딜' 외치면서 해외 석탄사업 투자 왜?」(2020. 9.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8. 26).

제4장

K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1. 중·아세안 환경협력 SWOT 분석
2. 한·중 공동 협력 추진 전략
3.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1. 중·아세안 환경협력 SWOT 분석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한·중협력과 우리 신남방정책의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아세안 환경협력에 대해 우리와 아세안 간의 환경협력에 있어 우리의 강점과 약점, 외부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 SWOT 분석을 하였다(표 4-1 참조).

강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세안 내에서 우리의 여론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며, 최근 들어 교역도 활발하다. 2018년 기준으로 아세안은 1,597.4억 달러 규모로 우리의 제2위 교역 대상이며, 아세안에 대한 우리의 투자 규모는 85.9억 달러로 제3위 투자 대상 지역이다. 한편, 우리의 제1위 방문 지역인데 2018년 한 해 1,144만 명이 상호 교류하였다. 이러한 협력 관계에 기초하여 한국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가전략 중 하나로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하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였고 2019년에는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아세안에 대한 우리의 전체 ODA 중 지속가능한 환경부문의 경우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부문 ODA의 경우 물관리, 폐기물관리, 기후변화, 재난관리, 해양환경, 산림, 환경기술, 환경평가, 녹색성장, 에너지 등 분야에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대외원조 중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야인 물 공급과 위생, 긴급 재난에 지원되는 부분은 전체 대외지원 중에서 매우 미미하다. 대외원조의 대부분은 교통과 에너지 발전 등에 절반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

표 4-1. 중·아세안 환경협력에 대한 한국의 SWOT 분석

	<p style="text-align: center;">강점(S)</p> <p>중국보다 우호적인 여론 우리의 2위 교역 파트너, 3위 투자지역(2018년 기준) 새로운 아세안 이니셔티브 구축 환경 부문에서 활발한 아세안과의 협력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인 ODA 경험</p>	<p style="text-align: center;">약점(W)</p> <p>한·아세안 환경협력 조직과 중장기 전략 부재 중국과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원 아세안 개별국가와의 채널의 상대적 빈약과 편중된 협력 환경 주류화를 위한 노력 부재</p>
<p style="text-align: center;">기회(O)</p> <p>중국 시장 대체 생산 및 소비거점 부상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 아세안경제/사회공동체 역내통합 노력 지속 경제성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부의 높은 의지 한류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제고</p>	<p style="text-align: center;">SO 전략</p> <p>경제적 고려와 더불어 사람 중심의 인간안보론적 접근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협력 아젠다 발굴</p>	<p style="text-align: center;">WO 전략</p> <p>신남방정책에 지속가능한 환경의 주류화 한·아세안 환경협력 전담 기제 구축과 전략</p>
<p style="text-align: center;">위협(T)</p> <p>중국의 아세안 진출 확대로 경쟁 심화 일부 국가의 높은 정치적 불안정성 아세안국가들의 거버넌스 역량 부족</p>	<p style="text-align: center;">ST 전략</p> <p>환경협력을 통한 우리의 소프트파워 강화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한 인식공동체 확산</p>	<p style="text-align: center;">WT 전략</p> <p>한·중 공동 진출 방안 모색 다자적 환경협력체계 구축</p>

자료: 저자 작성.

약점 요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과 아세안 간 지속가능한 환경분야를 전담하는 조직과 중장기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과 아세안의 총체적인 체계 하에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을 뿐 지속가능한 환경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 둘째,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AIIB, 아세안 내 화교 등 막대한 자본과 인적 자원에 기초하여 아세안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을 다지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경쟁 국가들과 비교하여 물량 면이나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처해있다. 셋째, 아세안 개별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아세안국가들과의 협력도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우리 대외정책 신남방정책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주류화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중국의 경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녹색 일대일로'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고 이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비교해 우리의 신남방정책에서는 녹색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주류화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기회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이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및 소비거점으로 부상하였다. 과거 중국에 대거 진출했던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 내 경영여건 악화와 미중 갈등 등 불안한 대외여건을 맞아 아세안으로 눈을 돌려 수출 및 투자를 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총 수출 중소기업 94,279개 업체 중에서 아세안에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 수는 41.2%(38,822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투자 역시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및 대양주 총 투자액 기준으로 북미와 유럽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의 경우 회원국 국가들마다 소득과 구매력 차이가 현저하지만, 2019년 기준으로 아세안 시장의 인구는 6억 5,444만 명으로 명목 GDP는 3.1조 달러로 추정된다. 평균 연령이 29.1세에 불과하여 젊은 구매자를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로 아세안의 소비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젊은 층 중심의 인구 구

조를 가진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아세안지역 내 인터넷 보급률은 58%, SNS 사용률은 55%에 이른다. 이러한 인터넷 인프라에 기초하여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등 신규 사업의 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¹⁶¹⁾ 둘째, 한·아세안 간에 자유무역 기본협정이 2007년 6월 발효되고 상품협정과 서비스협정은 각각 2007년 6월과 2009년 5월 발효되었다. 2019년 2월 한·아세안 FTA 제17차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무역 증진과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¹⁶²⁾ 셋째, 최근 들어 아세안국가 내 집권체제의 기반이 안정되면서 인프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의 총선과 대선에서 기존 집권당이 재집권하거나 연장에 성공하면서 기존 집권당이 발표 또는 추진하려는 국가 차원의 개발 프로젝트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¹⁶³⁾ 넷째, 이와 더불어 아세안뿐만 아니라 회원국들 역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 역시 높다.¹⁶⁴⁾ 다섯째, 한류의 영향으로 아세안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제고되고 있어 우리의 아세안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조사에서 필리핀(66.4%), 베트남(60.7%), 싱가포르(57.0%), 캄보디아(50.0%)의 과반은 중국이 동남아를 자국의 영향력으로 포함하여 향후 수정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등 거부감이 강하다.¹⁶⁵⁾ 이에 반해 한국에 대해서는 K-Pop,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받아들이면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위험 요인으로는 첫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AIIB의 막대한 자금에 기반한 중국은 아세안과의 협력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자금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분야에서도 아세안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와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정

16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0), p. 32.

162) 한국무역협회(2019), p. 9.

16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0), pp. 12~13.

16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0), pp. 25~26.

165) Tang *et al.*(2019), p. 18. 전체 응답 995명. 무응답 13명.

치질서의 불안정은 무역환경을 쉽게 악화시킨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 대한 서구의 불만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은 캄보디아에 부여했던 무역 특혜 지위를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의류 및 신발 제조와 같은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에 큰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주요 산업이 충격을 받는다면 전체적인 경제발전을 낙관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해당 국가 간 경제협력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다른 몇몇 국가들의 환경전략은 비교적 늦게 시작되어 입법기관의 법률적 수단을 통한 정책 지원 의지, 행정부서의 정책 시행 자원, 정책 추진 역량 및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 환경보호를 위한 법률과 거버넌스의 부재는 단기간 내에 이윤을 추구하는 외자기업의 투자와 건설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동시에 환경오염과 파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겹친다면, 아세안과의 환경협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분석에 기초하면 SO 전략은 경제적 고려와 더불어 사람 중심의 인간안보론적 접근,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주요 협력 아젠다 발굴이다. WO 전략은 신남방정책에 지속가능한 환경의 주류화, 한·아세안 환경협력 전담 기제 구축과 전략 마련이다. ST 전략은 환경협력을 통한 우리의 소프트파워 강화,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한 인식공동체 확산이다. WT 전략은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한·중 공동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다자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상의 전략을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한·중 공동 협력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기초하에 아세안과 협력 전략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WT 전략 중 하나인 한·중 공동 진출 전략을 우선적으로 살펴본 후, 우리의 신남방정책 하에 추진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SO 전략,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 순으로 살펴본다.

2. 한·중 공동 협력 추진 전략

가. 아세안에 대한 한·중 공동 진출의 기회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세안에서 환경오염과 파괴 등의 문제로 곤경을 겪고 있는 상황은 한·중 양국 공동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해 막대한 경제력, 가격 경쟁력, 적정 기술을 앞세우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은 우리에게 어려운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 간 경쟁보다는 국가전략을 활용한 연계를 통해 아세안 지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양국에 이익이 될 것이다. 한·중 공동 진출과 관련하여 2017년 12월 중국 충칭에서 개최한 한·중 제3국 공동 진출 산업협력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4대 협력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4대 협력 방향 중에서 친환경 에너지 육성, 초국가 간 전력망 연계와 같은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양국이 갖고 있는 장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3국 한·중 공동 진출 협력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2018년 2월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은 기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연계 협력 MoU를 신북방 및 신남방정책과 연계 협력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제3국 공동 진출 활성화를 위해 ‘중점사업 리스트’ 작성과 성공사례 발굴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을 합의하였다.¹⁶⁶⁾

지속가능한 환경분야는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에서도 증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한국이 갖는 현실적인 역량을 고려하여 한·중 양국이 상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 분야 중에서 지속가능한 환경분야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한 대외

166)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온라인 보도자료(2018. 2. 2),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의 주요 결과: 4대 협력방향에 대한 합의 도출」(검색일: 2020. 5. 6).

사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제적 접근 중심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속가능발전을 포함한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자금을 기반을 둔 중국의 해외 인프라 사업 추진 등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겪고 있는 환경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의 환경 관련 노하우를 결합한 국제협력개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간 한·중 양국 간에 미진했던 제3국 공동 진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인프라 사업뿐 아니라 더불어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 분야인 기후변화, 스마트시티, 자연재난, 친환경 에너지 절약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¹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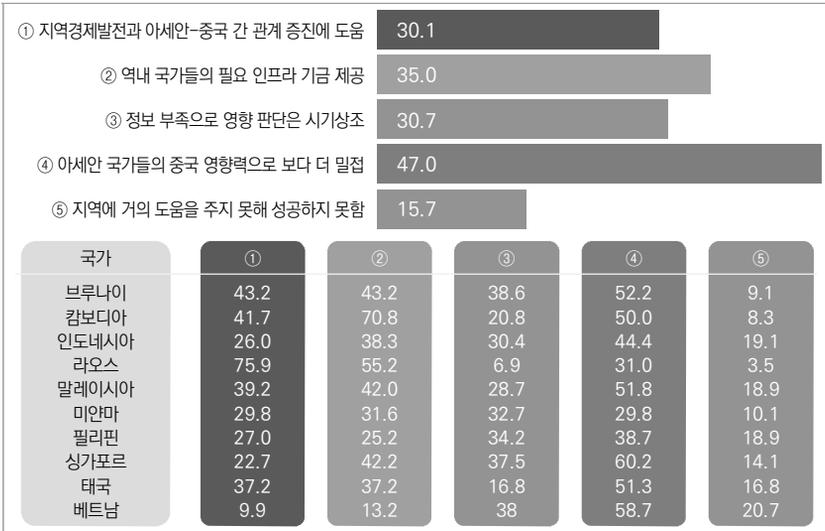
아세안 지역에 대한 한·중 협력은 제3국에서의 반중 정서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세안지역에 대한 반중 정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 때문에 따른 경제 예측과 향후 동남아를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수정주의 국가로의 변화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 경제발전의 기회와 더불어 중국 경제에 대한 예측이라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그림 4-1 참조). 지역 경제발전과 아세안-중국 간의 관계 발전, 인프라와 자금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각각 30.1%, 35.0%이다. 반면에 중국 경제에 근접하게 되거나 지역 공동체에는 별 이득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62.7%이다. 30.7%는 판단 보류의 입장이다. 중국 경제권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나라를 살펴보면, 싱가포르(60.2%), 베트남(58.7%), 브루나이(52.3%), 말레이시아(51.8%), 태국(51.3%), 캄보디아(50.0%) 순이다.

동일한 설문문의 다른 질문으로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재부상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생각에 대해 45.4%는 중국이 동남아를 자국의 영향력으로 두려는 의도를 가진 수정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그림 4-2 참조).

167) 상기 내용은 강택구(2020)의 내용 일부를 요약 정리하였음.

그림 4-1. 아세안 국민들의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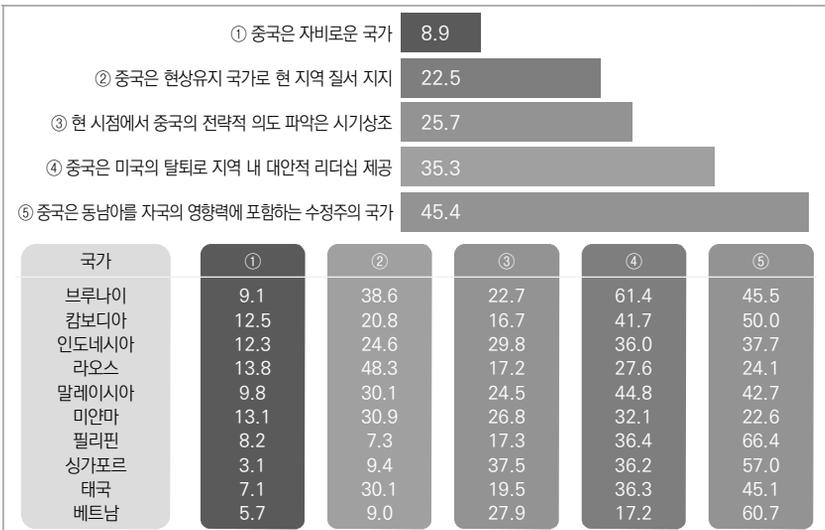
(단위: %)



자료: Tang *et al.*(2019), p. 19. 전체 응답 996명. 무응답 12명.

그림 4-2. 중국의 재부상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생각

(단위: %)



자료: Tang *et al.*(2019), p. 18. 전체 응답 995명. 무응답 13명.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AIIB는 빈곤, 질병, 교육 등 사회개발이슈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다른 다자개발은행(MDB)과 달리 교통, 통신, 에너지, 전력, 도시개발, 수자원 등 인프라 사업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¹⁶⁸⁾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6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승인된 AIIB의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프로젝트는 총 약 33억 6천만 달러이며,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투자하고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에 대한 투자는 없다. [표 4-2]의 부문 중에서도 물, 에너지, 도시, ICT, 운송 인프라 비중은 전체 승인 사업 중에서 34.2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경제회복력을 위한 투자가 전체에서 44.54%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경제회복력을 위한 투자는 2020년에 들어 2건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중적으로 승인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AIIB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물 분야에 승인된 사업의 경우 3건이나 인프라를 제외한 사업은 2017년 필리핀에 진행한 홍수관리 사업이 유일하다.

연선국가의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 투자는 종종 환경적 위험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인프라, 무역,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혜택을 압도하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 환경요인이 초래되는 것이다.¹⁶⁹⁾ 예를 들어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잠재적 영향은 다양하다.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는 생태계 시스템과 야생동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벌목, 밀렵 등으로 인해 산림 황폐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¹⁷⁰⁾

168) 이현태, 김준영(2016), p. 4.

169) Li, Qian and Zhou(2017), pp. 1-4.

170) Teo *et al.*(2019); Losos *et al.*(2019), "Is a Green Belt and Road feasible? How to mitigate the environmental risk of BRI Infrastructure Proje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0).

표 4-2. AIIB의 아세안 주요 국가 승인 사업 현황

승인 연도	국가	부문	사업 유형	자금 유형	사업명	자금 조달 금액	비중(%)
2019	싱가포르	금융기관	단독	비국가	인프라 민간 자본 유통 플랫폼	54백만 달러	1.60
2017	필리핀	물	공동	국가	메트로마닐라 홍수 관리	207.6백만 달러	6.16
2020	필리핀	경제회복력/PBF	공동	국가	COVID-19 능동적 대응 및 지출 지원 프로그램(CARES)	750백만 달러	22.27
2016	미얀마	에너지	공동	비국가	민지안 225 MW 복합 사이클 가스 터빈(CCGT) 발전소 프로젝트	20.0백만 달러	0.59
2016	인도네시아	도시	공동	국가	빈민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216.5백만 달러	6.43
2017	인도네시아	금융기관	공동	국가	지역 인프라 개발 기금	100백만 달러	2.97
2017	인도네시아	물	공동	국가	댐 운영 개선 및 안전 프로젝트 2단계	125백만 달러	3.71
2018	인도네시아	물	공동	국가	전략적 관개(灌溉) 현대화 및 긴급 복구 사업	250백만 달러	7.42
2018	인도네시아	도시	단독	국가	만달리카 도시 및 관광 인프라	248.4백만 달러	7.37
2020	인도네시아	경제회복력/PBF	공동	국가	COVID-19 능동적 대응 및 지출 지원 프로그램	750백만 달러	22.27
2020	인도네시아	공중보건	공동	국가	COVID-19 프로그램 긴급 대응	250백만 달러	7.42
2020	인도네시아	ICT	단독	비국가	다가능 위성 PPP 프로젝트	150백만 달러	4.45
2020	베트남	금융/유동성	공동	비국가	VP 은행 COVID-19 대응 시설	100백만 달러	2.97
2019	캄보디아	ICT	단독	비국가	캄보디아: 광통신망 프로젝트	75백만 달러	2.22
2019	라오스	운송	공동	국가	국도13 개선 및 정비 사업	40백만 달러	1.18
2020	라오스	운송	단독	국가	국도13 남방 프로젝트의 기후 복원력 개선(섹션3)	30백만 달러	0.89
총액						33억 6,650만 달러	100

자료: AIIB(2020)에서 아세안 국가들만 선별하여 저자 정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20).

나. 아세안에 한·중 협력 가능성

중국과의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에 대해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는 한국이다. 그간 한국은 중국과 함께 제3국 공동 진출에 대해 협력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없다.

일반적으로 누가 주도하여 제3국에 대해 공동 진출하느냐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¹⁷¹⁾ 첫 번째는 업체들이 나서는 경우이다. 기존에 동남아 시장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 업체와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비교우위 분야에 공동 참여하는 경우이다. 이미 한국은 일본 또는 대만과 함께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진출한 바 있다. 한국 업체는 2006년 일본, 인도네시아 업체와 함께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도네시아 짜레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¹⁷²⁾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 분야를 통해 외국 기업과 연합의 기회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양국 정부 차원에서 만든 협력 프레임 속에 우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로 중국과 한국의 정부 간 협력이 동인이 되어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것이다. AIIB를 활용한 한국의 동남아 인프라 시장 진출을 들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은 동남아 정부가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개선하고자 타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한국기업에 기회가 생기는 경우이다.

제3국 시장 협력(third-party market cooperation)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경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2019년 8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제3자 시장 협력 가이드라인과 사례(第三方市场合作指南和案例)”에 따르면, “제3국 시장 협력이란 제3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다른 나라의 기업 간의 경제적 협력”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⁷³⁾ 다시 말해 비즈니스 원칙과

171) 오윤아 외(2017), pp. 125~126.

172) 한국중부발전, 「해외화력발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7).

173)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2019), p. 2.

국제적 규범을 갖는 기업 중심적이며 시장 지향적이다.

이처럼 중국이 원하는 제3국 진출은 경제적 진출이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와 협력의 교집합은 산업 진출의 측면에서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최근들어 한·중 간에 많은 분야에서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에 진입하고 있는 분야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협력분야 발굴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선뜻 나설 수 있는 사업의 발굴이 용이하지 않다.¹⁷⁴⁾ 특히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자체가 건설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제3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많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다른 분야와 우리의 환경 노하우를 결합한 분야의 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한·중 간에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아세안지역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출할 수 있는 있는 분야로는 스마트그린시티 건설을 제안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구축 분야는 앞서 설명한대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이 업체들의 참여를 통한 경제적 진출이라는 점에서 한·중 간 공동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 중 하나이다. 스마트시티 분야에 대한 한·중 공동 진출에 대한 논의는 2015년 한·중 양국의 대외 국가전략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연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당시에도 논의된 바 있다.¹⁷⁵⁾ 이후 한·중은 경제관련 부문에서 정부와 민간들 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MoU 체결 등을 진행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구체적인 협력 사업에 대한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174) 양평섭 외(2018), p. 288.

175) 「韓 ‘유라시아 이니셔티브’·中 ‘일대일로’ 함께 추진한다」(2015. 10.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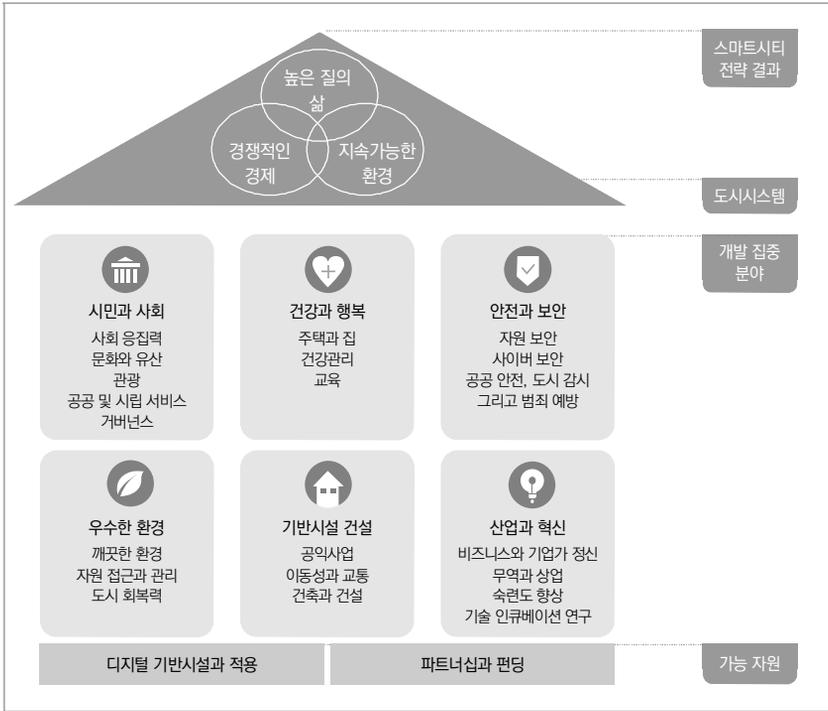
다. 아세안에 한·중 공동 협력 분야: 스마트그린시티 구축

스마트그린시티 구축 분야는 한·중뿐 아니라 아세안에서도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아세안 정상들은 2018년 제32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ASEAN Smart Cities Network)를 정식 수립하였다. ASCN은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의 금융 프로젝트를 도모하고 아세안 외부 파트너들로부터 자금 지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¹⁷⁶⁾ 아세안에서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6대 개발중점분야는 시민과 사회, 건강과 웰빙, 안전과 보안, 양질의 환경, 인프라 구축, 산업과 혁신으로 나눈다.¹⁷⁷⁾ 6개 개발중점 분야 중 양질의 환경에 서는 다음 3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아세안 스마트시티는 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② 생태계, 천연자원,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③ 재난 위험과 잠재적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질의 환경을 구축하고 기술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그림 4-3 참조).

176) ASEAN 홈페이지, "ASEAN Smart Cities Networ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26).

177) Centre for Liveable Cities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ingapore(2018), p. 10.

그림 4-3. 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자료: Centre for Liveable Cities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ingapore(2018), p. 10.

한국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한·아세안 간 스마트시티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회원국 담당부처 장·차관, 아세안 사무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스마트시티 협력 업무협약(MoU)’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공기관과 아세안 지방정부·공공기관 간 구체적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3건의 MoU도 체결하였다. 3건의 MoU 중에서 환경 관련하여 한국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캄보디아 바탐방주 간에 배수시스템 분야 협력을 체결하였다.¹⁷⁸⁾ 한국은 환경수자원 분야에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반 시설 투자와 운영

178) 국토교통부 온라인 보도자료(2019. 11. 25), 「한·아세안 10개국, 스마트시티 협력 본궤도 올린다」

을 통해 상하수도, 자원순환, 기후대기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¹⁷⁹⁾ 또한 한국은 2019년 5월 ASCN 협력연구 착수보고회와 관계기관 합동 TF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협력연구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 8개 기관이 참여하는 4개 과제(① 지원전략, ② 패키지사업, ③ 교통·정보통신사업, ④ 환경·수자원사업)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하여 아세안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협력 사업을 도출하고,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남방특위는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유관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 정부부처와 9개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출범하였다.¹⁸⁰⁾

그림 4-4.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관계기관 합동TF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9. 5. 13), 「신남방 특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아세안과의 스마트시티 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검색일: 2020. 9. 23).

(검색일: 2020. 9. 26).

179) 이병국 외(2019).

180)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9. 5. 13), 「신남방 특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아세안과의 스마트시티 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검색일: 2020. 9. 23).

한편, 제3국 공동 진출의 다른 파트너인 중국이 아세안에서 어떤 분야의 협력을 선호하는지를 간략하게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레임을 활용하여 아세안에서의 스마트 시티(중국어명 智慧城市) 구축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¹⁸¹⁾ 2019년 11월 제22차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스마트시티 협력 관련한 〈스마트시티 협력 이니셔티브에 관한 아세안-중국 정상 성명(ASEAN-China Leaders' Statement on Smart City Cooperation Initiative)〉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의 주요 분야별 협력 방향에 합의하였다.¹⁸²⁾ 그리고 다음 해인 2020년 6월 중국은 〈중국-아세안 디지털경제협력의 해〉를 출범하고 인프라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건설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 건설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¹⁸³⁾ 정부 차원의 후원 하에 중국의 대표적인 ICT 업체들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그간 쌓아온 풍부한 노하우에 기초하여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스마트 보안, 스마트 모빌리티 및 교통 인프라 구축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¹⁸⁴⁾

한 국가의 기업이 단독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하기도 쉽지 않은데 다른 국가와 함께 제3국 공동 진출은 양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하여 제3국에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한층 더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간에는 규모는 작더라도 성공적인 협력의 사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기업들이 협력하여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 스마트시티 건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지역의 스마트시티 구축에 한·중 공동 진출을 모색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81) 이형근, 나수엽(2019), pp. 54~60.

182) ASEAN 홈페이지(2019), "ASEAN-China Leaders' Statement on Smart City Cooperation Initia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23).

183) "China, ASEAN to enhance tech ties under BRI framework"(2020. 8.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23).

184) 이형근, 나수엽(2019), pp. 55~58.

ASCF에서 제시하고 있는 6대 개발 중점분야 중에서 한국은 환경부문에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물관리, 폐기물 관리 인프라를 포함한 환경과 더불어 세계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ICT 기술과 결합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정책적, 산업적, 기술적 우위와 경험이 풍부한 한국에 유리한 분야이다. 그리고 중국은 교통통신 등의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ICT 기술과 결합한 형태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개발하여 아세안에 개발 협력을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아세안에 대한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있어 한·중 양국의 비교 우위 분야와 기술의 장점을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제3국 공동 진출의 새로운 사업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간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사업이 표면적으로 개별 기업들 간의 협력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저에는 진출 대상국의 수요에 따른 양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에 기초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¹⁸⁵⁾ 이러한 점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한·중 협력은 앞서 살펴본 3국 공동 진출 유형 중 두 번째 유형 즉 양국 정부 차원에서 협력 프레임을 추진하고 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3국 공동 진출의 대상국가와 구체적 지역, 한·중이 연계하는 신규 사업을 협의하는 플랫폼으로는 정부간 채널로서 한·중경제장관회의와 1.5 트랙으로서 한·중경제협력포럼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아세안에 대한 한·중 간 스마트시티 건설에 있어 공동 협력을 진행할 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스마트시티 구축에 있어 한·중 양국이 맡아야 할 분야의 중복 가능성이다. 중국은 자국의 글로벌 ICT 기업을 중심으로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프리카의 케냐와 남아공, 유럽의 독일과 벨라루스 등에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역시 공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쿠웨이트, 볼리비아, 이라크, 말레이시아, 중국, 미국 등에 진출 협력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 모두 보유한 스마트시티 구축 경험은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185) 이형근, 나수엽(2019), p. 55.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양국의 우위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

둘째, 미국 역시 아세안지역에 대한 스마트시티 건설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은 2019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지원 의사를 밝히고 1차로 1천만 달러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가로서 미국은 아세안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미국의 규범과 기준을 확산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¹⁸⁶⁾

셋째, 중국과의 협력이 과거보다는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우리와 상대적인 힘의 격차가 커져 동등한 협력이 쉽지 않다.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의 최고조에 달한바 있다.

넷째, 아세안 등 제3시장에 대한 중·일간 협력 추진 여부에 따른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 2018년 5월 9일 중·일 정상은 일대일로 연안 국가에 대한 공동 진출과 인프라 구축 사업 협력에 합의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2018년 5월 아베 신조의 방중을 통해 제3국 시장 접근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총 52개 협력 협정 총 180억 달러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¹⁸⁷⁾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 산하에 민관협의회를 설치키로 합의하였다.

3.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다음으로는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186) 「동남아 스마트시티 둘러싼 美中 경쟁, 누가 웃을까?」(2019. 11.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7).

187) 「中日52项第三国合作协议清单公布 超过金额180亿美元」(2018. 10.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9. 17).

제안한다. 앞서 한·중 협력에서는 한·중 간의 협력 분야를 발굴한 것이라면, 이번 절에서는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의 성과와 한계에 기초하여 중국과 차별화되거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세적인 측면에 기반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려할 방안을 제안하였다.

가. 사람 중심의 인간안보론적 접근

그간 한·중·일 모두 아세안에 대한 접근은 시장 진출과 경제적 이윤 창출이라는 경제적 접근에 집중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¹⁸⁸⁾ 우리나라의 아세안에 대한 기존의 대부분 환경협력 연구와 사업들은 아세안 환경시장의 진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측면이 크다.¹⁸⁹⁾ 국가 간 협력에 있어 상대방 국가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현실적 이익이 제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개발이 시급한 국가의 경우 그와 대척점에 있는 생태환경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쉽다. 이러한 국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이익과 함께 즉각적이고도 현실적인 이익의 제시는 불가피하다. 예를 들면, 안보적 협력의 경우 단기 이익의 영역에 속하지만, 환경협력의 경우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며, 이런 상태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어떠한 전략적 비전이 제시되어 그 목적이 명확해지는가에 따라 참여의 정도가 달라진다. 예산을 전적으로 한쪽이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호 협력 가능한 수준의 경제적 부담의 적정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를 어떠한 전략적 안목과 결합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남남협력의 경우 수혜국의 수요에 기초하여 환경협력이 우리의 경제적 이익 창출뿐 아니라 수혜국의 경제적 이익 창출과 직결된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상대국의 협조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¹⁹⁰⁾

188) 정기웅, 강택구(2020), p. 155.

189) 한국환경산업협회(200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6).

물론 이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남방정책 역시 경제적 전략에 기반한 접근임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남방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특정 국가에 의존된 경제구조를 다변화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성장 플랫폼으로 고안된 측면이 있다.¹⁹¹⁾ 경제적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에서 다른 한편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 중심 관점이다. 이러한 사람 중심의 관점은 상호 신뢰에 기초한 협력이라는 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접근의 기회이다. 과거와 달리 경제적인 잣대로만 보지 말고 상호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동반 관계와 동반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람 중심 관점은 상호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파트너십과 동반 성장을 강조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접근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의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의 성공은 일본, 중국에 비해 열세인 한국이 어떻게 중국과 일본을 극복하고 이 지역에서 사람에 기초한 협력을 통해 향후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사람을 강조하는 개념은 이미 국제정치학에서 ‘인간 안보’ 개념으로 제기되어 논의가 되고 있다. 국가 간의 안보 위협이 되는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경성 안보가 탈냉전 이후 상호의존적인 세계 질서가 구축되면서 연성안보와 인간안보의 패러다임이 자연스럽게 전환되었고,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에서 ‘인간안보’ 개념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바, 전통적인 안보가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국가의 영토적 통합성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했다면, 인간안보는 국가나 정부 대신 사람에 대한 안보를 다루고 있다.¹⁹²⁾ 국가 간 관계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성안보의 개념에서 벗어나 연성안보와 전반적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인간안보 개념을

190) 정기용, 강택구(2020), p. 156.

191) 광성일(2018), p. 3.

192) Baylis, Smith and Owens(2008), 번역: 하영선 외(2009).

강조하고 있다.

물론 학계 내에서도 인간안보의 개념, 범위,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인간안보 개념의 수용은 그간 국민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가주권의 절대성에 잠재적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간안보 이행의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국가주권체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주권과 인간안보가 양립가능한 개념으로 수용하고 있는 추세이다.¹⁹³⁾ 이러한 학문적 사조를 반영하여 2020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인간의 일상적 삶과 존엄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인간안보’ 개념을 강조하였다.¹⁹⁴⁾ 이는 전통적 안보위협뿐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인간안보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적 협력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COVID-19) 유행 이후 기존의 국가주권 우선의 전통적 안보관과 더불어 인간의 일상적 삶과 존엄을 강조하는 인간안보 개념을 정부의 정책적 차원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⁹⁵⁾

아세안 국가들은 주변 각 국가들의 아세안 중시 현상을 반기면서도 경계하는 태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국가이익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과거 아세안측 인사들은 한국의 접근이 자기중심적이고 거래적(transactional)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아세안의 주요 인사들은 한국의 아세안 정책은 독립적인 외교 정책으로서 위상을 갖지 못하고 4대 강국 외교정책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지고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문제나 강대국 관계와 갈등이 발생하면 아세안과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린다는 지적을 해 온 바 있다.¹⁹⁶⁾

193) 이해정, 박지범(2013), pp. 1~37.

194) 청와대 홈페이지(2020),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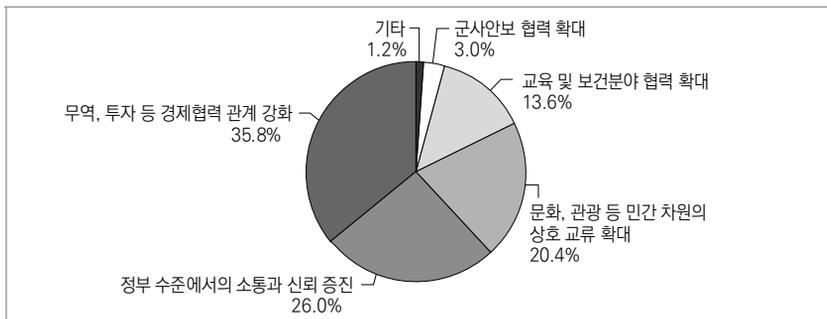
195) 정기용, 강택구(2020), p. 150.

196) Koh(2018); ERIA(2019).

우리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람 중심 관점은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접근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세안은 2015년 제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로 구성된 3개축의 아세안 공동체를 공식 출범하였다. 이는 아세안이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제시한 3P(사람, 상생번영, 평화)와 유사한 공동체를 일찍부터 논의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의 독립과 주권을 전제로 지역 차원의 협력과 통합을 통한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¹⁹⁷⁾

사람 중심의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한국에 우호적인 세력을 확대하여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 주요 정계와 재계 인사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 차세대 지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들의 한국 교육기관 연수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¹⁹⁸⁾ 2017년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의 상호인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과 아세안 간에 향후 공동으로 노력할 분야 중에서 경제협력 관계 강화 다음으로 소통과 신뢰 증진이라는 점을 꼽았다(그림 4-5 참조).

그림 4-5. 한국과 아세안의 향후 공동 노력할 분야



자료: 윤진표 외(2017), p. 19.

197) 정기웅, 강택구(2020), p. 153.

198) 성백웅 외(2018), pp. 285~290.

사람에 대한 투자 중 하나는 인적 역량 강화이다. 개도국 인적 자원에 대한 역량강화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교육 연수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이고 심화된 교육 연구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한 인적 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교육 연수프로그램의 내용 역시 한국의 개발과정에서 환경문제 해결 관련한 정책과 프로그램 공유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현지 상황에 근거한 생생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⁹⁹⁾

나.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주요 협력 아젠다

한국보다 상대적 우위에서 고려할 수 있는 협력 이슈로 재해관리, 기후변화, 해양폐기물, 대기환경, 전략환경평가 등이 있다. 상기 이슈들 중 재해관리, 기후변화, 해양폐기물, 대기환경은 아세안 환경장관회의와 재해관리에 관한 아세안 전략정책대화(ASEAN Strategic Policy Dialogue on Disaster Management)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남방정책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이다. 물론 한·아세안 간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협력 아젠다 발굴은 <한·아세안환경협력센터(가칭)>와 전략, 행동계획이 마련된다면 향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1) 재해관리

2020년 9월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도 협의된 아세안 재난위험경감 역량강화 사업 등 재해관리는 아세안 간의 협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에서 자연재해는 자주 발생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 자연재해는 인명 피해 및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역내 위협요인이다. 이에 아세안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해

199) 김호석 외(2019), pp. 179~180.

다양한 파트너들과 재해예방과 관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 아세안은 40년간 협력해 왔으며 환경협력을 오랜 기간동안 지속해왔다. 2008년부터 “아세안-일본 환경협력에 관한 대화(ASEAN-Japan Dialogu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가 개최되었다.²⁰⁰⁾ 그 이외에도 아세안은 일본과 환경협력에 관한 장관급 대화, 일-아세안 환경시범도시 프로그램(ASEAN ESC Model Cities Programme) 지원, 재해관리 등 아세안 전체와 다자간 대화 채널 및 협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²⁰¹⁾ 일본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주관하는 아세안과의 재해관리 분야 협력 사업은 통합재해예방 ICT 시스템, AHA 센터 지원(이상 일본 총무성), 항만 재해위험 경감 지침 마련을 위한 아세안·일본 항만기술그룹, 재해관리협력대화(이상 일본 국토교통성),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구호를 위한 아세안 국방장관회의+훈련(일본 방위성) 등이 있다. 또한, JAIF와 JICA 사업을 통해 아세안의 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AADMER 작업 프로그램 2016~2020과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er)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²⁰²⁾

한편, 아세안 내에서도 재해관리를 위한 기구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세안 재해관리장관회의(AMMDM)은 2004년에 출범했으며 아세안 공동의 재해대응을 위해 아세안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아세안 재해관리 및 긴급대응 협약(AADMER)은 2005년에 채택되었으며 아세안의 재해관리를 위한 공통의 플랫폼이자 역내 협력정책의 토대이다. AADMER에는 ① 재해위험 식별, 측정, 모니터링, ② 재해 예방 및 경감, ③ 재해 대비, ④ 긴급대응, ⑤ 재해복구와 같이 재해관리 단계에 따른 아세안 회원국 간 협력사항이 명시되어 있다.²⁰³⁾ 또한, 협약의 당사국 및 유엔과 관련 국제

200) 日本環境省, “Japan-ASEAN Dialogu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5).

201) 문진영 외(2019), pp. 206~211.

202) Cabinet office Japan(2018), p. A-75.

203) ASEAN 홈페이지, “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 Vientiane, 26 July 200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5).

기구 간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HA Centre)의 설립 근거도 제시하였다. 2012년부터 아세안은 AADMER 당사국 총회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공동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²⁰⁴⁾

아세안 재해관리위원회(ACDM)는 위험평가와 인식, 예방과 경감, 준비와 대응, 회복, 지식과 혁신관리 등 5개 주제별로 관련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AADMER를 이행하고 있다. 2013년 아세안은 재해로부터 회복 탄력성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세안 공동의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역내 협력강화를 담은 아세안의 재해관리를 위한 협력강화 선언(ASEAN Declaration on Enhancing Cooperation in Disaster Management)을 발표하였다.²⁰⁵⁾ 이어 2016년 ‘하나의 아세안, 하나의 대응에 대한 아세안 선언(ASEAN Declaration on One ASEAN, One Response)’을 통해 재해에 대해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공동 대응을 강조하였다.²⁰⁶⁾

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아세안 재난관리 전략정책대화(ASEAN Strategic Policy Dialogue on Disaster Management, SPDDM)에서 ACDM의 장기 전략 수립과 아세안의 재해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²⁰⁷⁾ 2015년 제3차 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AMMDM)에서 ‘아세안 재해관리 비전 2025(ASEAN Vision 2025 on Disaster Management)’가 채택되었으며, 효과적인 AADMER 이행을 위한 요소로 제도화와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십과 혁신, 재정 및 자원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²⁰⁸⁾ 현재 AADMER 2차 작업 프로그램(2016~2020)이 운영되고 있으며 작업의 8대 우선 과제는 ① 재해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② 안전한 인프라 및 필수 서비스 제공, ③ 재해 회복적이고 기후적

204) 문진영 외(2019), p. 196.

205) 문진영 외(2019), pp. 196~197.

206) ASEAN 홈페이지(2016), “ASEAN Declaration on One ASEAN, One Response: ASEAN Responding to Disasters as One in the Region and Outside the Reg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5).

207) ASEAN 홈페이지,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Disaster Management - Overview,”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5).

208) ASEAN Vision 2025 on Disaster Management.

응적인 아세안, ④ 아세안 통합의 사회경제적 이득을 보호, ⑤ 재해대응을 위한 리더십 전환, ⑥ 공동의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⑦ 재해로부터의 회복 역량, ⑧ 재해관리 전문성 강화이다.²⁰⁹⁾ AADMER 2차 작업프로그램은 2020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에 AADMER 작업프로그램 2021~2025에 대한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²¹⁰⁾

2) 기후변화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기후변화는 폭염, 폭우, 해수면 상승, 홍수, 열대성 저기압 및 가뭄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식량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구 온도도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큰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²¹¹⁾ 한 조사에서도 동남아가 직면한 주요 안보위협 중 기후변화가 51.6%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4-6 참조).

그림 4-6. 동남아가 직면한 안보 위협 중 상위 3개

(단위: %)



자료: Tang *et al.*(2019), p. 11.

209) AADMER Work Programme 2016-2020.

210) ASEAN 홈페이지(2020), “ASEAN Senior Officials for Disaster Management discuss regional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strateg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6).

211) ASEAN Cooperation on Environment, “ASEAN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5).

사회문화공동체협의회(ASCC) 청사진 2025의 '지속가능성' 부분에서 'C.3. 지속가능한 기후' 분야는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인적 및 제도적 역량 강화,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대응 개발, 민간 부문과 지역사회 활용을 통한 새로운 자금 조달 메커니즘 접근, 기관 및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정부, 민간 부문 및 지역사회 노력 강화, 주류 기후변화 위험 관리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²¹²⁾

아세안 국가, 개도국 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 국가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배양, 기술이전, 재정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파리협약을 비준한 상태이며,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감축 의무가 없는 비부속서 국가에 속한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감축과 적응 관련하여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에 공동 성명을 제출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²¹³⁾

2009년에 설립된 기후변화작업반(ASEAN Working Group on Climate Change, 이하 AWGCC)은 아세안 회원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협력 및 조치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선언문에 지역 관심사 및 우선순위 공식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조정과 통합을 위한 협의회 역할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AWGCC뿐만 아니라 관련 기타 작업그룹(농업 및 임업, 에너지 및 운송, 과학 및 기술 등)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²¹⁴⁾

2018년 AWGCC의 후원으로 아세안 기후변화 파트너십 컨퍼런스(ASEAN Climate Change Partnership Conference)를 개최했다. 본 컨퍼런스에서

212) ASEAN Cooperation on Environment, "ASEAN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5).

213) 문진영 외(2019), p. 202.

214) ASEAN Cooperation on Environment, "ASEAN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5).

는 아세안의 기후회복력을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파트너십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기후변화 활동 및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아세안 및 파트너 기관 간 인식과 조정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했다.²¹⁵⁾

2019년 4월 아세안과 EU는 기후행동에 관한 대화(Dialogue on Climate Action)를 시작했으며, 2019년 7월에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고위급대화(High-level Dialogue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가 출범했다.²¹⁶⁾ EU는 아세안과 다양한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U가 아세안과 협력하는 사례로서, EU가 현재 주도하고 있는 국제항공 분야의 온실감축 논의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2018년에 시작한 민간항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있다.²¹⁷⁾

3) 해양폐기물

코로나19 발발로 일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폐플라스틱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원유값 하락 등으로 재활용 수요가 감소하면서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은 육상뿐 아니라 해상으로 이동하여 수중서식 생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던 중국이 2018년 1월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고, 이로 인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동남아 국가(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에서 폐기물 수입이 5%에서 27%로 급격히 늘어났다.²¹⁸⁾ 아세안 회원국은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폐기물 수입, 오염물질이 섞인 폐기물 처리 문제, 해양폐기물 문제로 인해

215) ASEAN Cooperation on Environment(2018), "Promoting Cross-Sectoral and Multi-Partner Coordination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s in ASEA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5).

216) ASEAN 홈페이지(2019), "ASEAN, EU to enhance cooperation o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5).

217) EU(2018), "Annex 20 - Action Fiche for EU-South East Asia Cooperation on Mitigating Climate Change Impact from Civil Avi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5).

218) Greenpeace(2019), "Southeast Asia's Struggle Against the Plastic Waste Trad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5).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및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과 정책을 검토하게 되었다.²¹⁹⁾ 아세안에서 폐기물 수입이 많은 회원국들은 폐기물 수입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2018년에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로드맵을 마련했으며²²⁰⁾, 태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 2018~2030을 통해 2027년까지 100%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계획을 발표했다.²²¹⁾ 아세안 정상들은 2019년 6월, “아세안 해양폐기물 퇴치를 위한 방콕선언”과²²²⁾ 아세안 해양폐기물 저감 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에 관한 아세안 행동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²²³⁾ 바젤협약, G20 해양폐기물 이행체계, 오사카 블루오션비전 등 국제사회의 해양폐기물 근절에 대한 기조를 바탕으로 아세안의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 해양폐기물 경감 역량강화 사업(아세안+3)’, ‘해양폐기물에 관한 아세안-PROBLUE 활동(세계은행)’, ‘플라스틱 오염경감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사업(노르웨이)’, ‘순환경제를 위한 아세안-EU 파트너십(EU)’ 등 다양한 국제협력이 추진되고 있다.²²⁴⁾ 노르웨이가 아세안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퇴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아세안-노르웨이 협력 프로젝트(ASEANO)도 시작되었다.²²⁵⁾ 2020년 9월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안보 요인으로서 해양 폐기물이 논의되었다.

219) 문진영 외(2019), p. 223.

220) Ministry of Energy, Science, Technology, Environment & Climate Change, Malaysia (2018), “Malaysia’s Roadmap towards Zero Single-use Plastics 2018-2030”(검색일: 2020. 10. 5).

221) Nation Thailand(2019), “Thailand to junk three kinds of plastic by end of this yea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5).

222) ASEAN 홈페이지(2019), “Bangkok Declaration on Combating Marine Debris in the ASEAN Reg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5).

223) 문진영 외(2019), p.224; ASEAN 홈페이지(2019), “ASEAN Framework of Action on Marine Debri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6).

224) ASEAN 홈페이지(2019), “15th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he Environment and the 15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5).

225) ASEAN 홈페이지(2019), “Norway funds US\$3 million project in combating marine plastic debris in ASEA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6).

4) 대기환경

한국이 겪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와 연계하여 동남아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범지역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하여 관련 협력체 구축의 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동남아의 대기오염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월경성(transboundary) 대기오염은 특정 국가 문제로 한정되지 않아 다양한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화전 방식의 농지 개간, 팜 오일 플랜테이션 기업 경영 등을 위해 산림이나 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산불이나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대기가 건조하거나 이탄지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압이 어렵고, 초기대응이 미숙하여 국가 차원의 취약점으로 인해 연무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가 나타난다. 대기오염으로 해당 국가와 인근 국가의 경제, 사회, 건강상의 부정적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²²⁶⁾ 이에 아세안 회원국들은 1990년 6월 제4차 환경장관회의에서 ‘쿠알라룸푸르 합의서(Kuala Lumpur Accord)를 채택했고, 월경성 오염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²²⁷⁾ 1995년에는 “월경성 오염에 관한 협력 계획(ACPTP: ASEAN Co-operation Plan on Transboundary Pollution)”을 발표했고, 해당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무기술TF(HTTF: Haze Technical Task Force)’를 창설하고, 1997년 “지역 연무 행동계획(RHAP: Regional Haze Action Plan)”을 수립하였다.²²⁸⁾

인도네시아의 토지개간 등에서 비롯한 화재 및 산불의 연무(Haze)가 인접 국가로 확대되면서 2002년 월경성 연무오염에 관한 아세안협정(AATHP: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이 체결되었

226) 문진영, 김은미, 최은혜(2017), p. 75.

227) ASEAN Cooperation on Environment, “The Kuala Lumpur Accord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ssued by The ASEAN Ministers for the Environment at The Fourth ASEAN Ministers for the Environment Meet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5).

228) 문진영, 김은미, 최은혜(2017), p. 76.

다.229) AATHP 이행을 위해서 회원국의 입법 및 행정 조치 등을 마련 및 시행, 화재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상시 모니터링, 화재 발생 시 관련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운영조직으로 당사국회의(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위원회, 사무국, 기술작업반 등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재원은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마련하는 연무펀드(ATHPCF: ASEA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Control Fund)이다. 당사국회의(COP)가 사무국을 주관하면서 협정과 정보 관리,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전담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가기관별 대표들로 구성된다.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고 회원국 간 협력과 공조를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월경성 연무 오염 통제 협조센터(ACCTHPC: 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Control)'를 구성하고 있다.230) 2016년 8월 제12차 당사국 회의(COP)에서 월경성 연무오염에 관한 아세안협정(AATHP)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협정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로서 <이행 수단을 갖춘 월경성 연무 오염 통제를 위한 아세안 협력 로드맵>을 채택했다.231)

5) 전략환경평가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는 환경 관련 의사결정 초기 단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의 친환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만일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지대한 경우 사업의 취소 등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이 회복되거나 저감될 수 없는 수준이면 사업계획 수립

229) 본 협정으로 월경성 연무 오염에 대한 기본적인 협력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규정을 위반한 국가에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부재하며, 피해보상과 분쟁해결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문진영, 김은미, 최은혜(2017), p. 79.

230) 문진영, 김은미, 최은혜(2017), p. 78.

231) 채영근(2007).

자체를 보류하여 합리적이면서 환경 친화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상기 개념이 확대되면 국가의 중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략환경평가를 수행하여 계획 실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무상원조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1년에 시작하여 2015년까지는 수원국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 정책자문 등 기술용역을 제공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기타 기술협력 유형으로 개도국 역량배양을 위한 워크숍 및 기술전수 사업을 진행하였다.²³²⁾

전략환경평가를 통한 아세안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종합계획 수립 시 환경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아세안은 회원국의 니즈를 종합하고 이를 다양한 경로로 외부에 전달할 수 있는 역할 수행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가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외부에서 종합계획 및 전략환경평가를 수행하기보다는 수원국이 독자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탄이나 캄보디아 사례를 통해 고찰해 보면 해당 국가에서 전략환경평가서를 작성한 경우가 많았지만, 독자적인 노력보다는 서구 전문가가 그들의 시각에서 작성된 전략환경평가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개도국의 환경문제 인식은 서구에서 인식하는 것과 상이하여 생활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가 해당 국가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작성한 전략환경평가서는 실효성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종합계획 수립 시 환경성 강화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방향성 설정과 함께 설정된 방향성을 추진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은 회원국의 환경협력 방안으로 국가종합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평가 활용

232) 사공희 외(2017); 사공희 외(2018); 이병권 외(2019).

을 기획하는 경우 수립된 계획의 실행 단계에서도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 부탄의 사업을 통해 팀부시에서 추진해야 하는 실행계획이 도출되었고, 해당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대부분 개도국이 비슷한 상황이지만 실행계획 추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이다.

예를 들면 부탄에서 우수의 수질 관리를 위해 환경 친화적인 저류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국립공원에서 사냥, 고무채취 등 불법적인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무시 못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도 국립공원종합계획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다. 해당 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국립공원 내 농장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수입원을 창출하고자 했다. 이러한 경우 농장 건립에 따른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국립공원 종합계획 수립 후 실행계획 추진에서도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를 친환경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설계된 계획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협력의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으로 수립된 비전을 달성하는 것이 아세안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방안이다.

전략환경평가를 통한 환경협력은 수원국의 미래 계획의 환경성을 강화하여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단순 전략환경평가를 통한 환경협력은 개도국 지원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올 실질적인 혜택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수원국 미래 개발 및 환경보전 방향을 정하는 계획 단계에서의 협력이 현지 정책과 한국 정책을 동기화하면서 유인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인프라 사업의 실행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환경협력을 통한 한국의 실질적인 혜택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환경협력을 통한 소프트파워 강화²³³⁾

국가 간 협력은 공동이익(common interests)이 존재하거나 창출되어야 한다. 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인접 국가 간에 발생한 환경이슈에 대한 협력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나, 지리적으로 먼 국가들과의 환경협력은 공동이익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아세안지역 간에 공동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인접 국가 간의 생태/환경적 이슈는 협력 또는 갈등이 발생하기 용이한 반면에 한국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아세안 지역과 어떤 공동이익으로 협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이다. 국가 간의 공동이익은 경제적 측면에서부터 사회문화적 측면까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그중에서 환경협력은 중견국 한국에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환경협력은 우리와 같은 중견국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첫째, 환경협력은 인과관계 발생의 시간적 간극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정책이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환경협력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이 보이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원국의 환경 관련 법제도 개선과 보안을 통한 우리 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공동이익 제고를 통해 우리의 글로벌 차원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할 수 있다.

둘째, 글로벌 차원의 환경문제는 소위 남북갈등 즉 선진국과 후진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중재와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중견국은 강대국과 달리 압박이 아닌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통해 외교역량을 강화하려 한다. 한국의 경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서 2011년 개발원조총회 부산 개최, 2013년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 Green

233) 강택구(2014), 제3장을 참조하여 작성.

Climate Fund) 본부 송도 유치 등을 통해 국제회의와 기구를 개최 및 유치하는 등 글로벌 주요 지속가능발전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한·아세안 환경협력은 전 지구적으로 관심사인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이 다. 아세안 역내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우리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호혜적이라고 할 수 있다.²³⁴⁾

셋째, 비대칭협력의 특징을 갖는 환경협력은 약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중견국은 양보할 수 있는 물적 능력을 갖는 동시에 상대적 이익에 둔감하여 약자에게 양보할 수 있다. 특히 아세안의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동시 추진을 위해 우리의 발전 경험의 교류, 정책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이들과 상호 관계 발전을 진행할 수 있다. 환경협력을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은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위상과 소프트파워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의 상호 소통에 기여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촉매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라.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한 인식공동체 확산

환경협력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과 인식공동체 확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동아시아 환경협력의 경우 어떻게(how) 협력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왜(why) 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은 이러한 인식공동체 확산의 노력과 직결되며, 왜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공유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²³⁵⁾ 특히 재정지원이 없어지면 바로 소멸되는 현상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즉 노하우의 지식공유에 그치지 않고 왜 협력을 해야 하는지와 연계되

234) 다음은 강택구 외(2013a), pp. 73~74를 참조하여 작성.

235) 정기용, 강택구(2020), p. 157.

는 인식공유와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된 국가이익’ 창출의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경협력 체제를 갖춘 유럽지역과 비교해 아시아 지역에서 제도화가 부진한 이유는 지역적 특수성, 경제적 요인, 거버넌스의 미확립과 더불어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인식공동체의 형성 부족 혹은 미흡한 역할 때문이라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환경협력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비정부기구를 통한 국제적 연대의 확장을 모색하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들의 협력을 통한 지역적 협력의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인식공동체의 성장과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진다.²³⁶⁾

환경분야의 협력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보다 고려할 사업 영역은 정부 차원의 소통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 확대이다. 정부와 민간차원의 소통과 교류 확대는 신남방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람에 기반을 둔 협력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의 협조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과학적 지식의 축적과 함께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미디어와 시민사회 속에서 해당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대응하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구성원 모두가 환경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한다면 대응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환경적 요소를 추가해서 사람들이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지역 환경협력에 있어 인식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지식공동체와 인식공동체의 확산을 위한 사업들, 예로서 지식공유플랫폼 구축 및 확산, Asian Library와 같은 사업들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²³⁷⁾

236) 정기웅, 강택구(2020), pp. 157~158.

237) 정기웅, 강택구(2020), pp. 158~159.

마. 신남방정책에 지속가능한 환경의 주류화

사람 중심의 접근은 사람이 모든 것에 우위라는 접근은 아니다. 그간 물질적,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협력에서 벗어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로의 전환이 사람 중심접근의 핵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에서 아세안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신남방정책에서는 여전히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협력이 증시되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는 점에서 사회, 환경도 동시에 강조하는 지속가능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하여 제시한 것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이다. 2015년까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프레임워크였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후속 의제로 2015년 9월 채택된 SDGs는 지속가능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할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SDGs는 사회발전, 경제개발, 지속가능한 환경 3대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MDGs보다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기본사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공헌은 SDGs의 기초 하에 추진되면서 국내 SDGs 이행 성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남방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SDGs와 연계한 협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아세안지역에 대한 ODA 지원의 경우 SDGs와의 연계를 통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개발협력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SDGs의 달성 촉진을 ODA 미션 및 비전 등에 반영하는 증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²³⁸⁾

238) 관계부처 합동(2015), p. 3.

바. 한·아세안 환경협력 전담 기제 구축과 전략 마련

앞서 제안한 ‘한·아세안 지속가능발전 정책 대화’ 운영뿐 아니라 한·아세안 환경협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아세안 환경협력센터(가칭)> 주관 기관을 조속히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장기적 협력 전략 마련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아세안 환경협력 전략(가칭)>과 전략 구현을 위해 구체적 사업을 담은 <한·아세안 환경협력 행동계획(가칭)>을 마련한다.

중국은 베이징에 설립한 ‘중·아세안 환경협력센터’가 종합적 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아세안과 환경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아세안과의 전반적인 분야의 이슈를 다루는 <한·아세안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이슈를 전담하는 기구와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²³⁹⁾

<한·아세안 환경협력센터(가칭)>가 구축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아세안 환경협력 전략(가칭)>과 <한·아세안 환경협력 행동계획(가칭)>도 마련해야 한다. 전략과 계획은 현 정부의 성과와 관련 기관들의 당장의 이익에 집착하여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세안과의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아세안 지속가능한 발전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을 마련한다. 한국과 아세안은 경제발전 수준이 다르고 국내 사회 구조적 차이 등과 더불어 환경과 기후 분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커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이해와 인식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 아세안 환경협력 과정 중에 항상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의지와 지속가능한 발전분야에서 공통의 인식에 기반을 둔 역량 강화 등 실천 사업을 담고 있는 중장기 전략과 단계별 실천 계획을 마련한다.

239) 강택구 외(2012), p. 91.

사. 다자적 환경협력체계 구축

한·아세안 환경협력의 기초가 양자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인지하고 다자간 환경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아세안지역에서의 환경협력이 활발하지 않았던 데 대하여 많은 설명이 존재하나 가장 큰 이유로서 아세안의 상호불간섭주의가 지적되었다. 아세안에서 국가 간 이동오염원 이슈에 대한 지역 협력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은 아세안이 오래도록 지켜온 정책적 가치인 상호불간섭 조항(non-interference acts) 때문이며, 이로 인해 아세안은 정치적 영역 내에서 생태 환경적 열화의 문제를 통제하거나 경감시키는데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²⁴⁰⁾ 그러나 Dorman과 Olsen(2019)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면서,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에 명문화된 제도적 체제가 사실은 환경적 도전들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고 강조한다.²⁴¹⁾ 어떠한 주장이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하든지 유념할 것은 아세안과의 효율적인 환경협력을 위해서는 다자적 협력의 틀이 필요하며, 바로 이 점을 파고드는 것이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한국과 아세안 관계 진전을 놓고 볼 때 환경분야에서 양자간 사업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한·아세안 차원의 협력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²⁴²⁾ 1990년 조성된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_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 2017~2020’에 따라 교육, 문화, 환경 3개 분야를 우선 분야로 지정하고 있다. 환경은 생태계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협력

240) Aggarwal and Chow(2010), pp. 262-290; Molthof(2012), “ASEAN and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15); Collins(2016), “Interview with Dr. John Collins on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the Drugs Trade in Southeast A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15); Nguyen(2016), “Norm or Necessity? The Non-Interference Principle in ASEA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15).

241) Dorman and Olsen(2019), “The ASEAN Way Out? Toward Cooperative Environmental Governance in Southeast A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15).

242) 정기용, 강택구(2020), p. 152.

강화를 목표로 한다. 아세안의 경제 성장 및 인구증가, 도시화,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위험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²⁴³⁾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한·아세안 차원의 환경협력을 관리하는 기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지역 환경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환경협력은 여전히 동북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²⁴⁴⁾

표 4-3. 동북아시아 주요 환경협력 체제

기구 명칭		참여국가	설립년도
중앙 정부 수준	아태환경회의의 (Eco Asia: Environment Congress fo Asia and the Pacific)	14개국 +a	1991
	동북아환경협력회의 (NEAC: 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 Co-operation)	한, 중, 일, 러, 몽	1992
	동북아환경협력계획 (NEASPEC: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 집행기구: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공무원 회담 (SOMECEA: Meeting of Senior Officials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한, 북, 중, 일, 러, 몽	1993
	북서태평양환경보전실천계획 (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한, 중, 일, 러	1994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 공동연구 (LTP: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한, 중, 일	1995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TEMM: The Tripartite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Japan and China)	한, 중, 일	1999
	동아시아국가 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 (EANET: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13개국	1998

243) 문진영 외(2019), p. 236.

244) 정기용, 강택구(2019), pp. 94~97.

표 4-3. 계속

기구 명칭		참여국가	설립년도
자치 단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NEAR: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한, 북, 중, 일, 러, 몽	1996
NGO 수준	동아시아대기행동네트워크 (AANE: Atmospheric Action Network in East Asia) 경실련 1997년 기후변화협약까지 사무국 역할/ 이후 환경정의시민 연대에서 연대 업무 담당	-	1995
	한·중·일 환경교육네트워크 (TEEN: Tripartite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	한, 중, 일	2000

자료: 저자 정리.

동북아의 경우, 한국이 참여하는 많은 환경협력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 위치한 동남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자치단체/NGO 수준의 환경협력체제가 상대적으로 희소하다(표 4-3 참조). 이와 같은 환경협력의 동북아 집중 및 증시는 지리적 인접성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환경협력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동북아에 집중되었던 환경협력의 영역을 아세안 국가들로 확장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약한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향후 아세안 정책의 비전과 중점사업을 마련하는 데 있어 환경협력의 확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남방정책에 있어 환경협력을 전담할 수 있는 기제 구축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²⁴⁵⁾ 신남방정책의 구현에 있어 환경협력이 새롭게 부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남방지역 환경협력 협력 체제를 마련한다.

지금까지 환경협력 분야의 경우 한국은 아세안과의 공식적 협의 채널을 갖추고 있지 않다. 협력 채널 미비로 한·아세안 간 교류 촉진을 위한 의제 발굴 등의 논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한·아세안 정상회

245) 정기용, 강택구(2020), pp.152~153.

의 외에 아세안과의 장관급 협의 채널 중 외교·경제 분야만이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을 뿐이다. 차관보급 협의체인 한·아세안 대화(Dialogue)는 기본적으로 정치안보와 경제 전반에 대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를 사전에 준비하는 협의 채널이다. 그 밖에 한·아세안 공동협력위원회도 운영되고 있으나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한국과 아세안 간 개발 협력, 인적자원개발, 문화·학술교류 분야 협력 사업의 이행 및 정책 방향을 협의하는 채널로 기능할 뿐이다.²⁴⁶⁾ 따라서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협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아세안 간에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담보할 수 있는 정례적인 대화 채널 마련이 중요하다.²⁴⁷⁾

한·아세안 간 협의체 구성과 아세안과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소위 〈한·아세안 지속가능발전 협력 포럼〉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 환경부가 주도하여 유관 부서들과 함께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호 간 협력을 포괄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국제적 다자협의체를 구축하여 상설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문진영 외(2019)가 제안한 유용한 아이디어를 일부 수정하여 ‘한·아세안 지속가능발전 정책 대화(가칭)’를 제안한다.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3개의 공동체 중 하나인 사회문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우리와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아세안 사회문화 정책 대화’이다.²⁴⁸⁾ 4개의 작업반 즉 보건의료, 교육, 문화예술, 환경 작업반으로 구성되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환경은 4개의 작업반 중 하나의 작업반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남방정책에서는 환경문제를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이 안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다른 사회문화 분야와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한·아세안 지속가능발전

246) 문진영(2019), p. 240.

247) 정기용, 강택구(2020), p. 160.

248) 문진영 외(2019), p. 241.

정책대화(가칭)'의 독자적 기구로 별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한·아세안 지속가능발전 정책대화(가칭)'의 독자적 기구의 별도 설립은 그간 양자적 수준에 머물던 한국과 아세안 간 환경협력을 다자적 수준의 협력으로 전환하고 확대하는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제5장

K

주요 결론과 향후 연구

1. 주요 결론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1. 주요 결론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우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 대한 협력을 주도하는 <중·아세안 환경협력센터>를 2011년부터 설립하였고, 해당 센터를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과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과의 대부분 인프라 사업에 대해 녹색화로 포장하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중·아세안 환경협력 행동계획의 세부 내용에서도 녹색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하의 정책도 녹색화와 연계한 협력 전략을 발표하고 기구를 출범하고 녹색금융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녹색화 강조는 인프라 위주 협력 사업으로 인해 초래되는 환경오염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우리는 아직 아세안과의 환경분야를 전담하는 기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남방정책에서의 환경 주류화를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 이번 정부에서 마련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에 대해 여전히 정치안보적이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대비되는 상황에서 신남방정책을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점에서 어떠한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숙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편, 아세안에 대한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한·중 협력 추진 가능성과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기초 하에 아세안과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협력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한·중 제3국 시장 진출을 위한 분야의 발굴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국 공동 시장 진출이란 기본적으로 경

제적 관점의 진출이라는 점에서 경제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발굴이 되어야 하며, 한·중뿐 아니라 제3국 시장 즉 아세안을 포함한 3자간 공통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이어야 한다. 상기 내용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분야로는 스마트그린 시티 구축이 있다. 한국은 환경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ICT 기술을 결합하는 등 정책적, 산업적, 기술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교통통신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ICT 기술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출하고 있다. 아세안도 2018년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를 수립하고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 아세안과 협력에서 강조할 것은 환경 주류화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강조는 소프트파워 제고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중견국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외정책에서의 녹색의 강조는 중요하다. 그러나 현 신남방정책의 주요 정책에 환경의 고려가 전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도 않아 녹색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심지어 신남방정책 추진체인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도 명칭에서 보이듯이 경제적 측면에 접근하고 있다. 향후 신남방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상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을 위해 SDGs 목표를 신남방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의 주류화를 도모한다. 예를 들면, 신남방정책의 기존 비전을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통한 평화공동체 건설’로 수정 보완하는 동시에 신남방정책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연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그린뉴딜과 연계하여 ‘K-Pop’과 같이 ‘K-녹색’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브랜드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한·중협력과 우리의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진행 과정에서 이번 해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해외 현지조사 등이 여의치 않아 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 회의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현지 방문을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연구는 아세안 지역에 대한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의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협력 전략을 제시하였다면 추후 연구에서는 본 과제 전략 하에 아세안을 포함하는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세부사업 개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세부사업 개발 과정에 있어 아세안 개별국가별로 사업 개발도 필요하지만, 메콩강 유역 국가/비메콩강 유역 국가의 수요를 반영한 방안 도출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상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추후 과제 진행 과정에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지역과 활발한 협력을 구축해온 일본과 아세안과의 협력 현황 분석도 보완이 필요하다. 일본은 역내 가장 적극적으로 아세안과 환경협력을 추구해왔다. 아세안과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역외 국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한·중·일과 아세안 간의 환경협력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향후에는 이번 연구에서 수행한 중국과 아세안뿐 아니라 향후 일본과 아세안 간의 환경협력 현황을 보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강택구. 2016. 「중국발 대기오염 대응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세계와 도시』, 제13호.
- . 2020. 「中 일대일로를 연계한 한아세안 환경협력 모색」. CSF 전문가오피니언. 3월 26일.
- 강택구 외. 2012. 『중국의 對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2013a. 『한·아세안 환경협력 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2013b. 『시진핑시대 중국의 역내 환경협력 전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2014. 『對ASEAN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중견국 한국의 역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곽성일. 2018. 「신남방정책의 추진과 중소기업의 아세안시장 진출 전략」. 트레이드 인사이트. 2018-8호.
- 김동수. 2019.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중국의 대응」. 중국산업경제브리프 5호. 산업연구원.
- 김태윤, 안동환, 지성태, 윤태연, Phumsith Mahasuweerachai, 이용은, 김범석, 김나리. 2019.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전략연구 19-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호석, 박준현, 박준희. 2019. 『캄보디아의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0. 『권역별 진출전략 : 동남아』. KOTRA자료 20-026.
- 문진영, 나승권, 이재호, 이성희, 김은미. 2019.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문진영, 김은미, 최은혜. 2017.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사공희 외. 2017. 『환경평가 국제협력교류사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2018. 『환경평가 국제협력교류사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성백웅, 박승혁, 유승진, 김현주, 조의윤. 2018. 『신남방정책 기본 추진전략 연구』. (사)한국무역협회.
- 양평섭, 박영호, 이철원, 정재완, 김진오, 나수엽, 이효진, 조영관. 2018.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윤아, 신민이, 김미림, 이신애. 2017.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부. 2019. 『아세안 개황』.
- 유애라. 2019. 「ASEAN의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현황과 특징」. KIEP 기초자료. 6월 26일.
- 윤진표, 김기환, 정범모, 고우정, 김유진. 2017.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인식(요약본)』. 한·아세안센터.
- 이병국 외. 2019.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시범사업 연구 3: 환경·수자원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 2019. 『환경평가 국제협력교류사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현태, 김준영. 2016. 「AIIB 발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6 No. 25.
- 이형근, 나수엽. 2019. 『한·중·일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 비교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혜정, 박지범. 2013. 「인간안보: 국제규범의 창안, 변형과 확산」. 『국제·지역연구』. 제22권 1호.
- 전가림. 2020. 「중국의 대ASEAN 대외원조와 환경협력 지원 현황 분석」. 전문가 원고.
- 정기웅, 강택구. 2019.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인식공동체의 확장과 환경교육」. 『글로벌교육연구』. 제11집 4호.
- . 2020. 「신남방정책과 대(對)ASEAN 환경협력: 전략의 모색과 교육의 역할」. 『글로벌교육연구』. 제12집 3호.
- 조대현. 2019. 「한-아세안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신남방정책 추진 경과와 방향」. POSRI 이슈리포트. 포스코경영연구원.
- 채영근. 2007. 「동아시아에서의 초국경환경오염에 대한 국제협력노력: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29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 한국무역협회. 2019. 「신남방 시장보고서: 한-아세안 관계 및 경제협력 현황」.

- KITA Market Report. 11월 15일.
- 한국환경산업협회. 2006. 『환경협력강화를 위한 국가별 환경기초자료 조사(인도네시아)』. 환경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환경협력강화를 위한 국가별 환경기초자료 조사(태국)』.
- 국립생태원 전문가 회의(2020년 9월 2일).
- Baylis, John, Steve Smith, and Patricia Owens. 2008.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4th. Oxford University Press. 번역: 하영선, 김범수, 김상배, 김석우, 김준석, 김치욱, 남궁곤, 마상윤, 민병일, 신기영, 신옥희, 이상현, 이왕휘, 이혜정, 장인성, 전재성, 조동준, 황지환. 2009.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영문자료]

- Aggarwal, Vinod K., and Chow, Jonathan T. 2010. “The perils of consensus: how ASEAN’s meta-regime undermines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7(2). 262-290.
- Ben, Yishay, Ariel, Bradley Parks, Daniel Runfola and Rachel Trichler. 2016. “Forest Cover Impacts of Chinese Development Projects in Ecologically Sensitive Areas.” AIDDATA Working Paper 32. AIDDATA.
- Cabinet Office Japan. 2018. White paper, Disaster Management in Japan, 2018.
- Centre for Liveable Cities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ingapore. 2018. ASEAN Smart Cities Network Ebook, Singapore.
- Ciorciari, John D. 2015. “A Chinese Model for Patron-Client Relations? The Sino-Cambodian Partnership.”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5 No. 2.
- Coenen, Johanna, Simon Bager, Patrick Meyfroidt, Jens Newig, Edward Challies. 2020. “Environmental Governance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Environmental Policy and Governance*.
- Collins, John. 2016. “Interview with Dr. John Collins on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the Drugs Trade in Southeast Asia.” LSESU ASEAN

- Society. <https://llesuasean.wordpress.com/author/llesuasean/>(검색일: 2020. 8. 15).
- Deng, Yong. 2008. *China's Struggle for Status: The Realign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llagher Kelly Sims and Qi, Qi. 2018. Policies governing China's overseas development finance: implications for climate change.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Resource Policy, No. 16.
- Gardner, Sarah S. 1995. "Major Themes in the Study of Grassroots Environmentalism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Third World Study*, Vol. 12 No. 2.
- Li, Peiyue, Hui Qian, and Wangfang Zhou. 2017. "Finding harmony between the environment and humanity: An introduction to the thematic issue of the silk road." *Environmental Earth Sciences*, 76(105).
- Liu, Ailan and Bo Tang. 2017. "US and China Aid to Africa: Impact on the Donor-Recipient Trade Relations." *China Economic Review*, Vol. 48.
- Liu, Nengye. 2018. "Will China build a green belt and road in the arctic?" *The Review of European Comparative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 27 No. 1.
- Losos, Elizabeth, Alexander Pfaff, Lydia Olander, Sara Mason, Seth Morgan. 2019. "Reducing Environmental Risks from Belt and Road Initiative Investments i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8718, World Bank Group.
- Mol, Arthure P.J. 2011. "China's ascent and Africa's environment." *Global Environmental Change*, Vol. 21 No. 3.
- Nguyen, Tram-Anh. 2016. "Norm or Necessity? The Non-Interference Principle in ASEAN." *Cornell International Affairs Review*, 9(1). <http://www.inquiriesjournal.com/a?id=1318>(검색일: 2020. 8. 15).
- Nowak, Wioletta. 2015. "China's Development Aid Strategies." *Chinese Business Review*, Vol. 14, No. 4.
- Ren, Peng, Liu Chang and Zhang Liwen. 2017. "China's Involvement in Coal-Fired Power Projects along the Belt and Road." Global Environmental Institute. (May).

- Ren, Peng, Liwen Zhang, Rong Zhu, Jingwei Zhang. 2017. "How China's Policy Banks can support Sustainable Foreign Investment." Global Environ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 Tang, Siew Mun, Moe Thuzar, Hoang Thi Ha, Termsak Chalermphanupap, Pham Thi Phuong Thao, and Anuthida Saelaow Qian. 2019.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19 Survey Report. ISEAS-Yusof Ishak Institute.
- Teo, Hoong C, Alex M. Lechner, Grant W. Walton, Faith K. S. Chan, Ali Cheshmehzangi, May. Tan-Mullins, Hing K. Chan, Troy Sternberg and Ahimsa Campos-Arceiz. 2019. "Environmental impacts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unde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Environments*, 6, 72.
- UNDP, UCLG, UN-HABITAT. 2016. Roadmap for Localizing the SDG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at Subnational Level.
- Zhou, Lihuan. 2018. "Moving the Green Belt and Road Initiative: From Words to Actions." World Resources Institute Working Paper.

[중문자료]

- 郭楚. 2020. 「中国与东盟在“一带一路”倡议框架下的环境合作研究」. 전문가원고.
-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 2019. 『第三方市场合作指南和案例』. 8月 20日.
- 刘虹飞, 刘瑜, 田广, 寇南南. 2019. 「浅论“一带一路”与人类命运共同体建设」. 『宏观经济管理』. 第8期, pp. 86-90.
- 潘一宁. 2011. 『非传统安全与中国—东南亚国家的安全关系——以澜沧江—湄公河次区域水资源开发问题为例』. 东南亚研究.
- 中国-东盟环境保护合作中心. 2018. 『“一带一路”生态环境蓝皮书2018: 沿线重点国家生态环境状况报告』. 中国环境出版集团.

[일문자료]

- 日本國際問題研究所. 2012. 『中國の對外援助』. 日本國際問題研究所.

[언론/보도자료]

- 「[전문]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 20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1월 27일). <http://www.korea.kr/news/policy>

- NewsView.do?newsId=148866946(검색일: 2020. 6. 9).
-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출범...21개 민간단체 참여」. 2019. 『연합뉴스』. (1월 2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3118100003>(검색일: 2020. 5. 14).
- 「동남아 스마트시티 둘러싼 美中 경쟁, 누가 웃을까?」. 2019. 『조선일보』. (11월 25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5/2019112501996.html(검색일: 2020. 10. 7).
- 「베트남 환경산업 시장 개방 활짝」. 2017. 『환경데일리』. (3월 29일). <http://ec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594009903357>(검색일: 2020. 6. 4).
- 「신남방정책, 한반도 평화시대 대비」. 2018. *Economy Insight*, (8월 1일).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9>.
- 「제10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담, 20일 서울 개최」. 2013. 『에너지데일리』. (6월 3일).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96>(검색일: 2020. 6. 9).
-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20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7월 29일).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982746>(검색일: 2020. 6. 9).
- 「제8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서울서 개최」. 2011. 『아시아경제』. (4월 18일). <http://cm.asiae.co.kr/article/2011041811380840737>(검색일: 2020. 6. 9).
- 「韓 '유라시아 이니셔티브'·中 '일대일로' 함께 추진한다」. 2015. 『연합뉴스』. (10월 3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51031044300002?site=mapping_related(검색일: 2020. 9. 17).
- 「한-베트남, 생물다양성 등 환경협력 확대」. 2014. 『연합뉴스』. (10월 27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210747>(검색일: 2020. 6. 3).
- 「환경: 한국, '그린뉴딜' 외치면서 해외 석탄사업 투자 왜?」. 2020. 『BBC 코리아』. (9월 17일).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4186559>(검색일: 2020. 8. 26).
- 관계부처 합동. 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요약본」.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2-1호). 11월.
- . 2016a.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8-1호), 12월.

- . 2016b.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15개국)». 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8-1호). 12월.
- . 2020a.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3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4-1호), 1월.
- . 2020b. 「5개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제3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4-3호), 1월.
- 국토교통부. 2019. 「한·아세안 10개국, 스마트시티 협력 본궤도 올린다». 보도자료. (11월 25일).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596>(검색일: 2020. 9. 26).
- 기획재정부. 2018.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 주요 결과: 4대 협력방향에 대한 합의 도출». 보도자료. (2월 2일).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5542&menuNo=4010100(검색일: 2020. 5. 6).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보도자료. 2018.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11월 8일). http://www.nsp.go.kr/download.do?filePath=K5119mUwWz3OtzC7tSQvvhJNQ_2BAjp9GSfn_2B_2FMEljzvV_2BdwvRwwWRYpU1uRoybqKiPuKHuKtzUyJT_0A_2BD2HPfXYoA_3D_3D&fileName=cO_2F51YvL_2BfhXWOPzvBClkWjDZSh07BH7wfMf2Iiom1TMj9tDzPpG0ro9_2Ba0YVgm0u055kCpmlZt4_0AvxsH_2B0jfq_3D_3D(검색일: 2020. 5. 15).
- . 2019.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4월 30일). http://www.nsp.go.kr/download.do?filePath=K5119mUwWz3OtzC7tSQvvhJNQ_2BAjp9GSfn_2B_2FMEljzvWQGSLtgrNlpNj0J_2BdicF88r2DL3Ar1IERa_0AyHfRpHyW9A_3D_3D&fileName=fvrgCQIiDIFmLnW_2FipxDVngGpbZQCbBUdo7AEldY_2B48A8fn0EbyXWEJpRPB32NSbM4yPfndoACv6_0AkcIsePsq4kURBchkcUxV_2ByqfeyM1yKI_3D(검색일: 2020. 5. 15).
- . 2019. 「신남방 특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아세안과의 스마트시티 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 (5월 13일). http://www.nsp.go.kr/news/news_view.do?board_id=2&post_id=121(검색일: 2020. 9. 23).
- . 2019.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7월 16일). http://www.nsp.go.kr/download.do?filePath=K5119mUwWz3OtzC7tSQvvhJNQ_2BAjp9GSfn_2B_2FMEljzvWPK9b_2BB6N6M43KZinnzXJU

6NGnzvLhDCcx_0AUG7XlRHRrA_3D_3D&fileName=x5n1RuBbx
WJYVM_2FFn31oLBovMao3f1kJRlw7oV_2BsiG4r3IuA3hdiVf6Nhj
C9uTTH(검색일: 2020. 5. 15).

_____. 2020.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12월 20일). http://www.nsp.go.kr/download.do?filePath=K51I9mUwWz3OtzC7tSQvvhJNQ_2BAjp9GSfn_2B_2FMEljzvUM0ORsSb2f8jND18mrdf2irXYDPDt31nDN_0A0uDvGOywwg_3D_3D&fileName=UisaiehFUaI60qWkS69PiupHhHEA5_2FDWeA2X_2FeA25owvYVNq9TQc6Kgfc2DLYiB827TZi2sGDUbd_0AOgJZwMh1nQ_3D_3D(검색일: 2020. 5. 15).

_____. 2020. 「제5차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4월 10일). http://www.nsp.go.kr/download.do?filePath=K51I9mUwWz3OtzC7tSQvvhJNQ_2BAjp9GSfn_2B_2FMEljzvU4tl6R0Ylrab9ru6_2FUQc5xlezURGhjaNgx_0AmQuqg8SXoA_3D_3D&fileName=VcxtT4Zw3IaAYAnK5UhtOOQ3YTVNmh_2BpM7NaFPVIQTytaG_2BYAPubx0LY_2F20gH2jkuEj5JbGgyUN8t_0ApPSwLhcf9m_2Bikg5N40wr_2BaDpQMEIPrI_3D(검색일: 2020. 11. 1).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 2011.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2011)」. (12월 22일). http://www.mofa.go.kr/www/brd/m_3926/view.do?seq=34010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검색일: 2020. 12. 27).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 2013. 「3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12월 10일). http://www.mofa.go.kr/www/brd/m_3926/view.do?seq=36202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검색일: 2020. 6. 9).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 2014.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7월 29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982746>(검색일: 2020. 6. 9).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 2015. 「제5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8월 6일).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5586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검색일: 2020. 6. 9).

-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 2016. 「제6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7월 25일).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108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09(검색일: 2020. 6. 9).
-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 2017.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부상 중인 메콩 국가들과 함께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 나간다: 제7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9월 1일).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646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검색일: 2020. 6. 9).
-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 2019. 「2019 한-메콩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보도자료. (6월 14일). (검색일: 2020. 6. 9).
- 외교부. 2011.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2011)」.
- 외교통상부 온라인 보도자료. 2012.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결과」. (7월 10일).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838779&pageIndex=3484&repCodeType=&repCode=&startDate=2008-02-29&2019-07-01&srchWord=>(검색일: 2020. 6. 9).
- _____. 2015. 「제5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8월 6일).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5586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검색일: 2020. 6. 9).
- _____. 2016. 「제6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7월 25일).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108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09(검색일: 2020. 6. 9).
- 환경부 온라인 보도자료. 2012. 「제9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담 개최 및 베트남 총리예방」. (5월 7일). <http://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nZznRZ7fUkvolkJnZIaKE-o9.mehome1?pagerOffset=496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orgCd=&boardId=181368&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검색일: 2020. 6. 3).

- . 2015. 「한-베트남 환경장관 회담...양국 환경협력 증진 논의」. (10월 20일).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070>(검색일: 2020. 6. 4).
- . 2018. 「한-베트남 환경장관, 2019년도 환경 협력 과제 확정」. (12월 19일).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930850&menuId=286>(검색일: 2020. 6. 4).
- 환경부. 2019. 「한-미안파, 환경협력 강화...국내기업 진출 지원」. (12월 5일). <http://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67222&pkgId=49500735&pkgSubId=&pageIndex=1>(검색일: 2020. 6. 10).
- . 2010. 「ASEAN/EAS 환경장관회의 개최」. (11월 13일).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seGNN5bJOf3-zqOCcb6VUy+Q.mehome1?pagerOffset=196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4&orgCd=&boardId=175182&boardMasterId=108&boardCategoryId=&decorator>(검색일: 2020. 6. 4).
- “Burma dam: Why Myitsone plan is being halted.” 2011. *BBC*, (September 30). <https://www.bbc.com/news/world-asia-pacific-15123833>(검색일: 2020. 8. 27).
- “China is massively betting on coal outside its borders—even as investment falls globally.” 2018. *CNBC*, (April 6). <https://www.cnbc.com/2018/04/06/china-is-massively-betting-on-coal-outside-its-shores—even-as-investment-falls-globally.html>(검색일: 2020. 5. 6).
- “China, ASEAN to enhance tech ties under BRI framework.” 2020. *Global Times*. (August. 24).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198689.shtml>(검색일: 2020. 9. 23).
- “China’s Belt and Road urged to take green route.” 2020. *Financial Times*, (June 5). <https://www.ft.com/content/e00426f4-8ead-11ea-af59-5283fc4c0cb0>(검색일: 2020. 6. 10).
- 「“一带一路”可持续发展新风向：绿色投资项目总值已超千亿美元资金需求达12万亿美元」 2020. 『21世纪经济报道』. (1月 3日). <https://m.21jingji.com/article/20200103/7852023137e11413b9fb05f5c644328a.html>(검색일: 2020. 8. 27).
- 「“一带一路”清洁和可再生能源项目总值已达1049.5亿美元」. 2020. 『21世纪经济报道』. (1月 6日). <https://m.21jingji.com/article/20200106/herald/>

- 84deb5e8a6bbec848ca937a50be04384.html(검색일: 2020. 8. 27).
- 「2013年中国—东盟环境合作论坛举办」. 2013. 『中国水网』. (9月 5日). <http://www.h2o-china.com/news/120679.html>(검색일: 2020. 6. 10).
- 「2014中国—东盟环境合作论坛在南宁举办」. 2014. 『人民网』. (9月 17日). <http://world.people.com.cn/n/2014/0917/c1002-25681222.html>(검색일: 2020. 6. 10).
- 「2015中国—东盟环境合作论坛在南宁举行」. 2015. 『人民网』. (9月 16日). <http://gx.people.com.cn/n/2015/0916/c179430-26408938.html>(검색일: 2020. 6. 11).
- 「2018年中国—东盟生态环保合作周系列活动在京举行:推动中国与东盟国家环保交流与合作」. 2018. 『中国环境报』. (5月 11日). http://epaper.cenews.com.cn/html/2018-05/11/content_72874.htm(검색일: 2020. 6. 11).
- 「共建“一带一路”倡议:进展、贡献与展望」. 2019. 『人民日报海外版』. 第04版. (4月 23日).
- 「澜湄合作第二次领导人会议发表《金边宣言》」. 2018. 『新华社』. (1月 11日). http://www.gov.cn/xinwen/2018-01/11/content_5255385.htm(검색일: 2020. 6. 9).
- 「澜沧江—湄公河合作首次领导人会议三亚宣言(全文)」. 2016. 『新华网』. (3月 23日). http://www.xinhuanet.com//world/2016-03/23/c_1118422397.htm(검색일: 2020. 6. 15).
- 「澜沧江—湄公河合作五年行动计划(2018-2022)」. 2018. 『新华网』. (1月 11日). http://www.xinhuanet.com/world/2018-01/11/c_1122240868.htm(검색일: 2020. 6. 15).
- 「报告精读 | 澜湄合作蓝皮书:澜沧江—湄公河合作发展报告(2018)」. 2019. 『搜狐』. (3月 19日). https://www.sohu.com/a/302370117_186085(검색일: 2020. 8. 20).
- 「习近平在“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开幕式上的演讲」. 2017. 『新华社』. (5月 14日).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7-05/14/c_1120969677.htm(검색일: 2020. 9. 30).
- 「习近平在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开幕式上的主旨演讲(全文)」. 2019. 『新华网』. (4月 26日).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9-04/26/c_1124420187.htm(검색일: 2020. 6. 10).
- 「习近平主席特别代表王毅出席联合国气候行动峰会」. 2019. 『新华网』. (9月 24日).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9/24/c_1125030497.htm

- (검색일: 2020. 9. 7).
- 「习近平出席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开幕式并发表主旨演讲」. 2019. 『新华网』. (4月 26日).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9-04/26/c_1124420373.htm(검색일: 2020. 9. 30).
- 「十五大政治報告」. 1997. 『人民日報』. (9月 13日)
- 「王毅：建设更为紧密的中国 - 东盟命运共同体」. 2014. 『新华网』. (8月 9日), http://www.xinhuanet.com/world/2014-08/09/c_1112006941.htm(검색일: 2020. 8. 20).
- 「全面深化部省环保合作, 加快推进广东绿色发展 陈吉宁在广东调研并出席共建“一带一路”环境技术交流与转移中心(深圳)框架协议签字仪式」. 2016. 『新华网』. (4月 8日).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6-04/18/c_128905665.htm(검색일: 2020. 9. 20).
- 「赵洪：“一带一路”建设与中国—亚细安绿色能源合作」. 2019. 『联合早报』. (12月 28日). <https://beltandroad.zaobao.com/beltandroad/analysis/story20191228-1016632>(검색일: 2020. 8. 27).
- 「中国—东盟环境合作战略(2016-2020) 在南宁发布」. 2016. 『中国新闻网』. (9月 10日). <http://www.chinanews.com/gn/2016/09-10/8000500.shtml> (검색일: 2020. 9. 30).
- 「中国环保企业走出去正当时」. 2012. 『中国环境網』. (9月 23日). http://www.cenews.com.cn/xwzx/cyqc/cyqs/201209/t20120923_729646.html (검색일: 2020. 9. 7).
- 「中日52项第三国合作协议清单公布 超过金额180亿美元」. 2018. 『新浪财经』. (10月 26日). <http://finance.sina.com.cn/china/2018-10-26/doc-ihmrxkzx3941063.shtml>(검색일: 2020. 9. 17).
- 「推动多元贸易 分散外部风险: 韩国全面扩大与东盟合作」. 2019. 『中国经济网』. (12月 13日). http://paper.ce.cn/jjrb/html/2019-12/13/content_408211.htm(검색일: 2020. 8. 20).
- 「推动次区域合作拓展深化 打造水资源合作新亮点」. 2020. 『中国发展门户网』. (8月 26日). http://cn.chinagate.cn/environment/2020-08/26/content_76637475.htm(검색일: 2020. 8. 20).
- 「推动清洁能源发展的重大机遇」. 2019. 『人民日报』. (7月 18日).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9-07/18/nw.D110000renmrb_20190718_2-03.htm(검색일: 2020. 9. 7).

[온라인/DB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新)남방정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887>(검색일: 2020. 5. 8).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 <http://nsp.go.kr/policy/policy04Page.do>(검색일: 2020. 5. 14).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http://nsp.go.kr/policy/policy05Page.do>(검색일: 2020. 5. 14).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 주요정책」. <http://nsp.go.kr/policy/policy02Page.do>(검색일: 2020. 5. 13).
- 외교부 홈페이지. 2019.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공동언론발표」. (11월 27일). http://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68455 (검색일: 2020. 6. 9).
- 외교부.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http://www.mofa.go.kr/www/wpge/m_20373/contents.do(검색일: 2020. 5. 7).
-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신남방정책」. http://overseas.mofa.go.kr/asean-ko/wpge/m_21538/contents.do(검색일: 2020. 5. 8).
- 청와대 홈페이지. 2020.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문」.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606>(검색일: 2020. 6. 22).
- 한국중부발전. 「해외화력발전」. <https://www.komipo.co.kr/fr/content/45/main.do?mnCd=FN021402>(검색일: 2020. 9. 17).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4. 「ASEAN/EAS 환경장관회의」. (12월 1일).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313&subjectTypeId=07&pageFlag=C&sitePage=1-2-2>(검색일: 2020. 6. 4).
- “China’s Infrastructure Investment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2020. *Clingendael Institute*, (Jun 24). <https://www.clingendael.org/publication/chinas-infrastructure-investment-environmental-sustainability>(검색일: 2020. 6. 10).
- “Tracking China: AidData Sheds Light on Chinese Foreign AID.” 2020. *W&M Alumni Magazine*, (June 8). <https://magazine.wm.edu/issue/2020-spring/tracking-china.php?ref=aiddata>(검색일: 2020. 9. 7).
- 「“一带一路”倡议下中国对老挝投资风险分析」. 2020. 『“一带一路”生态环保大数据服务平台』. (2月 25日). <http://www.greenbr.org.cn//dtxx/gnxw//8a7b>

- eee86d705a3301707a55ac600ae5.html(검색일: 2020. 8. 27).
- 「中国贯彻“清洁能源行动”引领全球可再生能源发展」. 2019. 太阳能光伏网. (8月 20日). <https://solar.ofweek.com/2019-08/ART-260006-8420-30403239.html>(검색일: 2020. 9. 7).
- AIDDATA Research and Evaluation Unit. 2018. “Data Package for Aid Data’s Geocoded Global Chinese Official Finance Dataset(Geocoding Methodology Version 2.0.2).” <https://www.aiddata.org/publications/geocoding-methodology-version-2-0/>(검색일: 2020. 8. 20).
- AIDDATA 홈페이지. “AidData’s Geocoded Global Chinese Official Finance, Version 1.1.1.” <https://www.aiddata.org/data/geocoded-chinese-global-official-finance-dataset/>(검색일: 2020. 8. 20).
- AIDDATA 홈페이지. “China’s Public Diplomacy Dashboard.” http://china-dash-board.aiddata.org/#?aggregate_type=sum&countries=28%2C29%2C30%2C31%2C32%2C33%2C7%2C2%2C5%2C23%2C6%2C11%2C10%2C9%2C16%2C14%2C27%2C25%2C17%2C19%2C22%2C3%2C4%2C24%2C26%2C12%2C13%2C15%2C21%2C8%2C18%2C20%2C34%2C35%2C36%2C37%2C38%2C39%2C40&data_type=annual&diplomacy_type=21&max_year=2017&min_year=2000&per_capita_type=absolute§ors=1%2C2%2C3%2C4%2C5&selected_view=map(검색일: 2020. 8. 20).
- AIDDATA. 2017. “China’s Global Development Footprint: The clearest look yet at Chinese official finance worldwide.” <https://www.aiddata.org/china-official-finance/>(검색일: 2020. 8. 20).
- AIIB. 2002. “Our Project.” <https://www.aiib.org/en/projects/list/index.html?status=Approved>(검색일: 2020. 9. 20).
- ASEAN Cooperation on Environment. “ASEAN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https://environment.asean.org/awgcc/>(검색일: 2020. 10. 5).
- ASEAN Cooperation on Environment. “The Kuala Lumpur Accord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ssued by The ASEAN Ministers for the Environment at The Fourth ASEAN Ministers for the Environment Meeting.” <https://environment.asean.org/the-kuala-lumpur-accord-on-environment-and-development-issued-by-the-asean-ministers-for-the-environment-at-the-fourth-asean-ministers-for-the-environment-meeting/>(검색일: 2020. 10. 5).

- ASEAN Cooperation on Environment. 2018. "Promoting Cross-Sectoral and Multi-Partner Coordination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s in ASEAN." <https://environment.asean.org/media-release-promoting-cross-sectoral-and-multi-partner-coordination-in-addressing-climate-change-issues-in-asean/>(검색일: 2020. 10. 5).
- ASEAN 홈페이지. "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 Vientiane, 26 July 2005." https://asean.org/?static_post=asean-agreement-on-disaster-management-and-emergency-response-vientiane-26-july-2005-3(검색일: 2020. 10. 5).
- ASEAN 홈페이지.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Disaster Management -Overview." <https://asean.org/asean-socio-cultural/asean-ministerial-meeting-on-disaster-management-ammdm/overview/>(검색일: 2020. 10. 5).
- ASEAN 홈페이지. "ASEAN Smart Cities Network." <https://asean.org/asean/asean-smart-cities-network/>(검색일: 2020. 9. 26).
- ASEAN 홈페이지. "ASEAN-Republic of Korea Joint Vision Statement for Peace, Prosperity and Partnership." <https://asean.org/storage/2019/11/The-ASEAN-ROK-Joint-Vision-Statement-Final-formatted-4-November-201....pdf>(검색일: 2020. 5. 27).
- ASEAN 홈페이지. "Chairman's Statement of the 13th ASEAN-Republic of Korea (ROK) Summit." 2010. https://asean.org/?static_post=chairman-s-statement-of-the-13th-asean-republic-of-korea-rok-summit (검색일: 2020. 5. 26).
- ASEAN 홈페이지. "Chairman's Statement of the 14th ASEAN-Republic of Korea Summit." <https://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republic-of-korea-rok/>(검색일: 2020. 5. 26).
- ASEAN 홈페이지. "Chairman's Statement of the 15th ASEAN-Republic of Korea Summit : Phnom Penh, Cambodia." <https://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republic-of-korea-rok/>(검색일: 2020. 5. 26).
- ASEAN 홈페이지. "Chairman's Statement of The 17th ASEAN-Republic of Korea Summit." <https://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republic-of-korea-rok/>(검색일: 2020. 5. 26).
- ASEAN 홈페이지. "Chairman's Statement of The 18th ASEAN-Republic of Korea Summit. 2016." <https://asean.org/chairmans-statement->

- of-the-18th-asean-republic-of-korea-summit/(검색일: 2020. 5. 26).
 ASEAN 홈페이지. “Chairman’s Statement of The 19th ASEAN-Republic of Korea Summit ‘Partnering for Change, Engaging the World’.”
<https://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republic-of-korea-rok/>
 (검색일: 2020. 5. 27).
- ASEAN 홈페이지. “Chairman’s Statement of the 20th ASEAN-Republic of Korea Summit.” 2018. <https://asean.org/storage/2018/11/ASEANROKSummitChairmanStatementFinal.pdf>(검색일: 2020. 5. 27).
- ASEAN 홈페이지. “Co-Chair’s Statement of the 2019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for People’” <https://asean.org/co-chairs-statement-2019-asean-republic-korea-commemorative-summit/>(검색일: 2020. 5. 27).
- ASEAN 홈페이지. “Joint Statement of the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on the 25th Anniversary of the ASEAN-ROK Dialogue Relations: Our Future Vision of ASEAN-ROK Strategic Partnership ‘Building Trust, Bringing Happiness’.” <https://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republic-of-korea-rok/>(검색일: 2020. 5. 26).
- ASEAN 홈페이지. “Overview of ASEAN-Republic of Korea Dialogue Relations.” 2019. <https://asean.org/storage/2012/05/Overview-ASEAN-ROK-Dialogue-Relations-as-of-August-2019.pdf>(검색일: 2020. 6. 11).
- ASEAN 홈페이지. 2016. “ASEAN Declaration on One ASEAN, One Response: ASEAN Responding to Disasters as One in the Region and Outside the Region,” <https://asean.org/storage/2016/09/Declaration-on-One-ASEAN-One-Response.pdf>(검색일: 2020. 10. 5).
- ASEAN 홈페이지. 2019. “15th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he Environment and the 15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https://asean.org/15th-asean-ministerial-meeting-environment-15th-meeting-conference-parties-asean-agreement-transboundary-haze-pollution/>
 (검색일: 2020. 10. 5).
- ASEAN 홈페이지. 2019. “ASEAN Framework of Action on Marine Debris.” <https://asean.org/asean-framework-action-marine-debris/>(검색일: 2020. 10. 6).
- ASEAN 홈페이지. 2019. “ASEAN, EU to enhance cooperation on protection

- of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https://asean.org/asean-eu-enhance-cooperation-protection-environment-climate-change/>(검색일: 2020. 10. 5).
- ASEAN 홈페이지. 2019. “ASEAN-China Leaders’ Statement on Smart City Cooperation Initiative.” <https://asean.org/storage/2019/11/Final-ASEAN-China-Leaders-Statement-on-Smart-City-Cooperation-Initiative-2.pdf>(검색일: 2020. 9. 23).
- ASEAN 홈페이지. 2019. “Bangkok Declaration on Combating Marine Debris in the ASEAN Region.” <https://asean.org/storage/2019/06/2.-Bangkok-Declaration-on-Combating-Marine-Debris-in-ASEAN-Region-FINAL.pdf>(검색일: 2020. 10. 5).
- ASEAN 홈페이지. 2019. “Norway funds US\$3 million project in combating marine plastic debris in ASEAN.” <https://asean.org/norway-funds-us3-million-project-combating-marine-plastic-debris-asean/?highlight=Marine%20Debris>(검색일: 2020. 10. 6).
- ASEAN 홈페이지. 2020. “ASEAN Senior Officials for Disaster Management discuss regional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strategies.” <https://asean.org/asean-senior-officials-disaster-management-discuss-regional-disaster-management-policies-strategies/?highlight=AADMER%20Work%20Programme%202021>(검색일: 2020. 10. 6).
- ASEAN 홈페이지. “Chairman’s Statement of the 16th ASEAN-Republic of Korea (ROK) Summit : Bandar Seri Begawan, Brunei Darussalam.” <https://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republic-of-korea-rok/>(검색일: 2020. 5. 26).
- ASEAN-Korea Cooperation Fund. 2017. “New Framework for the ASEAN-ROK Cooperation Fund (AKCF) 2017-2020.” (Feb. 28), [https://www.aseanrofund.com/lib/upload/files/resources/6_New-Framework-for-AKCF-2017-2020_\(1\).pdf](https://www.aseanrofund.com/lib/upload/files/resources/6_New-Framework-for-AKCF-2017-2020_(1).pdf)(검색일: 2020. 8. 26).
- Belt and Road Portal. 2017a. “Guidance on promoting green belt and road.” (May 8). <https://eng.yidaiyilu.gov.cn/zchj/qwfb/12479.htm>(검색일: 2020. 9. 7).
- Belt and Road Portal. 2017b. “The belt and road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plan.” (May 14). <https://eng.yidaiyilu.gov.cn/zchj/qwfb/13392.htm>(검색일: 2020. 8. 27-9. 7).

- CAEISP 홈페이지.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um 2019.”
http://www.caeisp.org.cn/sites/default/files/2.experts_view.pdf
 (검색일: 2020. 6. 11).
- CAEISP 홈페이지. 「中国—东盟环境保护合作中心, 平台背景」. <http://caeisp.org.cn/zh-hans/node/152>(검색일: 2020. 8. 20).
- CAEISP 홈페이지. 「中国—东盟环境合作国家联络员会议」. <http://caeisp.org.cn/zh-hans/zhong-guo-dong-meng-huan-jing-he-zuo-guo-jia-lian-luo-yuan-hui-yi>(검색일: 2020. 6. 9).
- CAEISP 홈페이지. 2017. 「中国—东盟环境合作国家联络员会议在成都召开」. (5月31日). <http://caeisp.org.cn/zh-hans/activities/china-asean-environmental-cooperation-national-liaison-conference-held-chengdu>
 (검색일: 2020. 6. 11).
- China Everbright Limited. 2020. “Everbright “Belt & Road” Green Fund is Officially Established, with Capital Raised in the First Phase Set at RMB 10 Billion ; Fundraising from Everbright Cornerstone LPs Completed.” (April 21). <https://www.everbright.com/en/news/everbright-%E2%80%9Cbelt-road%E2%80%9D-green-fund-officially-established-capital-raised-first-phase-set-rmb-10>(검색일: 2020. 6. 10).
- CSIS. “Belt and Road.” <https://reconnectingasia.csis.org/database/initiatives/one-belt-one-road/fb5c5a09-2dba-48b9-9c2d-4434511893c8/>
 (검색일: 2020. 9. 30).
- Dorman, Brian and Tyler James Olsen. 2019. “The ASEAN Way Out? Toward Cooperative Environmental Governance in Southeast Asia.” <https://www.e-ir.info/2019/08/10/the-asean-way-out-toward-cooperative-environmental-governance-in-southeast-asia/>(검색일: 2020. 8. 15).
- Environmental and Energy Study Institute. 2018. “Exploring the Environmental Repercussion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October 30). <https://www.eesi.org/articles/view/exploring-the-environmental-repercussions-of-chinas-belt-and-road-initiative>(검색일: 2020. 6. 10).
- EU. 2018. “Annex 20 - Action Fiche for EU-South East Asia Cooperation on Mitigating Climate Change Impact from Civil Aviation.” https://ec.europa.eu/fpi/sites/fpi/files/annexes_aap_2018_phase_ii_1.pdf
 (검색일: 2020. 10. 5).

- Ewing, Jackson. 2019. "Making the Belt and Roa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Greening 'Greening' the BRI is a two-way street that starts in Beijing." *The Diplomat*, (March 3). <https://thediplomat.com/2019/05/making-the-belt-and-road-environmentally-sustainable/>(검색일: 2020. 8. 27).
- Greenpeace. 2019. "Southeast Asia's Struggle Against the Plastic Waste Trade." <https://www.greenpeace.org/southeastasia/publication/2559/southeast-asias-struggle-against-the-plastic-waste-trade/>(검색일: 2020. 10. 5).
-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홈페이지. 2019. "Twenty-seven Global Institutions Sign up to Green Investment Principles for the Belt & Road." May 3. <https://beltandroad.hktdc.com/en/insights/twenty-seven-global-institutions-sign-green-investment-principles-belt-road>(검색일: 2020. 6. 10).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ASEAN+3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https://www.env.go.jp/earth/coop/coop/english/dialogue/asean_3.html(검색일: 2020. 6. 5).
- Losos, Elizabeth, Alexander Pfaff, Lydia, Olander, Sara Mason and Seth Morgan. 2019. "Is a Green Belt and Road feasible? How to mitigate the environmental risk of BRI Infrastructure Project." *World Bank Blogs*, (January 29). <https://blogs.worldbank.org/trade/green-belt-and-road-feasible-how-mitigate-environmental-risk-bri-infrastructure-project>(검색일: 2020. 6. 10).
- Ministry of Energy, Science, Technology, Environment & Climate Change, Malaysia. 2018. "Malaysia's Roadmap towards Zero Single-use Plastics 2018-2030." <https://www.mestec.gov.my/web/wp-content/uploads/2019/03/Malaysia-Roadmap-Towards-Zero-Single-Use-Plastics-2018-20302.pdf>(검색일: 2020. 10. 5).
- Molthof, Mieke. 2012. "ASEAN and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Feb. 8. <https://www.e-ir.info/2012/02/08/asean-and-the-principle-of-non-interference/>(검색일: 2020. 8. 15).
- Nakano, Jane. 2019. "Greening or Greenwash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SIS Newsletter*, (May 1). <https://www.csis.org/analysis/greening-or-greenwashing-belt-and-road-initiative>(검색일: 2020. 8. 20).

- Narain, Divya. 2020. "Banks need to take Belt and Road environmental risks seriously." *China Dialogue*, (January 30). <https://chinadialogue.net/en/energy/11820-banks-need-to-take-belt-and-road-environmental-risks-seriously/>(검색일: 2020. 8. 27).
- Nation Thailand. 2019. "Thailand to junk three kinds of plastic by end of this year." <https://www.nationthailand.com/national/30367931> (검색일: 2020. 10. 5).
- State Council of the People Republic of China. 2011. http://english.gov.cn/official/2011-04/21/content_1849913.htm(검색일: 2020. 8. 20).
- State Council of the People Republic of China. 2014. http://english.gov.cn/archive/white_paper/2014-08/23/content_281474982986592.htm (검색일: 2020. 8. 20).
- Sun, Yun. 2014. "China's Aid to Africa: Monster or Messiah?" *Brookings East Asia Commentary*, (February 7). <https://www.brookings.edu/opinions/chinas-aid-to-africa-monster-or-messiah/#:~:text=%5B1%5D%20Aid%20is%20an%20important,cumulative%20foreign%20aid%20of%20China>(검색일: 2020. 9. 13).
- Wade, Geoff. 2011. "Could ASEAN Drift Apart?" *YaleGlobal Online*, (February 25). <http://yaleglobal.yale.edu/content/could-asean-drift-apart>(검색일: 2020. 7. 10).
- 日本環境省. "Japan-ASEAN Dialogu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https://www.env.go.jp/earth/coop/coop/english/dialogue/asean_j.html (검색일: 2020. 10. 5).
- 中国-东盟环境保护合作中心 홈페이지. 「中国-东盟环境保护合作中心简介」. <http://www.chinaaseanenv.org/zxgk/zxjj/201612/U020171106402682831249.pdf>(검색일: 2020. 6. 10).
- 中国-东盟环境保护合作中心 홈페이지. 2012. 「2012中国-东盟环境合作论坛在北京召开」. (9月 19日). http://www.chinaaseanenv.org/zhxx/zxyw/201612/t20161223_396123.shtml(검색일: 2020. 6. 10).
- 中国-东盟环境保护合作中心 홈페이지. 2017a. 「中国东盟环境合作论坛(2017)在南宁召开」. (9月 18日). http://www.chinaaseanenv.org/zhxx/zxyw/201709/t20170918_421795.shtml(검색일: 2020. 6. 11).
- 中国-东盟环境保护合作中心 홈페이지. 2017b. 「东盟中心召开“推动一带一路建设:澜沧江-湄公河可持续基础设施建设投融资研讨会暨项目启动会”」, (7月 14日).

- http://www.chinaaseanenv.org/ydyj/201707/t20170714_417828.shtml
(검색일: 2020. 8. 20).
- 中国-东盟环境保护合作中心 홈페이지. 2018. 「2018中国—东盟环境合作论坛在南宁开幕」. (9月 19日). http://www.chinaaseanenv.org/zhxx/zxyw/201809/t20180919_608816.shtml(검색일: 2020. 6. 11).
- 中国环境保护部, 外交部, 发展改革委, 商务部. 2017. 「关于推进绿色‘一带一路’建设的指导意见」. (4月 26日). http://www.mee.gov.cn/gkml/hbb/bwj/201705/t20170505_413602.htm(검색일: 2020. 6. 10).
- 中国环境保护部. 2017. 「一带一路生态环境保护合作规划」. (5月 16日). <http://www.mee.gov.cn/gkml/hbb/bwj/201705/W020170516330272025970.pdf>
(검색일: 2020. 8. 27).
- 中国生态环境部, 东盟成员国环境主管部门. 2016. 「中国—东盟环境合作战略(2016-2020年)」. <http://www.chinaaseanenv.org/zlyjzdm/dmhzdm/hzzldm/201812/P020181207675335768434.pdf>(검색일: 2020. 8. 20).
- 中国生态环境部, 东盟成员国环境主管部门. 2016. 「中国-东盟环境合作行动计划(2016-2020)」. http://www.caeisp.org.cn/sites/default/files/zhong_guo_dong_meng_huan_jing_he_zuo_xing_dong_ji_hua_2016-2020.pdf(검색일: 2020. 8. 20).
- 中国生态环境部. 2019. 「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绿色之路分论坛在京举行」. (4月 26日). https://www.mee.gov.cn/xxgk2018/xxgk/xxgk15/201904/t20190426_701055.html(검색일: 2020. 9. 30).
- 中国生态环境部. 2020. 「李克强出席澜沧江—湄公河合作第三次领导人会议」. (8月 24日). http://www.mee.gov.cn/ywdt/szyw/202008/t20200825_795163.shtml(검색일: 2020. 6. 9).
- 中国外交部 홈페이지.
- 中央政府门户网站. 2016. 「李克强主持澜沧江-湄公河合作首次领导人会议时强调, 携手打造澜湄国家命运共同体」. (3月 23日). http://www.gov.cn/guowuyuan/2016-03/23/content_5056912.htm(검색일: 2020. 9. 30).

[법률/협정문자료]

- ASEAN Co-operation Plan on Transboundary Pollution.
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Control.
ASEA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Control Fund.

ASEAN Vision 2025 on Disaster Management.
ASEAN. AADMER Work Programme 2016-2020.
ASEAN.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2002).
Global Task force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UN Habita and
UNDP. Roadmap for Localizing the SDG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at Subnational Level. 2016.
中国人大网.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2003. 9. 1).

부 록

K



부록 표 1. 아세안 국가에 대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사업명	유형	시작	완료 (예상)	국가	금액	비중
4th 캄보디아-중국 우정의 다리	도로	2011	2014	캄보디아	32.9	0.0
7th 캄보디아-중국 우정의 다리 (Koh Thom 다리), Kandal	도로	2014	2017	캄보디아	22.0	0.0
An Khanh 화력발전소 I Unit I	발전소	-	2015	베트남	655.0	0.8
Bac Luan 2 다리, Mong Cai (Quang Ninh, 베트남) - Dongxing (Guangxi, 중국)	도로	2014	2017	베트남	14.8	0.0
Balikpapan- Samarinda 도로 개발	도로	2010	2018	인도네시아	985.0	1.3
Vientiane-Boten 철도 (건설)	철도	2015	2021	라오스	5,800.0	7.4
중국-미얀마 송유관 (건설)	송유관	2009	2014	미얀마	1,000.0	1.3
Cilacap Jawa 에너지 발전소 Phase II	발전소	-	2022	인도네시아	139.8	0.2
Cilacap 증기 터빈 발전소 확장 Phase I	발전소	-	2016	인도네시아	0.0	0.0
Cirebon-Kroya 철도 (건설)	철도	2017	2019	인도네시아	105.0	0.1
Second Ring 도로 건설	도로	2016	2019	캄보디아	0.0	0.0
Ksemksant-Thnal Totueng 도로 (확장)	도로	2017	2020	캄보디아	40.9	0.1
Gunturharjo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항구	-	-	인도네시아	0.0	0.0
Hai Duong 화력발전소 Unit I	발전소	-	2020	베트남	2,300.0	2.9
Hai Phong 화력발전소 Phase II Unit I	발전소	-	2014	베트남	620.0	0.8
Hai Phong 화력발전소 Phase II Unit II	발전소	2007	2014	베트남	620.0	0.8
Houay Lamphan Gnai	발전소	2010	-	라오스	206.0	0.3
Jakarta-Bandung 고속철도 (PPP)	철도	2016	2021	인도네시아	5,900.0	7.5
자카르타 모노레일 프로젝트, 자카르타 (Special City District)	철도	-	-	인도네시아	1,500.0	1.9
Jatigede	발전소	2015	2019	인도네시아	224.0	0.3
Kamchay 수력발전소	발전소	2006	2011	캄보디아	280.0	0.4
Kayan I	발전소	2018	-	인도네시아	2,000.0	2.6
Kayan III	발전소	2018	-	인도네시아	0.0	0.0
Kayan IV	발전소	2018	-	인도네시아	0.0	0.0
Kyaukpyu 심해 항구 (건설)	항구	2016	-	미얀마	7,200.0	9.2
Kyaukpyu (Rakhine, 미얀마)-Kunming (Yunnan, 중국) 철도	철도	2018	-	미얀마	0.0	0.0

부록 표 1.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사업명	유형	시작	완료 (예상)	국가	금액	비중
Manado-Bitung 유료도로 (건설)	도로	2017	2019	인도네시아	503.0	0.6
Mao Khe 발전소 Unit I	발전소	-	2012	베트남	557.0	0.7
Mao Khe 발전소 Unit II	발전소	-	2013	베트남	557.0	0.7
메콩 다리 프로젝트, Stung Treng	도로	2011	2015	캄보디아	50.0	0.1
Muara 컨테이너 터미널 (개선)	항구	-	-	브루나이	0.0	0.0
Muse-Mandalay 고속철도	철도	-	-	미얀마	0.0	0.0
Nam Ngum 3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발전소	2015	2020	라오스	1,200.0	1.5
Nam Ngum 4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발전소	2016	2023	라오스	706.0	0.9
국도 No. 5 증축 프로젝트	도로	2012	2016	캄보디아	0.0	0.0
Udong-Thnal Totoeng 도로 (NR 51)	도로	2017	2020	캄보디아	40.0	0.1
NR 58 Banteay Meanchey - Otdar Meanchey 도로 (건설)	도로	2015	2018	캄보디아	122.0	0.2
시엠립-Kampong Cham 도로-국도 6A (확대)	도로	2013	2017	캄보디아	248.0	0.3
Pursat-Thmorda 도로 (건설)	도로	2015	2018	캄보디아	133.0	0.2
국도 (NR) 57B 프로젝트, Battambang	도로	2010	2014	캄보디아	90.0	0.1
국도 프로젝트 No. 11 (NR1: Neak Loeung - NR7: Thnal Tortoeung)	도로	2015	-	캄보디아	0.0	0.0
Pakbeng-Ngeun 다리 프로젝트	도로	2012	2015	라오스	30.8	0.0
Pangkalan Susu 발전소 Phase II Unit I	발전소	-	2018	인도네시아	564.9	0.7
Pangkalan Susu 발전소 Phase I Unit II	발전소	-	2016	인도네시아	564.9	0.7
Pelintung Dumai 공업지구 발전소단지	발전소	2014	2018	인도네시아	675.0	0.9
Phnom Penh - Sihanoukville 고속도로	도로	2017	2020	캄보디아	1,900.0	2.4
Preah Vihear-Kaoh Kong 철도	철도	2010	2017	캄보디아	9,600.0	12.3
Quang Ninh 발전소 Phase II Unit II	발전소	-	2009	베트남	0.0	0.0
Quang Ninh 발전소 Phase I Unit I	발전소	-	2009	베트남	0.0	0.0
Quang Ninh 발전소 Phase I Unit II	발전소	-	2010	베트남	0.0	0.0
Siem Reap 신 국제공항, Siem Reap	복합운송	2017	2022	캄보디아	1,000.0	1.3
Sino-Thai 고속철도 (Phase 1), Section Bangkok-Nakhon Ratchasima Sino-Thai 고속철도 (Phase 1),	철도	2017	2021	태국	180.0	0.2

부록 표 1.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사업명	유형	시작	완료 (예상)	국가	금액	비중
Section Nakhon Ratchasima-Nong Khai	철도	-	-	태국	0.0	0.0
Sino-Thai 고속철도 (Phase 2), Section Kaeng Khoi-Map Ta Phut	철도	-	-	태국	0.0	0.0
남중국해 - Malacca 철도 연결	철도	2017	-	태국	13,000.0	16.6
South Pulangi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발전소	2019	-	필리핀	0.0	0.0
Stung Tatay 강 수력발전 댐, Koh Kong	발전소	2014	2015	캄보디아	540.0	0.7
Tayan 다리	도로	2012	2015	인도네시아	65.0	0.1
Thai Binh 화력발전소 II Unit I	발전소	-	2018	베트남	850.0	1.1
Thang Long 화력발전소 Unit I	발전소	2014	2019	베트남	1,000.0	1.3
Thang Long 화력발전소 Unit II	발전소	2014	2019	베트남	1,000.0	1.3
Purukcahu-Bangkuang 철도(건설)	철도	2018	2023	인도네시아	5,300.0	6.8
Vinh Tan 석탄화력발전소 III Unit I	발전소	-	2020	베트남	2,700.0	3.5
Vinh Tan 석탄화력발전소 III Unit II	발전소	-	2020	베트남	2,700.0	3.5
Vinh Tan 석탄화력발전소 III Unit III	발전소	-	2020	베트남	2,700.0	3.5

A Study on Promoting New Southern Policy through Analysis of China's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ASEAN

Taekgoo Kang, Sangyun Lee, Changsub Shim, Hoon Chang, and Jeongseok Lee

This study has two main research objectives. First, the study evaluate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proposes a number of cooperative projects, based on China's cooperation with ASEAN, which is mainly strengthened through bilateral initiatives, particularly in the sustainable environment sector. Second, under the New Southern Policy, this study derives cooperation strategies for ASEAN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Keeping the COVID-19 pandemic that is sweeping the entire world and the emerging security trend of prioritizing state sovereignty in mind, we actively seek to address human security concerns in major governmental policies, prioritizing human life and dignity. While the New Southern Policy puts an emphasis on humanity, the goal of a sustainable environment – which has a direct impact on human life – has not been properly established in the policy. As Korea's past ASEAN policy was focused on economic profit and market acquisition, it is now crucial to build trust in the relationship with ASEAN through a human-centered approach, and to expand cooperation across broader areas. The outcome of this study will prepare measures to promote cooperation with ASEAN, which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New Southern Policy

The major conte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s 2 and 3

respectively analyze the overview and outcome of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the overview and outcome of Kore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fter 2010. Specifically, Chapter 2 describes China's strategy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ASEAN, and summarizes the overview of ASEAN cooperation and the major cooperation mechanisms. Based on these, this study identifies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outcomes of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clude the launching and operation of the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reaching an agreement and adopting a policy concerning green development, operating the China-ASEAN Environmental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establishing Lancang-Mekong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Green Investment and Financing, and fostering active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human resources exchanges with ASEAN. Despite the above mentioned outcomes of China-ASEAN cooperation in the sustainable environment sector, there still remain a number of limitations in this cooperation. First of all, overseas projects based on the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follow low socio-environmental guidelines, or lack mandatory regulations. For these reasons, the lack of environmental consideration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infrastructure has cause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struction in the recipient countries, provoking the continued opposition of local communities. In addition to the complaints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struction, overseas projects are funded by Chinese capitals, laborers, companies. This does not bring much in the form of tangible benefits to the governments and nations involved in the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resulting in a backlash among those recipient countries. In addition, there is a considerable gap between China and ASEAN countries in terms of their views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China lacks the capacity to provide environmental

assistance. In addition, the financial assistance required for performing ASEAN cooperation is insufficient in China.

Chapter 3 presents an overview of Korea-ASEAN cooperation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major cooperation mechanisms, and ODA status in relation to the New Southern Policy. Based on this, it examines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atus of Kore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ROK government has been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with ASEAN by hosting 2019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The ROK government are also currently operating the New Framework for the ASEAN-ROK Cooperation Fund(2017-2020) and 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AKECOP) across all ASEAN-Korea sectors includ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However, 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has limitations. For instance, this cooperation lacks strategies that integrate mid-term and long-term plans, and it is not implemented strategically from a mid-to-long-term perspective. In addition, the foundation for cooperation with individual ASEAN countries is relatively poor. The ASEAN cooperation tends to focus only on a few specific countries, including Vietnam. There are lack of consideration for mainstream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e New Southern Policy.

Based on this discussion, Chapter 4 presents a SWOT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ASEAN-China environmental cooperation to explore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Korea-China cooperation and the New Southern Policy.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an implementation strategy for Korea-China cooperation and the New Southern Policy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ome of the main strengths identify through the SWOT analysis for South Korea are; a favorable public opinion compared to China, ASEAN being our second-largest trade partner and our third-largest investment market (as of 2018),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ASEAN initiative, our active

cooperation with ASEAN in the environmental sector, and the relatively richer ODA experience compared to China. The weaknesses are: the lack of organization and a mid-to-long-term plan for the 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relatively smaller-scale assistance compared to China and Japan, the relatively poor channels with individual ASEAN countries and unbalanced cooperation and lack of consideration to mainstream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pportunity factors have been identified as: the emergenc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hubs as an alternative to the Chinese market, the agreement of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continued efforts to integrate the ASEAN Economic and Social Community in the region, the government's strong wil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llowing economic growth, and an increased preference for Korea owing to the Hallyu(Korean Wave). Finally, the threats are identified as: intensifying competition due to Chinese expansion to the ASEAN region, high political instability in certain countries, and the lack of governance capacity of ASEAN countries. Based on this SWOT analysis,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ector for Korea-China cooperation would be the Smart Green City project that combines ICT-based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Furthermore, viable strategies under the New Southern Policy are: the human-centered human security approach along with economic consideration, discovering major cooperation priorities in the sustainable environment sector, mainstream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e New Southern Policy, establishing a responsible organization and strategy for the 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engthening Korea's soft power through environmental cooperation, increasing community awareness through bonding with civil society, and establishing a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The final chapter, Chapter 5, describes the main conclusion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It is crucial to relate the mainstreaming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ith the New Southern Policy. When establishing an upgraded version of the New Southern Policy in the near futur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ith the New Southern Policy in order to mainstream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Due to the unexpected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unfortunately, oversea field research was not possible.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only a review of the related literature and domestic expert seminars.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fic projects for all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EAN cooperation, an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ASEAN-Japan environmental cooperation.

<책임>

강택구

중국 칭화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現, E-mail: tgkang@kei.re.kr)

저서 및 논문

*After Breaking the Deadlock: Extending Cooperation with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rough Natural Disaster Management*
(공저, 2019)

『신남방정책과 대(對)ASEAN 환경협력』(공저, 2020) 외

<공동>

이상윤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환경정책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現, E-mail: sylee@kei.re.kr)

저서 및 논문

『전략환경영향평가 타당성 마련 연구 I』(공저, 2017)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공저, 2019) 외

심창섭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 대기과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現, E-mail: cshim@kei.re.kr)

저서 및 논문

『미세먼지 통합관리전략 수립 연구』(공저, 2019-2020)

『녹색전환, 지속가능한 생태 사회를 위한 가치와 전략』(공저, 2020) 외

장훈

미국 Cornell Univ. 도시계획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現, E-mail: hchang@kei.re.kr)

저서 및 논문

『기후변화적응정책 10년: 현주소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공저, 2019~2020) 외

이정석

미국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Public Affairs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現, E-mail: leejs@kei.re.kr)

저서 및 논문

『자기 및 집단 효능감을 통한 환경 친화적 행동 촉진에 대한 연구』(공저, 2018)
Grounded theory of knowledge process on public ecosystem managers in Seoul (2019) 외

KIEP 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자료 목록

■ 2020년

- 20-01 미·중 경쟁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홍성우·윤여준·김진오·임지운·남지민
- 20-02 인도 한류 분석과 문화협력 확대방안: 음악 및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 김정곤·이정미·윤지현
- 20-03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 분석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연구 /
강택구·이상윤·심창섭·장훈·이정석

■ 2019년

- 19-01 인도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마하리슈트라 주를 중심으로 / 류한별·윤지현·송영철
- 19-02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
정재욱·유광호·김상훈
- 19-03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
김정곤·이재호·김도연·신민아·김계국
- 19-04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방안 연구 /
정경원·하상섭·장수환·장유운
- 19-05 한국과 메콩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
김태운·안동환·지성태·윤태연·Phumsith Mahasuweerachai·
이용은·김법석·김나리
- 19-06 EU의 동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
정재욱·정민지
- 19-07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 사례를
중심으로 / 장은하·김은경·윤지소·김정수·박윤정·장영은
- 19-08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 김영석·권기수·강정원·김유경
- 19-09 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
문진영·한형민·류한별·박나연·윤지현·김미림·오윤아
- 19-10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수립 연구 /
허장·전형진·김상현·이효정·이병훈·이대섭·이수환·최정만

- 19-11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
이재훈·김경하·김은경·서상현
- 19-12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실태와 수요 분석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안 연구 /
문무경·구자연·김혜진·Nguyen Thi My Trinh·
Nguyen Thi Lan Phuong
- 19-13 한-인도 항공·우주와 4차 산업 협력 연구 /
김봉훈·박정웅·유나래·권혁민
- 19-14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와 한·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
정재욱·손성현·장윤희·유광호·정준환·이소영·이승문
- 19-15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박영호·정민지·문수현·김예진·최영출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A Study on Promoting New Southern Policy through Analysis of China's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ASEAN

Taekgoo Kang, Sangyun Lee, Changsub Shim, Hoon Chang, and Jeongseok Lee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중·아세안 환경협력과 한·아세안 환경협력의 전략, 협력 기제, 지원 현황, 성과, 한계를 분석하였고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제3국에 대한 한·중 협력과 신남방정책의 추진 전략을 모색하였다. 한·중 협력 분야로는 ICT에 기반을 둔 환경과 인프라를 결합한 스마트그린시티 사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향후 신남방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상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 전환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신남방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의 주류화를 도모할 것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한국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축이 되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SBN 978-89-322-9018-8
978-89-322-9000-3(세트)

정가 7,000원